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
060-700-1080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우리이웃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염등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한국홈페이지 : www.chando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8월 31일(음력 7월 27일) 수요일 (주간) 제 541 호

간화선 하와이 간다

무량사·本社 '…세계화 위한 선원장 초청 법회' 개최

내달 25일부터 5주간 … 미국인들 법문 듣고 참선 체험


진허 스님


현산 스님


영진 스님


설우 스님


혜국 스님

한국의 대표적 선원장 스님 5명이 하와이 무량사(주지 도현)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 공동주최로 9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리는 하와이 무량사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미국인들과 한국교포들에게 사자후를 설한다.

이번 선원장 초청 간화선 대법회는 한국불교의 간화선 수행법을 세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동안 무량사 설법전에서 열릴 간화선 대법회는 한국 선의 요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선원장 스님들이 1시간 30분동안 간화선의 고갱이를 쏟아낼 예정이다. 법주 및 설법 주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25일 입제식: 진허 스님(前 동화사 금당선원장), 간화선의 이해-본래성불 ▲10월 2일: 현산 스님(화엄사 선등선원장), 간화선의 기초수행-발심과 화두참구 ▲10월 9일: 영진 스님(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간화선의 기초수행-좌선법 ▲10월 16일: 설우 스님(법인정사 선원장), 간화선의 의미와 전통-정견 ▲10월 23일: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 간화선과 대자유·행복.

법문에 이어 선원장 스님들은 참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 동안 참선 실수를 진행해 한국 선의 오묘한 맛을 체험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번 간화선 법회에는 매주 300여명의 한국 교포들과 200여명의 외국인들이 참여할 예정. 법회는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현대불교와 무량사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16면 타블로이드판 '간화선 특집' 자료집 2만부를 발간해 하와이주립대등 하와이 전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하와이 무량사는 9월 24일(토) 오후 3시 설법전에서 무량사 창건 30주년 및 불교문화원 준공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저녁 7시부터는 문화원 준공을 기념해 경기민요공연 및 만찬을 하와이 호놀룰루시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코랄볼룸에서 내외귀빈 300여명을 초청해 갖는다. 또한 담원 김창배 화백의 서화 초대전도 열린다. (02) 2004-8234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월간중앙' 규탄 범불교대회

9월 1일 오후 2시 조계사서

월간중앙 8·9월호 기사와 관련 '월간중앙 불교 폄훼 규탄 1차 범불교대회'가 9월 1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직할사찰 주지스님들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조계종 뿐 아니라 각 종단 및 신도들이 참여하는 범불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 화계사 신륵사 주지스님과 전국비구니회 사회·호법부장 스님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월간중앙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결의했다.

한편 월간중앙측은 8월 26일 낮 12시 경 월간중앙 불교 폄훼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광, 이하 월간중앙 공대위)측으로 전화를 걸어 △불교계 신문에 사과문 게재 △대표자 108참회 및 총무원장에게 사과 등은 할 수 있으나 △월간중앙 폐간 △방송과 일간지에 사과문 발표 △월간중앙 8·9월호 전량 수거 △책임자들 즉각 사직 △정신적 물질적 피해 즉각 배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3면

투서 중지·화합 승가 촉구

'53선지식 승가회' 30일 조계사서 선언대회

"불교를 위하여 투서를 중지하고 불교 발전에 그 소임을 다해야 하며 출가 수행자의 본래 사명을 다하는 일에 나섭시다."

'종단 화합을 위한 53선지식 승가회'(상임공동대표 혜총·성광·진관, 이하 선지식 승가회)가 8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단의 화합과 투서 중지를 촉구하는 '선지식 선언대회'를 개최한다.

선지식 승가회는 "건강한 종단을 염원하며 바른 정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선지식 선언대회를 열고자 한다"며 "불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과 승가의 화합을 깨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거나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지식 승가회는 이어 "종단 간부들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서로 상대적으로 탁마하는 모습을 보여 부처님 전에 참회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서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선지식 승가회는 또 '원로 스님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불교 교단의 화합을 위해 원로스님들이 나서주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발우공양하는 '대장금' 이영애

인기스타 이영애 씨가 일본 NHK TV의 특집 제작과 관련 8월 24~25일 마곡사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저녁 예불, 범종 타종, 걷기 명상, 발우공양 등을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과 자비로운 마음을 키운 이씨는 지도법사 마가 스님에게 "절(寺)에 가서 절을 하면 자만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서 좋다"고 말했다. 사진은 공양게를 외우고 있는 모습.

마곡사=고영배 기자

붓다뉴스에서 부다피아 정보를 만난다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는 8월 31일부터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부다피아(www.buddhapia.com)의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붓다뉴스에 오시면 이제 실시간 교계 동향은 물론 기사별로 동일한 색인의 동영상(뉴스, 법문, 강의, 다큐), 사진(7만여 장), PDF파일 등 관련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섹션에는 ▲논문(6천여 종)/고서/잡지(21종 1만여 기사) ▲불교 용어사전(1만9천 단어) ▲기관/단체(2만6천여 곳) 정보 ▲스크린 세이버 ▲관련 경전/법문 ▲도서 정보(yosiamun.com 제공) ▲불교 지식검색 등 부가정보도 제공합니다.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계율과 청규'
법주 : 법혜 스님(9월 3일 오후 3시)

'할'



그림·조태호

혜능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청규 제정 위한 위원회 설치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통도사 방장추대 "법대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현산. 혜국)는 지난 8월24~25일(1박 2일)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선원장 혜국)에서 선림위원회의를 열고 올바른 수행풍토 조성을 위해 선원 공동의 청규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의 선원장 한주 입승 등 45명의 선원대표자들이 모여 높은 참여도를 보인 이날 회의에서 공동대표로 추대된 혜국 스님은 "간화선에 대해 위기와 희망이라는 양극단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실과 수행을 조화롭게 지켜나가도록 애쓰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계율정신 회복을 통해 수행풍토를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공동청규 제정을 위한 청규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연구를 통해 내년 봄까지 기초자료를 작성하기로 했다.

청규위원회는 의정 상원사 선원장을 위원장으로, 간사에 신룡 백담사 선원장, 지현 송광사 선원장이 맡아 율장 백장청규 선원청규에 근거해 전국 선원별 청규를 살펴서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공동의 청규안을 마련해 내년 봄 선림위원회의에 상정한다.

수좌회는 또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선출과 관련해 특정한 개인을 반대하는 것도 문중에 간여하는 것도 아님을 명백히 하고 반드시 '방장은 20안거 성만'이라는 종법대로 처리해줄 것을 중앙종회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선거법도 부처님 가르침에 없는 법령의 폐지가 마땅하며 율장정신에 입각한 방법으로 추대되어야한다는 입장을 총무원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시방세계 대자암 무문관 입관 추첨현장 9면

월간중앙 불교폄훼 규탄 1차 범불교도대회

월간중앙과 중앙일보는 2천만 불자 앞에 사죄하라

귀의삼보하옵고,
월간중앙이 8월호와 9월호를 통해 1천7백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불교폄훼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2천만 불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월간중앙 8월호 '갓 쓴 양반들의 성담론 ⑥ 금단의 성'(백승종-푸른역사연구소장)이라는 글은 '1천7백년 동안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여온 불교와 스님들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며, 종교적 신앙심 자체를 앗아간 정신적 테러라 아니할 수 없다.
월간중앙은 불교를 모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훼손하는 이러한 기사를 싣는 것도 모자라 9월호에는 종단의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얻었다는 근거없는 정보를 근거로 조계종단의 권위를 부정하고 존립근거 자체를 희박하게 하는 반불교적 기사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간스포츠 8월24일자 만화 '안다스텐'에 "오이병이 믿는 것"이라는 내용의 만화를 통해 또다시 불교를 폄훼하는 내용이 실렸다.
월간중앙과 일간스포츠는 중앙일보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그룹 계열 언론사이다. 이들 언론의 행위는 우리사회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사건이며 선정성만을 고려한 황색언론과 다름 아니다. 이에 2천만 불교도는 불교에 대한 훼불을 중단하고 스스로 폐간을 단행함을 촉구하는 월간중앙 및 일간스포츠 불교 폄훼 1차 범불교도 대회를 9월 1일 오후 2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봉행하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방의 원로 대덕 스님들과 2천만 불교도는 파사현정의 마음으로 훼불론자들의 망동에 맞서 싸워 불교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 일 시 : 불기 2549년 9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조 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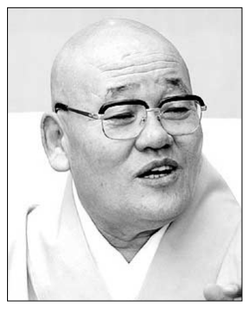
◇ 2005년 8월 26일 중앙일보 항의 방문

월간중앙 불교폄훼 규탄 공동대책 위원회

"검은 안경쓰고 보면 검게 보여…"

법장 스님, 박물관 · '월간중앙' 등 최근 종단 상황관련 입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사진)이 8월 24일 불교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단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법장 스님은 불교중앙박물관 문제와 관련 "공사 계약서가 4개인 점에 대해 물었다. 정 주임(전 실무담당자) 말이 예성애드컴(시공사)에 부가세 별도인 69억원 계약서를 잘못 전달해 다시 부가세 포함한 62억원 계약서를 전하면서 이전 것을 파기했다고 했다. 또 34억원과 28억원 계약서는 예성애드컴에서 세금감면 때문에 요청해 자신이 기안하고 도장을 찍어줬으나 이 또한 회수해 파기했다고 했다. 원가계산은 또한 '왜 투찰자와 상의했냐' 고 물으니 '잘못했다' 고 대답하더라"라고 밝혔다.

월간중앙 8, 9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8월호는 종단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겠지만, 9월호는 검은 안경을 쓰고 보니 모두 검게 보이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것은 대책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장 스님은 특히 최근 종단 상황과 관련 "총무원장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는데 편하게 걸어가게 해야 종단도 살고 나도 산다. 도중하차하면 종단만 추해진다. 종단만 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끌어내린 사람은 편안하겠는가. 문제는 항상 연속이다"라고 지적했다.

법장 스님은 중앙종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종무원 복지 개선 차원에서 "집 없는 종무원들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 종무원들끼리 조합을 결성해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이 것은 내 임기 중에 꼭 실현할 것이다. 내년이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영축총림 방장후보 초우 스님

만장일치 추천…중앙종회 추대절차 남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8월 22일 설법전에서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초우 스님(사진)을 차기 방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서는 원명 원산 목산 현문 스님 등 20명의 방장 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해 만장일치로 초우 스님을 방장 후보로 추대했다.

초우 스님은 "방장 후보 추대과정에서 문중간의 잡음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향후 문중의 화합과 불교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스님은 "방장 추전 과정에서 생긴 문제의 근원이 문중간의 갈등이었다"고 말하고 "차기 주지는 경봉 문중의 적임자로 임명할 것을 대중앞에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통도사는 월하 스님 입적이후 1년 8개월간 방장 공석 기간을 마감하고, 중앙종회에서 초우 스님의 대한 최종 추대를 남겨놓고 있다.

초우 스님은 1973년 통도사 주지, 81년 중앙종회 수석 부의장, 81년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현 영축총림 부방장을 역임 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국제교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동해 삼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다.

"한국 사찰체험 잊지 못할겁니다"

외국인 청년 16명 삼화사서 2주간 템플스테이

국제워크캠프기구(IWO) 주최 국제교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프랑스와 일본 · 독일 · 영국 등 5개국 젊은이 16명이 동해 삼화사에서 2주간의 템플스테이 및 자원봉사 활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8월 7일부터 20일까지 동해 삼화사에서 수해로 무너진 칠성탑을 복구하고 삼화사 앞 무릉계곡을 청소하는 작업을 했다. 또한 틈틈이 주지 원명 스님과의 선문답, 새벽 예불과 다도, 참선 등을 체험하며 한국불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이은비 기자

불교지식정보사업단 출범

조계종 포교원, 포교사 50명 참여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각종 유명 포털 사이트의 불교관련 정보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검색사이트의 왜곡된 불교정보 시정을 위한 '불교지식정보사업단(가칭)'을 8월 25일 발족했다.

사업단 단장에는 양승홍 조계종 포교사단장, 총괄팀장에는 방재수 포교사가 선임됐다. 사업단은 조계종 포교사단 소속의 포교사 50여명으로 구성됐다. 포교사들은 '네이버 지식 iN' '야후! 지식검색' 'Daum 키워드 지존' 등 유명 지식공유사이트의 불교질문을 검색, 분류한 뒤 답글을 올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은비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선거 돌입

9월1일 공고 24일 선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2004년 5월 통합신도회 출범 후 처음으로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일선에서 물러난 백창기 前 회장의 후임자를 찾기 위한 것.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천수, 이하 선관위)는 9월 1일 선거를 공식 공고하며 4일까지 선거인단 등록을 받는다.

선관위는 또 6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24일 총회를 통해 새 회장을 맞는다.

유철주 기자

포교 · 신도단체실무자 연수교육 실시

조계종 포교원은 8월 23~24일 양주 송추 유스호스텔에서 포교 · 신도단체 실무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에는 중앙신도회, 서울광역신도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여성개발원 등 포교원 산하단체 실무자 28명이 참가했으며 '조직활성화 전략' '비영리단체의 이익모델과 자생적 토대마련' 등의 특강이 진행됐다.

이은비 기자

소림사 창건주승계 '무효' 조계종 법규위 결정

조계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천제)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심판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이 2003년 11월 4일 종인 스님으로 소림사 창건주 권한승계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종립대학에 청소년학과를…

포교연구위, '청소년 포교…' 워크숍 개최

청소년포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불교를 지도할 청소년지도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종단 내 청소년지도자 유실율이 높다.

1995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의 전체 지도자 수는 6천여 명에 이르렀지만 현재는 1578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포교연구 위원회가 '청소년포교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8월 25일 개최한 제1차 포교연구위원회 워크숍에서 이경석 도봉고등학교 교감에 의해 확인됐다.

청소년지도자 급격 감소
육성업무 비중 더 높여야

워크숍에서 '불교 청소년지도자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경석 교감은 이러한 현황을 짚은 뒤 △불교청소년 지도자 육성업무를 포교원의 주요 업무에 포함시킬 것 △실행기관을 선정해 연구사업으로 운영한 후 일반화 시킬 것 △종단 내 각종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할 것 등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 역시 "타종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청소년 관련학과를 설립하고 종교의식이 내재된 청소년 복지사 등을 배출하고 있다"며 불교종립학교 내 청소년학과 개설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 사회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개편해 수도권에 필요한 복지사를 양성, 사회복지학과 내 청소년복지학 전공을 두어 청소년복지사를 양성, 체육학과를 증원해 청소년체육지도학을 전공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청소년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은비 기자

군포교 조계종 독자행보 '안될 말'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일면 스님에 '어필'

군 포교와 관련해 천태종이 조계종의 독자행보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8월 25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군종특별교구 설치가 조계종 일변도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범불교적 차원에서 군 포교를 지원해 왔는데 더 이상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는 군종교구가 조계종 위주로 구성되면서 이웃종단 배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으로 판단된다.

운덕 스님은 이어 "군불교를 조계종이 독점하고 다른 종단의 진출을 막는 상황을 국방부가 용인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에 질의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승개방 등의 문제 때문에 8월 16, 18일 태고종과 진각종을 연이어 방문한 일면 스님은 "신흥종교들도 군포교를 하겠다고 나서는 만큼 군불교 개방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운덕 스님에게 ▲군승파견 문제 다룰 종단협의체 구성 ▲논산훈련소 수계법회의 순차적으로 종단별 주관 등을 제안했다.

강유신 기자

한·스리랑카 불교대 교류논의 기탕자나 부의장 법장 스님 예방

기탕자나 구나와데나 스리랑카 국회부의장이 8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예방해 양국 불교대학 교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탕자나 구나와데나 스리랑카 국회부의장이 "스리랑카 팔리 대학과 동국대나 중앙승가대 등 한국의 불교계 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상호 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부의장은 "조만간 공식 제안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이사장 징계 결의 조계종 동대조사특위

조계종 동국대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토진)는 8월 25일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지검에 관련사안에 대한 조속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9월 초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기로 했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고침 본지 540호 1면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기사에서 '선원장회의 의장에 영진 스님'을 '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영진 스님'으로 바로잡습니다.

종단발전과 화합을 위한 전국선원수좌의 호소와 제안

"우리는 부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본다. 그 길은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이다. 갈등을 부정하기 보다 갈등자체가 본래 공(空)한 것임을 보여 주셨으며 다시 지혜와 자비로 이를 구족시켰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징하게 보여주셨다."

이글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무원 노동조합 창립선언문' 서두에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이 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을 가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갈등을 부정하기보다 갈등자체가 본래 공한 것을 보고 있는가?'

우리 모두 정직하게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이 물음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종단구성원 우리 모두는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을 가려고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갈등을 부정하기 보다 갈등자체가 본래 공한 것으로 보도록 끊임없는 정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들 불제자는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고 그리하여 지혜와 자비를 구족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부 종무원들이 시도하는 노동조합의 결성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종헌 종법의 테두리안에서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불교 교단의 전통과 불교문화, 불교인의 정서에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는 너와 나, 이것과 저것의 분별아닌 모두를 향상시키는 길을 장애하고 갈등자체가 본래 공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노동쟁의가 야기되어 갈등을 더욱 키워갈 위험이 너무도 큽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한다하더라도 필경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예측할 수 없는 갈등 구조속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국선원 수좌회에서는 일부 중앙종무원들이 시도하는 노동조합결성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좌스님들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다수 스님들은 모두 같은 심정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으로는, 그 방편을 통해서는 설사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종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애정어린 마음으로 경고합니다.

종무원 불자들의 애로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불교를 사랑하고 종단을 아끼는 그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 불교를 사랑하고 종단을 아낀다면 전국본사주지스님들이 그토록 염려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수좌스님들과 대다수의 스님들이 왜 노동조합만은 안된다고 반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신고를 철회하고 종무원 불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바랍니다. 종무원은 노동자라기보다 삼보를 외호하고 전문성을 통해서 교단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불자입니다. 종무원 불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종단을 위해 봉사하는 종무기관의 소임자 스님들도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열린마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섭수하여 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종무원 불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닌 중앙종무기관의 예산은 전적으로 삼보정재의 분담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종도들은 삼보정재로 바쳐지는 분담금의 그 많은 분량이 중앙종무기관의 운영비(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데 과연 중앙종무기관의 그렇게 많은 인력과 그에 따른 많은 인건비에 비례하여 종단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겸손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종단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종단에 불고 있는 풍향은 종단발전과 불교의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에 역풍이 되어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긍정적인 새싹들마저 뿌리채 뽑아버릴 거센 비바람이 될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종단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는 우리 모두 뼈아픈 자기성찰과 참회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종단내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고 종단이 안고 있는 폐단, 선거제도등 비 불교적, 반 승가적 제도를 부처님 교법과 율장정신에 입각하여 개혁하기 위해 제방의 대덕스님, 중진스님 등 불교계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개혁의 틀을 짜야 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불조(佛祖)와 대중앞에 각자의 허물을 참회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시다.

우리 수좌스님들도 대중들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부처님과 역대조사스님들과 불자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대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기 위해 참회어린 마음과 뼈를 깎는 자세로 가일층 분발하여 더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불기 2549년 8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 수좌회

‘월간 중앙’ 불교 폄훼기사
교계 항의 확산

조계종 · 종단협 등 잇따라 항의방문 사과 촉구

<월간중앙> 8 · 9월호에 게재된 불교 폄훼 기사와 관련 불교계의 항의가 점점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종단협의회(회장 법장)와 ‘월간중앙 불교 폄훼규탄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성광)’ 스님들은 8월26일 오후 6시 ‘월간중앙’ 권영빈 발행인을 만나 불교계 요구사항 이행을 촉구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권영빈 발행인은 현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직할교구 상임위원회 소속 스님들과 조계사 신도들이 8월 22일 <월간중앙>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23일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중앙일보사를 찾아 항의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념,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등은 중앙일보 장경태 경영지원실장을 만나 △5대 일간지 공개 사과문 게재 △월간중앙 대표이사 편집국 등 사퇴 △<월간중앙> 조속 폐간 등을 요구했다.

또 24일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일반직 종무원 100여명이 중앙일보사와 월간중앙을 잇달아 항의방문했다.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 등은 이장규 월간중앙 대표이사 등과 만나 △공중파 및 일간지에 사과문 발표 △<월간중앙> 8 · 9월호 전량 수거 △월간중앙 대표이사, 사장, 편집장, 9월호 기사 작성 기자 사직, 8월호 연재자 종단 방문 108참회 △정신적 물질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월간중앙 불교 폄훼 규탄 공동대책위원회’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월간중앙>이 스님과 불자는 물론 종단과 한국불교 전체를 파렴치한 집단, 부도덕한 역사와 교리를 가진 종교로 매도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종무원들의 모임인 원우회(회장 양진수)도 24일 성명서에서 “중앙일보와 월간중앙은 언론권력이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해 이에 항의하는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사 정문에서 ‘월간중앙’ 규탄공동대책위 스님과 신도등 2백여명이 8월26일 월간중앙의 불교폄훼 기사에 대해 항의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건은) 우리 사회 막중한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사건이며, 선정적 선동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신앙과 정신을 좀먹는 행위로서 언론으로서의 포기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월간중앙 대국민사과 및 책임있는 조치 실행 △중앙일보사 대국민사과, 재발방지 약속, 월간중앙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신속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월간중앙> 8월호 ‘사람 살리기 주로 하시는 스님 어찌 나를 이리 죽여주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큰스님이 수간(獸姦)을 한다는 등 비상식적인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월간중앙> 9월호에는 ‘조계종 4대 의혹을 캔다’라는 제목으로 ‘2003년 총무원장선거 때 양 캠프 돈 얼마나 뿌렸나?’ ‘불교박물관 공사비 2배 뻥튀겨진 이유?’ ‘화엄사 M주지 비리 등 검찰 수사 어디로 가고 있나?’ ‘아파트 공사에까지 미친 추문의 진상은?’ 등 4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9월호 기사를 쓴 고성표 <월간중앙> 기자는 20일 “허위나 왜곡 사실이 없다. 기사에 대해 충분한 증거도 있고 미확인 내용도 더 있다”고 밝혔다.

부다피아 홈피에 미용 커뮤니티 ‘눈길’

불교TV에서 분장 · 헤어 · 의상 팀장으로 활약한 스타일리스트 김경숙씨가 불자들을 위한 ‘여성 미용상담(cafe.buddhapia.com/community/kgsook)’ 커뮤니티를 부다피아에 개설했다.

김경숙의 ‘여성 미용 상담’은 여성 미용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여성 피부관리, 코디법, 헤어관리, 불교행사에 맞는 특수 분장 등을 실용적으로 알려주게 된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피부관리 코너도 마련했다.

특히 특수 분장은 해마다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서 축적한 실력을 원하는 모든 이들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개설했다.

김경숙씨는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누기 위해 이번 커뮤니티 개설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송광사 장애아시설 수탁

순천 송광사(주지 영조)가 순천시로부터 장애아동 전담시설을 수탁했다.

송광사는 8월 12일 순천시와 2007년 12월까지 순천시 서면 ‘순천시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시설 개소를 앞두고 있다. 정식 개소는 10월 중순경.

송광사의 이번 시설 수탁은 지역 최초의 장애아동시설이라는 점과 조계종 승보종찰인 송광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대지 601평, 연면적 235평 2층 건물로 야외수영장 · 보육실 · 치료실 등을 갖춰 지역 장애아동 60여명을 책임지게 된다. 김강진 기자

종교재정 투명화 포럼 9월6일 우리함께 회관

참여불교재가연대와 개신교, 가톨릭 단체 등으로 구성된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는 9월 6일 우리함께 회관에서 ‘투명사회와 종교재정의 투명성,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열린포럼은 불교, 개신교, 가톨릭의 종교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특히 최근 각 종교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 투명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조계사 영산재 22일 입제

올해로 3년째인 조계사 영산재가 10월 9일 봉행된다.

조계사는 8월 22일 입제해 10월 9일 범패시연을 끝으로 3년 동안 계속해온 영산재를 회향한다. 그동안 조계종은 타종단에 비해 빈약했던 불전의식의 전형을 세운다는 목표로 범패를 비롯한 영산재의식 재현에 힘써 왔다.

영산재를 주관하는 동주 스님은 “영산재 동참으로 불교의식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복지재단 바자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4일 오전 10시부터 조계사 앞마당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여성의류 1만여점이 판매되며, 이는 전액 종로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체 시설 건립에 쓰여 질 예정이다. (02)723-5101

김강진 기자

자비 땀방울에 번뇌 ‘훌훌’

철도공사 불자회, 은석사 · 부처님마을서 봉사



“직장에서만 만났던 법우님들과 함께 봉사하며 땀 흘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김흥식 한국철도공사 민원실장. 그는 휴일 대신 택한 봉사활동이기에 이웃을 위해 흘린 땀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냈다. 한국철도공사 불자회가 8월 20일 충남 천안 은석사와 장애인보호시설 부처님마을에서 펼친 자비의 봉사활동에서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30여 회원들은 지게와 배낭을 메고 1.2km에 달하는 은석산 아래에서 은석사까지 기와를 날랐다. 그들이 나른 기와는 총 200여장. 힘든 노동이었지만 힘을 북돋우는 도반들의 격려에 한걸음 한걸음 산길을 올랐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값진 도반들의 배려와 법우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은 다음 행선지인 장애인보호시설인 부처님마을에서도 이어졌다. 약간의 성금을 준비했지만, 자신의 몸도 가누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보고서 그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철도불자들은 시설 곳곳에서 자라는 풀을 뽑으며 (사진) 세상에 찌들었던 번뇌를 털어냈다.

김해수 철도공사 불자회장(여객사업본부장)은 “함께 흘린 땀 한방울 한방울이 회원들의 불심을 키우고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됐다”며 “모든 철도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현등사 3층석탑 사리구’ 제집 돌아올까

현등사 반환 신청…삼성 “소장 경위 문제 없어”

삼성이 점유하고 있는 현등사3층탑 사리구가 현등사로 되돌아올 수 있을까.

가평 현등사(주지 초격)가 삼성문화재단 이건희 이사장을 상대로 삼성문화재단이 점유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구 일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서부지법민사부에 제출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등사가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사리구는 은제원통형사리합(銀製圓筒形舍利盒), 수정제사리호(水晶製舍利壺), 사리 2과(舍利 2顆)로 구성된다. 사리합 표면에 1470년 영응대군(세종대왕의 아들), 사위, 딸의 시주로 현등사탑에 봉납됐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현등사 것이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펴낸 도록에도 현등사석탑사리구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사리구를 잃어버린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현등사는 민사조정신청에서 “사리라는 것은 시신을 화장한 후 얻어지는 인체의 일부며, 사리를 담은 사리합은 관곽과 같은 용도로 사리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다, 현등사라는 명문이 있어 현등사 것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문화재단측은 “1981년 김동현 옹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소장 경위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민사조정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현등사의 교구본사인 봉선사의 혜문 스님은 “소송을 통해 분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불경스럽게 느껴져 민사조정신청을 내게됐다”며 “삼성이 반환요청에 응해 현등사3층탑 안에 다시 안치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등사3층석탑은 1926년 간행된 <봉선사 본말사지>에 도선국사탑으로 명시돼 있어, 현등사측은 사리의 주인공이 도선국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권한대행 김의정)는 8월 23일 논평을 통해 “삼성문화재단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리구 일체는 현등사 3층석탑에 봉안되어 있다가 도난당한 것”이라며 “현등사 사리구 일체가 적법하게 반환이 될 때까지 2천만 불자들의 힘을 모아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익순 · 유철주 기자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부지 임대 승인요청 반려

조계종은 지난 2월 통영 용화사(주지 선곡)가 요청한 케이블카 건설 부지 임대 승인 요청을 반려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조계종은 공문을 통해 “토지임대 승인 신청이 접수된 후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지역 개발도 중요하지만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불법으로 진행된 케이블카 시설에 대한 철거와 공사 중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유철주 기자

“10 · 27법난 진상규명” 삼보 스님 복부 자해

1980년 10 · 27 법난 당시 간첩으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었던 탄허불교문화재단 이사 삼보 스님(당시 평창 상원사 주지)이 8월 23일 열린 ‘10 · 27 법난 피해자 증언보고회’에서 “법난 진상을 규명하라”며 복부를 자해했다.

삼보 스님은 “정부 차원에서의 규명은 물론 불교계 자체적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해 직후 삼보 스님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50여 바늘을 꿰맨 후 한양대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 27 법난 불교대책위 상임대표 법타 스님은 “삼보 스님의 자해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책임 있게 법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원 팔달사 주지 성해 스님(당시 제주 천왕사 주지)과 한영수 법난 당시 문화공보부 종무과장, 이건호 법난 당시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 등이 법난 당시의 경험을 증언했다. 유철주 기자

월간중앙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위한 모연문

귀의 삼보하옵고
중앙일보의 자회사인 월간중앙은 지난 8월호 9월호 연속 두 번에 걸쳐 불교계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을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왜곡, 폄훼함으로써 불교죽이기 망동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가 인수한 일간스포츠(2005년 8월 24일자) 14면 ‘안다스텐’이란 만화(글 · 그림 남정훈)에서 의도적이고 충격적인 불교 모욕의 내용을 담아 발행하였습니다.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삼류도색잡지로 전락한 월간중앙은 불교에 대한 테러를 중단하고 스스로 폐간을 단행하는 것이 그나마 양심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은 물론 종단과 한국불교 전체를 파렴치한 집단, 부도덕한 역사와 교리를 가진 종교로 매도한 월간중앙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려 합니다.
불자들께서는 파사현정의 마음으로 호법신장이 되어 불교살리기 불사에 동참하시기를 앙망합니다.

1. 거대 재벌 언론 월간중앙을 상대로 불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월간중앙은 스님들과 불자들을 성에 탐닉한 마구니 집단과 정신병자로 몰아 우리 불교의 전통을 송두리째 부정하였습니다.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저질 잡지의 가십성 기사에 담고, 한국불교와 대한불교 조계종에 대한 무례와 의도된 왜곡, 검은 거래에 의한 편파기사 작성은 2천만 불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에 월간중앙 불교폄훼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 불자 하나, 하나의 힘을 모아 우리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 냄으로써, 앞으로 닥칠지 모를 이러한 훼불론자들의 준동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2. 월간중앙 불교 폄훼 규탄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언론편향 대책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와 평화공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0억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배상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월간중앙과 5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제출할 인지대가 1천 8백 5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50억×0.0035+55만 5천원).
이에 월간중앙 불교 폄훼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2천만 불자 하나, 하나의 힘을 모으기 위하여 스님, 신도로부터 공히 1만원 이상을 모연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 위해서는 1806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물론 동참하는 분이 늘어날수록 배상액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3. 모연에 참가하실 불자님들께서는 1만원을 아래 계좌번호에 접수하시거나, 월간중앙 불교 폄훼 규탄 공동대책위 사무실(총무원 청사 1층), 월간중앙 사무실 천막농성장 모금함에 보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방의 원로대덕 스님들과 2천만 불자들은 월간중앙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지키고 불교계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마련하는 길입니다.

● 통장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501-04-056054 (예금주 정진용)
● 대책위 전화번호 : 02)2011-1861, 1862 / 팩스 02)2011-1863

월간중앙 불교폄훼 규탄 공동대책위원회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성공한 도심사찰이나 농어촌지역 사찰의 사례를 언급할 때 대부분은 주지스님 개인의 희생이나 원력만을 생각하기 쉽다. 지금까지 도심 · 농어촌 포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물론, 불교계 차원의 고민이 부족했던 결과다. 더 이상 종단이나 불교계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 없이 도심 · 농어촌 등 지역포교를 논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차별화된 포교전략과 주민밀착형포교를 위한 포교인프라 구축의 조건을 살펴보자.

‘원력 · 차별화 전략 · 종단 지원’ 삼박자 맞아야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도시 – ‘블루오션’을 개척하라

도심포교현장의 스님들은 부족한 공간, 인적, 물적 토대의 빈곤 속에서 마땅한 포교 프로그램 개설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심포교에 성공한 사찰들 가운데 처음부터 충분한 물적 토대를 갖추고 시작한 곳은 한곳도 없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하면서 대형교회와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자신만의 입지를 확고히 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의 특화된 생존전략을 거울삼는다면 소규모 도심사찰의 포교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이영철 NGO미래경영연구소장은 “소규모 사찰들도 도심 대형사찰의 그늘에 가려 도심속 산중사찰이 되지 않도록 나름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심화된 경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없는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 극심한 경쟁이 있는 핏빛 레드오션의 반대적 개념으로 경쟁이 없는 신영역개발)’을 스스로 창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근대적 의미의 도심포교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30여 년 전부터다. 도시불교, 젊은 불교를 주창하며 ‘불광운동’을 이끌었던 광덕 스님의 원력에 영향을 받은 젊은 스님은 산사를 내려와 아파트 단지 상가건물, 주택가 골목 안까지 파고들어 과감하게 불법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서울 삼선포교원장 지광 스님은 “불교는 산중에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1980년대 초 도심포교에 뛰어들었던 스님들은 요즘 벤처기업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이처럼 초기 도심포교는 몇몇 스님들의 투철한 포교원력을 밑바탕으로 성장해 나갔다.

이후 80~90년대 강남포교원 구룡사 능인선원 불광사 삼선포교원 안국선원 수원포교당 관음사영남불교대학 한마음선원 등은 다양한 신행프로그램 운영, 교리학습(교양대학)조직을 체계화한 신도관리 시스템, 현대화된 건물 등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는 나름대로 그늘이 있기 마련이었다. 사찰이 대형화 되면서 신도개인의 신행활동을 세세히 챙기기 어려워진 것이다. 90년대 이후 이러한 틈새를 적절히 메우는 특화된 포교전략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다.

안양 지장선원 주지 현호 스님은 “도시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다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더구나 교통이 발달돼 있어 어린이포교, 문화포교, 수행포교, 복지포교 등 그 사찰의 특성이 살아 있으면 사람들을 쉽게 모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사찰이 가진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의왕 용화사(주지 덕문)는 현대적 건축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편안하고 세련된 사찰공간으로 신도들에게 접근했다. 남다른 사찰건축이 입소문을 타면서 상담을 위주로 신도들과의 접촉을 늘려 도심포교에 성공했다.

대구 앞산공원 내에 위치한 은적사(주지 허운)는 생태와 환경에 초점을 맞춰 회보형식의 환경전문지를 발행하거나 나무심기 방생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지역의 명물이 됐다.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도심포교의 모범사례도 있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에 위치한 부처님마을(주지 효범)은 30~40대 가족법회중심의 포교에 집중하고 있다. 하남 상불사(주지 동효)도 신흥 주택가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이어 곧바로 가족법회를 가짐으로써 이를 성인 포교로 연결시키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한자교실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안산 보문선원(주지 보림)은 지역노인들에게 돋보기 무료 보급 같은 복지활동 뿐만 아니라 공단지역의 특성에 맞게 외국인 노동자 인권활동으로 불교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보림 스님은 평소 “포교란 나비의 작은 날갯짓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당장의 성과는 작지만 나중에 태풍을 만들어낼 인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많은 사찰들이 교육 포교 복지 사회 수행 등 특화된 프로그램들로 지역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심포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신도교육 프로그램과 장기적 포교전략, 우수한 인력, 시대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가 밑바탕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원력 갖춘 인재 전문교육 통해 집중 육성
주민정서 · 지역문화 반영한 전략 수립을
포교거점사찰 육성 등 지원 뒤따라야

농어촌 – ‘주민밀착형 포교’로 승부하라

농어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은 심각한 이농현상으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고령화 현상으로 대변된다. 대부분 바쁜 농사일로 생계를 잇기도 빠듯한데 종교생활은 사치라는 인식도 큰데다, 산사는 일반 신도들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사찰 운영 자체가 어렵다 보니 일부 스님 가운데는 절을 지키기보다 도시에 나가 기도를 해주거나 재를 지내는 데만 열중하는(?) 기현상도 벌어진다.

특히 농어촌지역 큰 절 옆에 있는 소규모 사찰들은 신도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법회조차 열지 못하는 곳이 늘면서 아예 농촌포교를 포기하는 경향이다. 큰 절 주변 사찰들도 그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 자체가 침체돼 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도시 · 농어촌지역 포교의 핵심은 주지스님들의 원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밀착된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다. 사진은 안산 보문선원 신도들이 지역어르신들을 위해 돋보기를 보시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안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성공을 거두고 있는 농어촌 사찰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지스님의 남다른 포교 원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

이런 속에서 대부분 어린이 포교, 지역실정에 맞는 염불이나 사경 등 육체노동에 지친 농어촌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포교 방법을 택하고 있다.

청량산 중턱에 위치한 봉화 청량사(주지 지현)의 경우 농사일로 바쁜 농민들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지현 스님은 경운기를 타고 밤마다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법회를 여는 노력 끝에 오늘날 청량사 토대를 만들었다. 지현 스님은 “주지는 지역주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사찰은 신도들이 어울리는 교류와 수행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창 고견사(주지 정안)의 경우도 불교대학을 열고 참선 교실을 해봤지만 결국 실패, 농사일에 지친 사람들이 졸지 않고 할 수 있는 염불 수행을 선택했다. 현재는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신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경북 성주 · 군위지역 사찰들은 주변의 만류 속에서도 복지센터를 열고 합장단과 봉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과연 자원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지난해 말 성주 조계종사원주지연합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이웃과 하나’복지관은 주 2회 독거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과 반찬 배달봉사를 펼쳐 지역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관청을 이용한 포교활성화도 농어촌지역에서는 유용하다. 성주 선석사(주지 선문)는 전통사찰의 이점을 살려 군비, 도비 등을 받아 불사에 노력하고, 지역 사찰들과 연계해 포교활동을 이어간다. 이는 불교문화재라는 관광 인프라와 포교를 결합한 사례로 지자체는 전통사찰을 지원하고, 사찰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라

도심과 농어촌 포교에 있어서도 핵심적 인프라는 역시 원력을 갖춘 인재, 차별화된 다양한 포교전략, 종단차원의 재정적 · 제도적 지원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 언급된 많은 사찰들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

포교에 뜻을 세운 스님들이 쉽게 의지를 꺾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수행중심의 종단분위기는 구태여 포교에 나서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한다. 종단은 선원 안거 수행뿐만 아니라 일선 포교경력도 우대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포교사를 배출만 할뿐 활용 시스템을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도 재점검해야 한다.

불교대학의 차원이 아니라 일선 포교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는 ‘포교아카데미’ 형태의 전문교육기관과 상시적인 워크숍의 도입도 중요하다.

사찰운영에도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철저하게 ‘수요자’ 입장에서 포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수다.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도심사찰의 주말 법회나 운영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산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이미 일부에서는 도시–농어촌 사찰간의 전략적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도심과 농어촌지역 미래포교의 성공열쇠는 주민들의 성향과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한 철저한 ‘지역밀착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포교를 지원할 중앙기구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지역 교구본사와 종단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다. 조계종은 한때 지역별로 포교거점사찰을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종단과 교구본사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흐지부지 됐다. 이제라도 종단차원에서 도심 · 농어촌 지역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포교거점사찰의 적극적인 활용 등 체계적 포교전략 수립에 나설 때다.

한명우 · 천미희 · 조용수 · 배지선 기자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19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i세상 속으로, iTV, TJB, CMB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 에서 강의

무료공개강좌 9월 22일 13:00~16:00까지
개강안내 9월 23일 10:00~18:00까지 (매주 금요일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 주 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부산 6대 종교지도자들

정신문화 회복운동 펼쳐



지난 6월에 열린 세계평화 기원 음악회에서 6개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하고 있다.

물질만능, 생명 경시 현상의 병폐를 '우리 문화 뿌리 찾기'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6개 종교 지도자가 팔을 걷고 나섰다.

다종교 시대를 맞아 종교간 화합과 공동선 실천에 뜻을 모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정여)는 내달 '한겨레 문화원(가칭)'을 발족하고 문화 교육 사업을 본격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7~8일 양일간 삼랑진 여여정사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겨레 문화원'의 조직 구성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한다.

지난 8월 11일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이미 좌담회를 갖고 문화원 발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터라 이날 논의를 통해 문화원 개원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천주교 김계춘 신부(반여성당), 정여 스님(여여선원 선원장), 한파 스님(가야불교문화원 이사장), 월강 스님(금어사 주지), 신준성 회장(성균관 부산시 유도회), 천도교 김성수 도훈, 원불교 남궁성 교무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지혜를 모으게 된다.

'한겨레 문화원' 발족 앞두고 사업 논의
청소년 위한 예절 역사 孝교육 등 계획
계간지 발간, 한민족 뿌리찾기도 전개

부산의 종교 지도자들이 맨 처음 손을 맞잡은 것은 2001년, 가야성당에서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면서부터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4대 종교 지도자가 모여 '부산 종교인 대화 아카데미'로 출발한 모임에 천도교, 유교 지도자가 합세하면서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종교간 교류와 화해를 위한 행사를 열어왔다.

그동안 가양성당, 만덕성당, 여여선원을 오가며 가진 작은 음악회, 시낭송회 등으로 심성을 아름답게 가꾸는 문화 행사에 주력해오던 종교 지도자들이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전통문화에서 찾아보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한겨레 문화원' 발족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겨레 문화원'은 부산불교회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핵가족화로 인해 해체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프로그램과 예절 교육, 역사 교육, 효 사상 고취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마음가짐을 되찾는 심성 교육에 각 종교 지도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계간지 발간, 한민족 뿌리 찾기 정신문화 포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생명윤리운동 전개 등 이념과 종교의 벽을 넘어 맑고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꾸기에 힘을 모으게 된다.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여 스님은 "배척하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이 바로 보살심"이라며 "한겨레 문화원은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되찾는 운동 본부로 우리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풀어가는 맑은 심성의 사람을 키워내는 공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영천 거조암 나한재 복원

고려이후 700여년 만에
10월 22일 영산전서 봉행

고려시대 이후 사라졌던 나한재가 복원된다.

나한기도 도량으로 잘 알려진 영천 팔공산 거조암(주지 현소)은 고려이후 700여 년간 단절됐던 나한재를 되살려 10월 22일 오전 10시 거조암 영산전(국보 제14호)에서 봉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나한이란 '세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수행자', '공양과 보시를 받을 만한 수행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성자'라는 뜻으로 아라한을 줄여서 부른 말이다. 당나라 현장 스님의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에 따르면 '스님들을 위하여 큰 법회나 5년마다 무차대회를 열면 십육나한과 권속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공양을 받으며 시주자에게 커다란 과보를 얻도록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나한재가 본격적으로 봉행된 것은 고려 때로, 나한재를 봉행하여 기우(祈雨)와 구복(求福) 국난극복 등을 기원했다.

거조암은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에 '정법의 시대에는 불교를 지키고, 말법의 시대에는 불자들의 복전이 되어 열반의 과보를 얻게 했다'는 나한 사상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한재를 복원 봉행하게 됐다"며 "정체성 상실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큰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한재는 법요식에 이어 명종, 봉헌무, 신중작법, 상단권공, 나한권공, 나한 육법공양 순으로 진행되며, 국악인과 인기 가수 등이 출연하는 축하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거조암 영산전은 526분의 석조나한상을 모시고 있는 전각으로 정면 7칸, 측면 4칸의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054)335-1369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산사의 하룻밤' 인터넷보다 신나요!

금정청소년수련관, 초등학생 위한 사찰체험



탁본시간. 먹물을 조심스럽게 묻혀 무늬를 찍어내며 아이들은 전통 문화의 멋스러움을 체험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을 붙들고 게임과 씨름 하고 있을 주말, 승채(금양초 6)는 범어사 금강암(주지 정만)에 올랐다. 20, 21일 이틀 동안 금강암에서 열리는 초등학생 산사체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금정청소년수련관(관정 정만)이 마련한 이번 초등학생 산사체험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중 처음으로 청소년들을 산사로 초청, 산사체험 행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산사의 생활을 이해한다는 취지에 맞춰 스님과 함께 하는 대화, 참선 등에 비중을 두고 진행됐다.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둘째 날, 아이들은 "친구들과 등도 만들고 단주도 만들면서 보낸 시간이 참 즐거웠다"며 "다시 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승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새벽 숲이 너무 멋져서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산사체험뿐 아니라 농촌체험 등으로 도심의 아이들이 평소 접할 수 없는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법왕사 15회째 백고좌법회

8월 20일, 대구 수성구 파동 법왕사(주지 실상) 제15회 백고좌법회 입제식에 300여명의 불자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연건평 삼천여 평 규모의 불교종합복지관 불사를 앞두고 봉행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11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 등이 참석해 <화엄경>과 <법화경> 그리고 계율에 대한 법문을 전할 예정이다. 법왕사는 1994년 이후 매년 한차례 이상 백고좌법회를 봉행해왔다. (053)766-3747

배지선 기자

대구BBS 금호문화원 개원

대구불교방송이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금오문화원(원장 이용녀)을 개원했다. 8월 28일 고불식을 갖고 9월 1일부터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을 비롯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오문화원은 산하에 신행학교, 예절학교, 문예학교를 두고 지역불교문화예술의 대중화를 꾀하며 신앙생활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53)255-6604 **배지선 기자**

대구 불광불교대 만불전 기공

대구 남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사요)이 포교와 교화, 교육과 문화, 자비와 복지의 삼대 역점 사업을 보다 원만히 실현시키기 위한 만불전 대법당 건립불사 기공식을 8월 20일 거행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거행된 기공식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혜승 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허운 스님, 이신학 남구청장, 장영관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등 5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육법공양, 주지스님 인사말, 축사, 법어,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광사 만불전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1,000평 규모로, 2006년 완공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농촌 살리고 불자들 건강 챙기고

부산 홍법사 "친환경 농산물로 공양 올리자" 캠페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8월 19일 정성스런 공양물을 올리며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백중을 맞아,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하자는 색다른 실천 운동을 시작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가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실천 협약'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이 참석해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실천의 의미를 전달했다.

도법 스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장 절실하게 느낀 문제점은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친환경농산물로 공양을 올리는 사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농촌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법사는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친환경 논농사로 생산되는 남원 실상사 인근의 농가 쌀을 공급받아 불단에 올림으로써 농촌도 살리고 불자들의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친환경 공양미를 불단에 올리는 것은 죽어가는 우리의 농토를 살리고 어려움에 빠진 농촌을 돕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글 · 사진=천미희 기자

정치 · 경제 · 웰빙이 불교와 만나면…

고심정사 불교대학 강좌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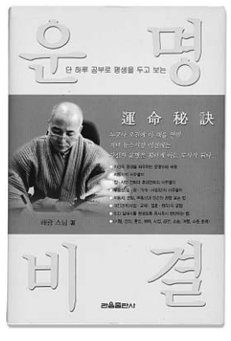
부산 중앙동 도심에 위치한 고심정사(주지 원택)에서 문을 여는 고심정사 불교대학(학장 원택)은 현대사회의 제 분야에 불교 교리를 적용하고 현실에 맞는 불교 신행법을 소개하는 참신한 교과 과정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9월 6일 개강하는 고심정사 불교대학은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하며 주간반은 매주 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야간반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고심정사 불교대학은 '불교와 경제' '불교와 여성' '불교와 웰빙' 등의 교과목 외에도 '아름다운 불교 시와 예술', '불교와 문화' 등 불경과 불교시의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교과목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잇기 위해 개원한 고심정사 도량 창건의 뜻에 맞게 '성철 스님의 사상 강좌'와 '불교 교리' '불교의 의례와 사찰 구조'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등의 교과목도 포함돼 있다. (051)464-8450 **천미희 기자**

운명비결 저자 해광스님 직강 (개인교수)

초칠일에 눈을 떠라!



- 천장비기(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추는)의 운명학
- 명리와 육효의 조화와 완벽한 해석
- 전문가를 위한 운명비결 전수

단, 명리, 주역 등 일체의 역학을 설 배워 그 한계를
스스로 벗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학문에 쉬 범접치 마시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 없이 요구해 온 운명비결 전수 희망자들을 위해 오랜 숙고 하에 운명비결을 전수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 안내를 합니다.

- 수강신청 : 수강접수 및 등록
- 수강자격 : 스님, 포교사, 법사, 운명상담소 운영자.
- 문의전화 : 010-6252-5247 (오후 1시-7시)
- 강의일자 조정 및 통보 (등록 후 일정 조정)
※ 시작에서 수료까지 6박 7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옥천범음대학 호적반(태평소) 특강 모집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계승 전수하는 대학으로 회원 및 학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신학기에는 작법반을 신설하여 좋은 호평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설에 중점을 두고 후기학기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호적반(태평소)을 특별히 신설개강하게 되었으니 등록바랍니다.

1. 모집내용 : 실기강의

특 강	교 수 진	모집인원
호적반(태평소)	준보유자 김 구해	15명

2. 응시자격
- 천수바라, 도량게, 법주 할 수 있는 자 ※ 영산재 보존회 회장(구해스님) 옥천범음대학장(일운스님) 심사 후 입학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 증명사진 3매 (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8월 25일 - 9월 7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옥천범음대학 교무처
6. 입시자격 시험일 : 2005년 9월 8일 오후 1시 봉원사 설법전
7. 합 격 자 발 표 : 2005년 9월 12일
8. 입 학 일 : 2005년 9월 15일
9. 문 의 처 :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 옥천범음대 02)392-3234
- 종 무 소 02)392-3007~8 / 팩스 02)393-9450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옥천범음대학

연잎차 보시로 포교 앞장

대전 연꽃마을 도공 스님 방문객들에 연차 무료 제공



연꽃마을을 주지 도공 스님(맨 오른쪽)이 연꽃마을을 찾은 스님, 불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호수 위로 해발고도 200~300m의 야산과 수목이 펼쳐져 드라이브 코스로 잘 알려져 있는 대청호. 철새와 텃새가 많이 날아들고 전망대에 오르면 주변 경관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 한 가지 흠이라면 마땅히 쉬어 갈 곳이 없다는 것.

그런데 올해 들어 대청호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드는 휴식처가 생겼다. 이제는 주말이면 400~500여명 정도가 쉬어가는 명소가 됐다. 연꽃과 수련이 군락을 이룬 시원한 공간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연꽃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운 일.

대청호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지난해 문을 연 대전 중구 주산동에 자리 잡고 있는 연꽃도량인 연꽃마을. 연꽃마을(주지 도공)은 10여 종의 연과 80여 종의 수련 군락지를 조성하고 지난해 연꽃 전시회를 열어 연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여나가기 시작했다.

군락지 조성하고 전시회도 열어
주말엔 400~500여명이 찾아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엔 분양까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휴게소를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연차를 제공하고, 연과 수련에 관심을 보이는 방문객들에게는 도공 스님의 친절한 설명도 곁들이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연을 분양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연꽃마을이 '연 쉼터'가 되고 '연 포교사'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과 연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주지 도공 스님의 연에 대한 사랑 때문. 지난해 연꽃 전시회를 연 데 이어 지난 8월 20일에도 연을 주제로 한 시낭송회를 개최했을 정도로 도공 스님은 연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다.

"연이 좋아서 4~5년간 혼자서 길렀습니다.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전국을 누비며 연을 구하고 그렇게 모은 연을 기르면서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또 맛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결심, 10년 불사 끝에 연꽃마을을 개원했다.

도공 스님은 일반인들에게 연차를 보시하는 것도 모자라 스님들에게도 연잎 차를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연잎 차를 보내달라는 스님이 많지는 않지만 한 번 도공 스님의 연잎 차를 맛본 스님들은 그 맛에 매료돼 계속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물론 전국 어디서든 연잎 차를 보내달라는 요청만 있으면 도공 스님은 기꺼이 연잎 차를 무보시할 생각이다. (042)274-5754

글 · 사진=한명우 기자

비사리구시 대중공양 재현
송광사, 불교문화 축제



송광사 비사리구시.

송광사 3대 명물 가운데 하나인 비사리구시 공양이 재연된다.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영조)는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이 기간동안 송광사를 찾는 참배객들에게 비사리구시를 이용해 주먹밥을 나눠주는 대중공양을 갖는다. 270년 전 싸리나무를 깎아 만든 비사리구시는 송광사 대중의 밥을 담아두던 것으로 한번에 4000명분(쌀 7가마)을 저장할 수 있다.

이밖에 송광사 불교문화축제는 공연, 전시, 체험분야로 나뉘어 20여개의 행사가 펼쳐진다. 공연행사는 대웅전에 16국사 진영을 모시는 국사진영 봉안의식과 산사음악회(2일), 가족애니메이션영화제(2-3일)가 열리며, 전시행사로는 전통등 경연대회, 송광사 역사 사진전, 유물특별전이 축제기간 동안 개최된다. 또한 인경, 염주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디카폰카경연대회, 단청 그리기, 들차회, 템플스테이 등의 행사도 열려 일반인들이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광주 원각사, 국악단 '울림' 창단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는 오는 9월 3일 경내에서 '불우이웃돕기 특별바자회'를 개최한다. 거사 모임인 선우회가 마련하는 이날 바자회는 도자기, 수묵화, 병풍, 생활다기, 찻상, 천연황토염색 등 전문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또한 원각사는 이날 바자회에서 '원각소리 울림' 불교국악단을 창단하고 첫 공연을 갖는다. '울림'은 판소리, 대금, 무용, 가야금, 아쟁 등 지역에서 활동 중인 불자 국악인들의 모임으로 국악을 통해 불법을 펴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공연을 여는 등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062)232-7544

이준엽 기자

광주 문빈정사, 범종 타종식 봉행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석장)는 8월 19일 범종 조성불사를 회향하고 타종식을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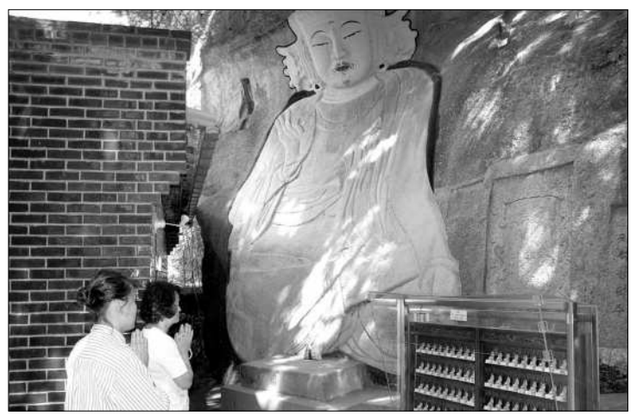
이날 타종식에는 양형일 국회의원, 유태명 동구청장 등 지역 기관장과 등산객, 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타종식에서 주지 석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종소리는 광주의 어머니 산인 무등산을 깨우고 빛고을 시민들의 정신을 깨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개운산 보타사

주민엔 평안, 학인엔 든든한 후견



보타사는 서울 도심에서 마애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찰 가운데 하나다. 보타사를 찾은 기도객들이 개운산 마애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서울 안암동 개운산 자락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타사(주지 종범). 지하철 7호선 안암역에서 개운산 방향으로 10여분을 걸으면 만날 수 있는 보타사는 서울에서 몇 안되는 도심 속의 산사 가운데 하나다. 얼핏 보아 산사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고시원과 주택이 밀집된 곳에 우뚝 자리 잡았다.

보타사는 어느 때 누구라도 기도를 하고 싶은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열린 도량'이다. 그래서 이른 새벽부터 캄캄한 밤이 되도록 기도정진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기도영험이 있는 마애부처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다 일주문과 법당 문이 24시간 내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대웅전 뒤편 5m는 족히 돼 보이는 바위에 양각으로 새겨진 개운산 마애부처님은 고려시대에 조성됐다. 보타사가 조선 태조 때인 1366년 창건됐으니 마애부처님이 먼저 자리를 잡은 셈이다. 단정한 자태를 하고 있는 개운산 마애부처님은 서울시지방유형문화재 89호로 지정돼 문화재적 가치도 인정받고 있다.

도심 속에 자리한 마애부처님이라는 이유로 개운산 마애부처님은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보타사의 정해진 기도와 관계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365일을 다녀가는 기도객만 20여명에 달할 정도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그들은 이른 아침 보타사를 다녀가는 직장인들이다. 멀리 이사를 간 뒤에도 마애부처님을 찾아 문안을 올리는 이들도 여럿이다.

오래전부터 전해져오는 기도성취 영험을 얻었다는 불자들의 체험담도 가지가지다. 최근에는 아들이 큰상을 받고 KAIST로 자리를 옮겼다는 기도객의 영험담이 기도객들의 입을 오르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타사는 신도가 많지 않다. 중앙승가대학이 안암동에 있을 당시 비구니 스님들의 숙소로 활용돼 일반인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당 24시간 개방…고려시대 마애불 유명
승가대 · 승가원 · 소쩍새마을 등 지속 지원

현재도 보타사와 중앙승가대학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승가대학의 부속사찰로 지정돼 있어 불전금이 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학에 교육의무금으로 납입된다. 그러면서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소쩍새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보내는 알찬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보타사 관리 소임을 맡고 있는 종일 스님은 "보타사는 불자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기도처가 되고 스님들에게는 학인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영상으로 제작 한국사찰 홍보할 것"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 38명 갑사서 템플스테이



장미화 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을 비롯 연예인 불자들이 갑사 템플스테이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사회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템플스테이에 연예인 불자들도 동참했다.

인기가수 장미화, 김범룡, 장윤정, 머루와 다래 등 38명의 연예인 불자들은 8월 22~24일 충남 공주 갑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한국불교예술인연합회(회장 장미화)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연예인 불자들은 108배와 발우공양, 새벽예불, 참선 등을 체험하며 방송활동으로 지친 심신을 달랬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에서 장윤정을 비롯한 가수들은 23일 범종루 앞 특설무대에서 '특별공연' 형식의 산사음악회를 열어 갑사를 찾은 불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기도 했다.

갑사 템플스테이를 주선한 장미화 회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사찰인 갑사를 찾아 템플스테이를 하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연예인 불자들의 템플스테이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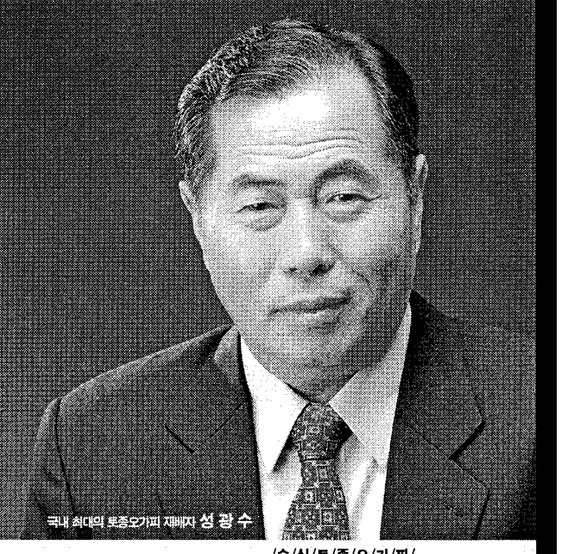
갑사 주지 장곡 스님도 "템플스테이는 이미 하나의 한국문화로 자리잡았다. 갑사 템플스테이에도 8월까지 2500여명이 다녀갔다"고 소개하며 "연예인 불자들의 2박 3일 체험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늘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 · 사진/공주=혜철 대전 지사장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때 국왕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국내 최대의 토종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24년의 기다림 !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수/신/토/종/오/가/피/

품질로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을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 신삼베양근이 함유되어 있다는 모 업체의 오가피 제품은 성광수씨나 수신오가피와 하등의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직 900분께만 매월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갑만 생산할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심혈을 기울여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기때문입니다.

수신오가피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복제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월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안겨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쁠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예가 서병호 교수가 직접 제작한 분청다완을 드립니다.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8월초 열린 청계사 여름캠프에서 100여 어린이들이 참선을 하고 있는 모습. 청계사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으로 의왕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사진제공=청계사

포교 기반 다지기 '구슬땀'

경기 의왕 · 안산 · 시흥

의왕 지역민 쉼터로 사찰 개방…포교는 '덤'

안산 척박한 여건 딛고 '사암련'에 힘실어 줘

시흥 사찰간 불화 악재 속 묵묵히 청년포교

 # 의왕 의왕은 신도시 모두가 그렇듯이 기독교세가 압도적이다. 13만 인구 중 종교인구의 60% 이상이 기독교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인구는 20% 남짓에 불과했다. 사찰 수는 불과 10여 곳. 교회 및 성당 수는 적어도 10배 이상. 불교인구가 적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교인구가 10% 정도 늘어났다. 불교인구가 늘면서 불교 이미지도 좋아졌다. 의왕 제1의 사찰인 청계사와 신개념 도심포교당인 용화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허 스님의 출가지인 청계사는 선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수행도량. 3년 전 성행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도량을 정비, 경내 어디든 자리만 깔면 참선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경내 전체가 법당이 됐다.

뿐만 아니라 거사림 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신설하고, 참선법회와 108참회기도법회 등을 개설하는 등 신행활성화에도 나서는 한편,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인 녹향원을 새롭게 꾸미고 한 달에 두 차례씩 불우이웃을 돕기 기금마련 행사를 여는 등 '배우고 실천하는 불교' 이미지를 심고 있다.

의왕 내손동에 자리잡은 용화사. 건물 형태와 디자인이 '여기가 절인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로 평범하지 않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욱 놀랍다. 구석구석이 마치 조형물을 보는 것 같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공양간은 아예 갤러리고, 법당이나 찻집 역시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신개념의 현대적 분위기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나 신도들의 신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 조형으로 불자들과 지역민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하다.

청계사와 용화사 외에 천태종 대안사도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면서 지역불교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 안산 '진흙 속에 핀 연꽃'. 안산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안산 불교의 역사는 고난 그 자체다. 척박한 여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안산은 기독교세가 강한 곳이다. 가는 곳마다 교회와 성당이 눈에 들어온다. 교회 수는 500여 곳 이상으로 사찰 50여 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안산 불교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사찰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시인데다, 큰 산이 없어 산중에 위치할 수 없다보니 사격을 제대로 갖춘 사찰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통적인 사찰 모습을 갖춘 곳은 쌍계사와 화림선원 두 곳 뿐.

고정신도가 적다는 점도 안산 불교가 안고 있는 애로점이다. 젊은층 신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이주가 잦고 신심도 약하다. 불교와 무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안산의 스님들은 이런 여건을 인내와 노력으로 극복해냈다. '찬밥' 신세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불교를 무시하지 못한다.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지역 불교를 살려보겠다는 스님들의 의지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안산사암연합회는 올해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다. 사암연합회는 매년 안산시 불교음악제를 개최하는 한편, 안산불교합창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신행을 이끌고 있다.

개별 사찰들도 이런 가운데에서도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법흥사, 유마정사, 다보사, 반야사, 보림선원 등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안산 불교가 근근이 명맥을 잇고 있는 것도 어떻게든 지역 불교를 살려보겠다는 사찰들의 의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보림선원은 신도교육 · 포교 · 복지 활동 등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고, 유마정사 역시 교육에 주력하면서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 시흥 시흥 스님들은 한목소리로 "시흥처럼 불교가 뿌리내리기에 어려운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찰이래야 10여 곳 남짓한데, 교회는 1000여 곳이 넘는다. 도저히 '게임'이 안된다. 밤이면 불 켠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10여 개 사찰들도 반으로 쪼개져 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분열돼 있으니 시흥 불교는 말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일부 사찰이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찰이 혜진선원이다. 학생회, 청년회, 합창단 불교대학 등을 통해 젊은층 신도를 끌어들이고 있는 혜진선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도심포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은 두동강 나있는 사찰들 간의 화합이 이뤄져야 하고, 사찰 수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안산과 서울로 분산돼 있는 불교 인구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병행돼야 한다.

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교육 · 인권보호 등 정법전파 앞장

정명 스님 (안산 유마정사 주지)



정명스님은 10년 전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를 진행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안산사암련 창립멤버로서 지역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경전 강의 등 교육을 통해 도심포교에 주력하면서 무속이 성행한 안산에 정법을 심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간불사'를 가장 중요시 여겨 안산인권보호위원회를 창립해 활동하기도 했으며, 안산 소년원 법당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장의 포교경험을 담은 '포교지침서'와 각종 경전을 부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전 해설집'을 발간하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안산사암련 법인화, 활동 기반 닦아

개운 스님 (안산 법흥사 주지 · 안산사암련회장)



안산사암련 창립멤버로서 오늘의 안산불교가 있기까지는 바로 개운 스님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사암련 회장을 맡아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산사암련을 사단법인으로 등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 산동 중의대학에서 5년간 한의학을 공부, 중국 한의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한방불교병원을 설립해 불교의료복지를 실현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불교 불모지에 선원 열고 불심 깨워

승헌 스님 (시흥 혜진선원 주지)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시흥에서 '불심 깨우기'에 밤낮이 없다. 1988년 도심 속에 혜진선원을 열고 포교에 나서 불교에 무지했던 시흥시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어르신 등 계층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활동으로 불교 인구저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시흥신문 논설위원, 시흥실업극복연대와 시흥복지단체 운영위원 등을 맡는 등 지역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청소년 공부방을 개설하고 시흥시민을 위한 불교음악회를 열고 싶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978년 등단한 시인으로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내기도 했다.

주민 사랑받는 '산중 포교당' 가꿔

선중 스님 (시흥 대각사 주지)

다 쓰러져가는 대각사를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중 포교당'으로 바꿔놓았다. 선중 스님은 법당 문을 항상 열어놓고 누가 오든 편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기도객과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시민선방과 주말 참선법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30여년 화림선원 지키며 수행 한길

효탄 스님 (안산 화림선원 주지)



효탄 스님은 30여 년 동안 화림선원을 지켜오면서 화림선원을 수행도량으로 가꾸었다. 운문사 강원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선방에서 수행에만 몰두해 온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항상 수행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합창단과 거사회를 통해 신도들의 신행을 적극 유도하면서 안산 신행 활성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포교에 나서기 위해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 · 자원봉사 등 복지 매진

덕문 스님 (의왕 용화사 주지 ·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시대감각과 합리적인 사고가 돋보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왕 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다가가는 포교, 회향하는 불교'에 대한 소신이 확고한 덕문 스님은 상담 등의 맨투맨 포교전략과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활동을 활발히 해 불자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회 · 청년회 법회를 개설하고 복지사업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발원을 하고 있다.



수행도량이자 주민 쉼터로

성행 스님 (의왕 청계사 주지 · 풍경소리 회장)



불국사에서 10년 넘게 교육 포교 기획 총무 소임을 맡아 온 풍부한 경험을 지역불교 발전에 쏟고 있다. 성행 스님은 주지 소임을 맡은 지 3년 만에 청계사를 수행도량이자 지역민의 휴식처로 탈바꿈시켰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 좋은 벗 풍경소리 회장, 서울구치소와 안양 · 경주교도소 상임법사 등 불교계와 의왕 · 경주에서 맡고 있는 직함만도 10개가 넘을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관과 어린이집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 · 복지 · 사회 등 다방면 활동

보림 스님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은 교육 · 포교 · 복지 ·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 보시 운동을 통해 불교 이미지를 크게 높였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포교라는 소신으로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으며, 봉사와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동국대 대학원 장례문화학과를 수료하고 중앙승가대 대학원에서 실천불교학을 공부, 논문발표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학구열도 높다. 좋은 책이 나오면 다량으로 구입해 신도들에게 나누어준다. 스리랑카 법당인 '마하보디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포교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이 많다.



복지활동 통해 불교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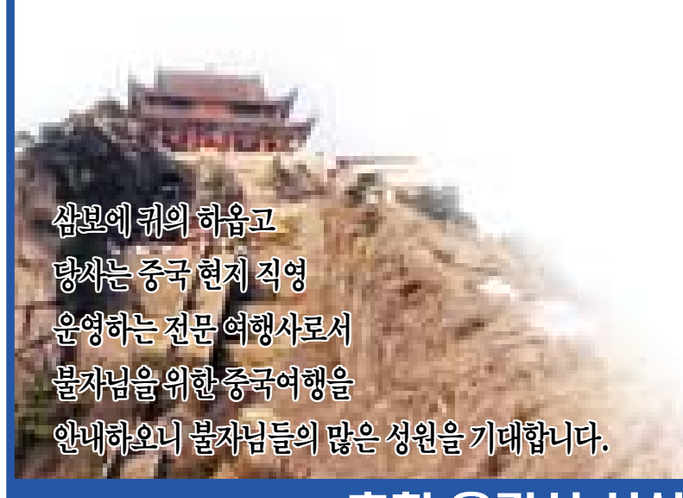
도선 스님 (안산 다보사 주지 ·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



불교유치원을 하고 싶어서 출가했다는 도선 스님. 도심포교당인 다보사를 5년째 맡아오면서 교리강좌, 군부대 법회 등을 통해 포교활동을 벌여왔으며, 지난 5월부터는 어린이법회를 개설해 어린이 포교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안산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아 개원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며, 복지활동을 통해 지역불교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열의가 높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사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9월 22일 출발(모집중)
티벳 성지 순례 8일
여행경비 : ₩ 1,890,000원
(중국 비자비, 가이드, 기사팁 포함)
왕자 싯다르타에서 깨달은자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오묘한 묘음에 밀교 티벳 불교 성지순례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태국 성지 순례 6일
여행경비 : ₩ 1,290,000원
화려한 황금빛 에머럴드 사원이 있는 부처님의 나라 태국과 부처님 재세 시 왕림하셨던 만달레이 언덕. 세계 최대의 연옥좌불상(6백톤) "로카찬다"미얀마 불교문화의 상징 "쉐다곤" 파고다 등 미얀마가 여러분을 불은(佛恩)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중국의 6조 혜능조사님을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 790,000원
10명이상 출발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륙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

소규모 종단 사이버 세계 '눈길끄네'

미륵·총지·총화종, 홈페이지 홍보 활성화

"우리 종단이 사이버세계에 그대로 있네!"

현실 속에서 종단간의 크고 작은 우열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이버세계로 눈을 돌리면 이런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은 한결 수월하다.

사이버세계가 새로운 인간관계의 장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중소규모 종단 홈페이지가 종단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26개 종단 중 조계·태고·천태·진각종 등 4대 종단을 포함해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곳은 관음종 보문종 법륜종 등 13곳. 이 중 미륵종 총화종 총지종 등은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포교에서 4대 종단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름뿐인 홈페이지로 방치된 경우가 있어서 시정도 요구된다.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할 인력을 배치해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는 것. 홈페이지는 개원법회 등 사찰행사와 임시종회 등 종단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종단 홍보창구



왼쪽부터 총화종 총지종 미륵종의 홈페이지.

역할을 한다.

행사결과도 속보형식으로 게재하는 등 홈페이지가 '제2의 총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판까지 얻고 있다. 종단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꾸준히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스님들에게 알려지면서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일대일 상담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종단과 사찰, 스님, 신행활동에 대한 정보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제공되면서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홈페이지 활용이 늘면서 종단행사 참가자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언론 홍보강화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미륵종은 올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한 신생종단이지만 사이버포교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종단을 훨씬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화종(총무원장 남정)도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는 종단이다. 2002년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 꾸준히 컨텐츠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불교와 종헌종법, 소의경전, 종단사 등 종단현황과 산하사찰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단 소식, 불교계 소식 등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소식란, 자료실, 인터넷 사찰기행 등 종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총지종(통리원장 우승) 홈페이지는 '사이버 통리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총지종은 그동안 자료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후 홈페이지에 대한 종단행사 홍보 및 진행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총지종 홈페이지는 종단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군소종단들에게 사이버포교 활성화의 길은 멀기만 하다. 대부분 종단들은 전산화 마인드 부재에 따른 인력과 재원부족이란 공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관리인력 부재로 몇 년째 똑같은 상태로 방치되는 홈페이지, 광고성 혹은 음란 게시물이 그대로 걸려있는 게시판, 자주 다운돼 유명무실한 홈페이지 등은 시정해야 할 문제다.

또한 사찰 홈페이지나 종단 산하단체 홈페이지가 그대로 종단 홈페이지로 이용되는 것은 종단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종단의 도메인들을 미리 선점해버려 홈페이지 오픈에 어려움을 겪는 종단도 적지 않다.

강유신 기자



8월 21일 단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32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대구대회. 우승팀인 칠곡 상명사 배구팀의 경기모습.

"천태종 청년불자 하나된 날"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 2만여명 참가 성황

"펑! 펑! 펑! 와아~"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이건표 단양군수, 신장용 한국중고 배구연맹 회장를 비롯한 내외귀빈들의 시구와 함께 2만여 불자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과 폭죽소리로 배구대회가 시작됐다.

천태종 중앙청년회(회장 남정락) 주최로 열린 제32회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가 8월 21일 충북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것이다.

오전 8시 30분 종정 도용 스님이 입장하고 곧바로 지난해 우승팀 강릉 삼개사가 우승기를 반납하자 종정 도용 스님은 우승기를 한번 흔드는 것으로 대회의 증명을 알렸다.

46개팀 선수단 입장에 이어 열린 개회식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법어를 통해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며 "이 배구대회는 우리들 수행의 결정체를 오롯이 담을 그릇을 평소에 잘 관리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운동장 곳곳에서 양보없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

이날 경기는 전국 46개 사찰에서 참가해 배구,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릴레이, 족구 등 5개 종목으로 나누어 운동장 곳곳에서 진행됐다.

불꽃튀는 응원전도 펼쳐졌다.

서울 관문사, 춘천 삼운사, 울산 정광사, 부산 삼광사, 대구 대성사, 인천 황룡사, 광주 금광사, 대전 광수사, 분당 대광사등 2만여 명의 신도들은 응원을 통해 소속사찰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날 배구대회에서 자매결연 학교인 전남 벌교제일고 배구팀을 대표로 내세운 칠곡 삼명사가 우승했다. 삼명사와의 결승에서 아깝게 패한 서울 삼룡사(인천 인하사대부고)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족구경기와 줄다리기에서는 각각 칠곡 삼명사와 울산 정광사가 우승, 마산 삼학사와 삼척 삼산사가 준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단체 줄넘기와 릴레이 경기에서는 서울 삼룡사와 구미 금룡사가 각각 우승, 춘천 삼운사와 부산 삼광사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점심공양 10분 완성, 응원상 2연패 달성'을 목표로 내건 부산 삼광사는 다양한 카드섹션과 무용으로 응원상을 수상했다.

오후 5시경 배구대회가 어느 정도 막바지에 접어들자 진팀은 이긴팀을 축하해주고, 이긴팀은 진팀을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펼쳐졌다. 승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통해 선수들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배구대회 개최의의가 있는 만큼 참가 불자들 모두가 우승하는 것으로 끝났다.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기 배구대회가 32년 동안 한결같이 진행되어온 힘이 거기에 있었다.

단양= 김원우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개원

직지사서, 29기 179명 입교

조계종은 8월 21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에서 제29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했다.

이번 하반기 행자교육원에는 외국인 행자 7명을 포함, 남행자 91명, 여행자 88명 등 총 179명의 행자가 입교했다.

이들은 9월 12일까지 3주간 직지사 만덕전과 설법전에서 사미·사미니율의, 예경의식, 작법, 부처님 생애, 조계종사, 기본습의, 위의문, 초발심자경문 등 출가수행자의 기초를 이수한다.

참가자들은 9월 11일 시행되는 5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만 사미·사미니계를 수지 할 수 있다.

조용수 기자

태고종 합동득도수계산림

소양시험 242명 응시

태고종은 8월 23일 제29기 합동득도 수계산림 참가신청 행자 287명 가운데 동방불교대에 재학생 26명과 서류심사 탈락자 19명등 45명을 제외한 242명을 대상으로 소양시험을 실시했다.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실시된 소양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과 면접, 신체검사로 나뉘어 치러졌다.

소양시험에 합격한 행자들은 9월 21일부터 4주간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설판되는 제29기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해야 한다. 한편 올해 287명의 수계산림 지원 행자 수는 지난해(283명 지원, 264 승적 취득)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학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준은 예년에 비해



8월 23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태고종 행자소양시험 장면

향상됐으며 연령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태고종 총무원은 분석했다.

소양시험을 통과한 268명의 연령대는 10대 5명, 20대 19명, 30대 69명, 40대 126명, 50대 49명이며 남행자 189명, 여행자 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1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원자의 수준이 높아진 배경에 대해 수계산림을 총괄하고 있는 교무부장 백운 스님은 "지난 3년간 종단에서 추진해온 각종 개혁불사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인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고 풀이했다.

김원우 기자

법상종 종도 연수교육

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8월 24~26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100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하계 종도 연수교육 및 용화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도 연수교육은 스님 교육시스템 강화하겠다는 올해 총무원 추진사업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유식입문학, 유식삼십송, 금강경 등의 강의가 오형근 교수 등 외부강사진에 의해 진행됐으며, 총무부장 법정 스님, 종회의장 무성 스님 등도 포교론, 금강경 등을 강의했다. 연수교육이 끝난 후에는 평택 총무원 유가사에서 용화 수계득도법회가 봉행됐다.

평택=강유신 기자

조계종 군승후보생 교육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8월 24~26일 화성 용주사에서 군승 후보생 및 요원 스님 하계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하계교육은 '설법실습'과



'의식집전' 두 가지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군승후보생 51명, 군승 요원 9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하계교육에는 38명이 동참했다.

강유신 기자

구담사 대한 불교조계종 www.gudamsa.org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아빠 49재 참회기도

증명법사 : 봉선사 조실 월운 큰스님

• 입재일 : 양력 2005년 9월 4일(일요일) 오전10시 • 회향일 : 양력 2005년 10월 23일(일요일)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구담사는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주 일요일)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올리어 기도 입재하오니 많은 동참하여 엄마, 아빠의 참회기도 동참으로 어두운 태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 영가를 위해 극락왕생 기도 발원합시다.



엄마, 아빠 참회 기도

아가야! 미안하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때 널 버린다는게 죄인지도 몰랐다.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한 나를
용서 해 줄수있겠니?

아가여! 영가여!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제 뒤늦게나마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하는 구나.

◉ 준 비 물 :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
(5재때는 관욕을 하오니 수건, 양말, 신발, 비누, 아기 옷 등)

◉ 구담사 버스안내
• 강변역 테크노마트 주차장 앞 오전 8시 출발
• 도봉산역 1-7호선 오전 8시 출발 →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앞(포천방향)
• 조계사 앞 오전 7시 출발

태아영가 천도재는 왜 하는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낙태. 유산 되어버린 태아령을 위해 원결을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 복중의 태아가 유산되지 않고 건강하고 원만한 순산을 바라시는 분
•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
• 사업성취 바라시는 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태아령은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요 조상은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위패를 쓰거나 천도재를 지내지 않는다.

◉ 전화번호 : 대표 (031)533-2855, 2584,
팩스 (031)532-2441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예금주 구담사)
농협 225051-51-113712 (예금주 구담사)

※위패 봉안하는 관계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
※지방 불자님 접수 받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엄마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깨침의 문은 어디입니까!



대자암 무문관 입관 추첨하던 날



계룡산 대자암은 2002년 시작한 3년 결사에 이어 올해 11월 동안거부터 두번째 3년결사를 시작한다. 사진은 무문관 입관을 위해 추첨에 참가하고 있는 수좌들.

곧이어 정영 스님이 손수 쓴 축원문을 낭독했다.

"원을 세워 바라옵건대 충청남도 대자암 3년 결사 무문관 입관하는 스님, 못 하는 스님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청하옵니다. 결사에 임하는 수좌들은 마장이 사라지고 공부가 순일하여 확철대오(確哲大悟)하고 모든 신통력 갖추어 중생제도 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지난 1차 결사에 이어 2번째 3년 결사를 허락 받은 서범 스님은 "이번엔 시행착오 없이 처음보다 더 열심히 정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범 스님은 1차 결사에서 건강문제로 애를 먹었다.

이날 8명의 수좌가 지난 1차에 이어 한번도 하기 어렵다는 무문관 결사에 다시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 공부는 오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사람이 이루는 공부"라는 정영 스님은 "오늘 오신 스님들 가운데 중생을 제도할 힘을 갖춘 명안종사가 반드시 나오길 바란다"며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이날 추첨을 마친 스님들은 11월 26일부터 시작될 동안거를 기약하며 3년 결사 채비를 위해 총총히 하산했다.

글 · 사진/공주=조용수 기자

비구 비구니 21명 선발…올 동안거부터 3년간 '두문불출' 결사

계룡산 갑사 대자암은 서울 천축사에서부터 4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무문관 수행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다.

8월 21일 대자암에서는 조실 정영 스님의 주관으로 올해 음력 시월보름 동안거부터 무문관 3년 결사에 들어갈 수좌 21명을 선발하는 입관 추첨이 있었다. 올 2차 결사에 동참할 뜻을 밝힌 조계종 수좌는 모두 100여명. 남다른 각오로 이날 오전 대자암 마당에 모인 인원은 그 절반인 50명이었다.

오후 1시, "또르륵 또르륵" 목탁 소리가 계룡산 자락에 흘어졌다.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는 비구 · 비구니 수좌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 뒤로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재가자들이 따라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법당에 모인 수좌들의 꼿꼿한 기풍과 푸른 눈빛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신심이 나게 했다. 인자한 미소를 띤 정영 스님이 나지막한 어조로 추첨의 시작을 알렸다.

"을유년 동안거 무문관 입관자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영 스님은, 1차 결사때보다 많은 인원이 입관을 희망하자, 이번에는 일종의 산통(算筒, 강원 수업에서 발표자를 뽑을 때 쓰는 대나무통)과 같은 방식으로 쪽지 추첨을 하기로 했다.

왜 하필 추첨으로 입관자를 뽑으려 할까? 의문이 들법했다. 여기에는 한국불교의 전통인 산통방식으로 정진에 들어갈 수좌를 선정해야 할 만큼 많은 수좌들이 몰린 탓도 있지만, 매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명정대함을 강조하는 정영 스님만의 고민이 담겨 있다.

먼저 추첨을 위한 번호표 뽑기가 시작됐다. 스님들은 나무쟁반에 놓인 녹색쪽지를 차례로 집었다. 추첨도 먼저 뽑는 이가 유리하다는 시비를 줄이기 위해 순서를 정하는 것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이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정영 스님이 번호를 부르기 시작하자 비구 비구니들은 앞으로 나와 합장반배 후 쟁반에 놓인 흰 쪽지를 집어 자리로 돌아갔다. 무문관 입관을 허락하는 숫자가 적힌 종이를 받아든 비구 13명과 비구니 8명이 결정됐다. 이들은 11월 16일 동안거 결제를 앞두고 대자암으로 다시 모인다.



꼿꼿한 수좌들의 기풍이 느껴진다.



한국불교 전통의 산통 방식으로 진행된 추첨에서 비구 13명, 비구니 8명이 선발됐다.

문 없는 문, 무문관(無門關)

무문관 수행은 한번 시작하면 외부의 모든 알음알이와 단절한 채 '이 자리에서 깨치지 못한다면 일어서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오직 화두에만 정진하는 한국 선종수행의 가장 가혹한 수행법이다.

일단 들어가면 정해진 기한이 되기 전에는 절대 문을 열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4월 대자암에서는 비구스님 한분이 무문관에서 정진하던 중 열반했다.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깨달음을 얻겠다는 각오 없이는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무문관은 원래 중국 송나라 선승인 '무문혜개(無門慧開)' 선사가 지은 책 이름에서 유래했다. 경허 효봉 관응 재선 스님 등 근대 선지식들도 이 무문관 수행으로 자신의 공부를 단련했다.

문잠그고 4~5평 방서 3년 정진
이불, 자명종, 좌복이 전부
공양구로 식사 하루에 한번 전달
결사중 수시로 공부 진척 점검

계룡산 서편에 자리 잡은 대자암 무문관은 '삼매당(三昧堂)'이란 이름의 선방이다. 4~5평 크기로 삼매당 2, 3층에 4칸, 7칸씩 배치되어 있다.

3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았을 문고리는 심하게 녹이 슬어 있었다. 각 방사마다 조그만 세면시설과 간단한 이불, 개인사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지대방이 있다. 방바닥에는 작은 자명종 하나와 좌복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수행자 자신의 수행의지를 다지는 선시나 화두를 적은 종이가 벽에 붙여있는 방도 있었다. 방 한구석 빛바랜 종이에 연필로 꾹꾹 눌러쓴 '밀라레빠(티베트불교의 성자)'의 시가 인상적이었다.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무문관 안에서도 정해진 일과는 있다. 스님들은 참선정진을 않는 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사용과 샤워, 삭발, 운동을 해야 한다. 조그만 소리라도 옆방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식사는 하루 1번 구멍처럼 뚫어 놓은 공양통으로 찬합에 밥과 찬, 간단한 국을 안으로 들인다.

무문관 안에 있는 동안은 당연히 묵언이라 긴요한 용무는 이때 메모로 해결한다.

평소 수행으로 단련된 스님들이라도 갑자기 몸을 가두고 하루 1종식을 시작하면 처음 3개월가량은 매우 힘들어한다. 그러다 차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 나가면서 조금씩 정진력이 생겨난다고 한다.



대자암 무문관이 있는 삼매당의 모습.



동안거부터 3년간 폐문정진에 들어갈 대자암 무문관.

공부의 점검은 정영 스님이 직접 한다. 1차 결사가 중반을 지났을 무렵인 지난해 가을 각방으로 대학노트 1권이 들어갔다. 수시로 A4용지도 들어갔다. 정영 스님은 각자 자신의 공부가 어디쯤인지를 적어내게 했다. 각자가 겪고 있는 경계의 정도를 가늠하고 답을 주는 것이다.

한편 무문관 3년 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대자암은 경제적 어려움이 만만치 않아, 3년 결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041)875-5880 후원계좌 310623-02-033475 우체국 문판오(정영).

조용수 기자

2005학년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현 공 풍 수

■ 교육기간 : 2학기 과정
■ 강의시간 : 초급 – 수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중급 – 월요일 오후 6시 – 8시 50분
■ 접수기간 : 8월 1일 – 9월 2일(오전 10시 – 오후 3시)
■ 담당교수 : 선공세준
■ 교수약력 : 활불선원 원장,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동국대 사회교육원 교수, 포천중문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학기당 학습비 : 300,000원
■ 교 재 명 : 현공풍수학(선공세준 편역 011-706-4090)
■ 교육목표 : 현은 통일과 하도를 뜻하고 공은 공간낙서를 뜻하며, 현공이란 시간, 공간, 방위의 기를 상호 전환하는 방정식으로 선후천 팔괘오행을 현대적 에너지 기들을 파악하여 1-9까지 구성 천문에 따라 가람의 배치와 묘, 주택, 도시건축,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자연과 인간 환경 전반분야에 풍수의 길흉에 대해 조사하여 비보 개선하는 최상승 풍수 법술이다.

■ 강의내용
초급반
• 현공풍수의 대의 : 양택의 가람배치와 풍수사상
• 현공 역리와 납갑 오행 : 풍수역학과 가람의 과학적 요건
• 현공풍수학의 길융화복의 근거 : 형기론 이기론 물형론 종합
• 현공풍수 학파(현공 풍수 인물) : 역괘풍수(양택삼요)와 비성(현공)풍수의 역평
• 현공풍수 하도낙서의 핵심 : 낙서 후천팔괘의 결합
• 현공구성의 운형 : 구성의 궤적과 공간방위의 정립
• 현공 성반(주택과 방위법) : 왕성과 비왕성의 관계
• 현공구성의 사물변화 현상법술 : 하도수와 운반관계 (주택, 묘, 공간, 기술법)
• 현공풍수 별의 순서 정하는 법 : 24 산향 음양 영정 (묘지주택 정하는 법)
• 현공풍수의 청규 : (주택, 묘, 도시, 상가, 아파트, 인테리어)
• 지운과 입수 운기법
• 정음(淨陰), 정양(淨陽), 납갑(納甲)법 : 천문 연월일시 기준과 2분 2지
• 성문 이궁을 논하는 법 : 물의 종류와 물의 영향에 관하여
• 반음 복음, 음양 합심법 : 용의 지세와 형국 명당보는 법
• 포태 사대국 수법 허와실(虛實) : 삼반삼침(三盤三針), 正, 中, 縫 원리
• 현공 간용법, 장풍법, 득수법, 정혈법, 좌향법, 형국법
• 용혈사수(龍穴砂水向) 아파트 실내풍수인테리어 코디 (책상, 침대, 주방, 쇼파 등등)
• 삼합반(三合盤) 9층 패철(佩鐵)과 현공삼원반과 천문풍수
• 천지인(天地人)공간의 원방각 기 측정원리

중급반
• 현공 애성 하괘 변수법, 성문2궁법, 칠성 타겁, 현공풍수의 증험

• 공개 강좌 : 9월 7일(수) 오후 6시
• 온라인 접수 : 조흥은행 313-03-004148 (예금주:동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dgucc.dongguk.ac.kr〉
• 문의전화 : 사회교육원 ☎ 02)2260-3728~9
• 개인지도 : 원방각 - 서울 서초구 서초 2동 교대사거리 큐브플러스 1513호
02)587-2855 / 011-706-4090

자원봉사, 교육 먼저 받으세요

조계종 · 천태종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자원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교계 자원봉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자원봉사자들은 가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생각해본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봉사 대상자들을 편하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복지시설이나 대상자들에게 환영받는 봉사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8월 23일 성남 봉국사와 24일 구미 금오복지관에서 사찰 봉사단체 교육을 실시했다. 사찰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봉사자로서의 기본 소양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자원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 시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

또 천태종 사회복지재단은 현재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을 통해 '전문성'있는 봉사자들을 기르고 있다. 600여명의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배출한 천태종은 니르바나 호스피스 교육으로 불자들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돌보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친다. 봉사자들의 '좋은 마음'만으로는 좋은 봉사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단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봉사 대상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자신도 보람을 얻어야 하는 방향으로 봉사활동을 진행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10여 년간 봉사자들을 교육해온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민순옥 계장은 "봉사자들 자신이 즐겁고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강진 기자**

환영받는 봉사자와 환영받지 못하는 봉사자

비교	환영받는 자원봉사자	환영받지 못하는 자원봉사자
유형	약속을 잘 지킨다	잘난척한다
	말을 가려서 한다	자기주장만 너무 강하다
	전문성이 있다	쉬운 일만 골라 한다
	잘 웃고 따뜻하게 말한다	자랑하기 위한 사진찍기에 열중한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다	봉사를 사칭해 개인 영리를 추구한다
	도덕적이다	다른 봉사자나 기관 실무자의 흉을 본다

자원봉사처를 배정해주는 불교계 단체

자원봉사 문의처	지역	전화번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라이온스 빌딩	(02)723-0131
천태종 사회복지재단(호스피스교육)	서울 강남구 관문사	(02)575-3467
대구 남구자원봉사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053)473-1199
자비신행회	광주광역시 동구(구)지원초등학교	(062)234-2732
정토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정토회관	(02)587-8990
천수천안자원봉사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남빌딩	(031)969-0108
햇빛가정봉사원파견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381-9	(053)474-9748
대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평송청소년수련원	(042)488-0733

자원봉사자가 가져야 할 자세

△**경청하라=** 잘 듣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부터 대상자들의 사생활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금물이다. 대화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들의 말이 느리더라도 말 중간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대상자는 봉사자와 동등한 입장이다=** 대상자들은 봉사를 '받아주는' 입장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선의의 봉사도 전혀 고맙지 않다. 대상자들도 봉사자들에게 최대한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불쌍하다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 것은 실례. 같은 입장에서 모자란 것을 채워줄 뿐이다.

△ **자신의 주장은 한 템포 천천히=**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갈등 요소는 늘 존재한다. 갈등은 봉사자끼리, 봉사자와 기관 사이에서 일어난다. 또 나이에 따른 세대 차, 건강 상태 등도 갈등 요소가 된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장이 너무 강한 봉사자들이 있어서다. 봉사활동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봉사는 '이름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다.

△**봉사는 꾸준히 할 각오로=** 1회성 봉사는 대상자들에게 상처만 남긴다. 섣불리 봉사활동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충분히 봉사 계획을 세우고, 자신에게 맞는 봉사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건강에 맞지 않게 수행하는 무리한 봉사도 금물이다. 봉사자 교육을 통해 '봉사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애들이 먼저 알아보고 양말 벗어요" 안양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만 5년째 봉사하고 있는 공덕회는 8월 23일에도 아이들의 발을 정성스레 마사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공덕회

아이들이 반길 때 가장 신나요

8월 24일 경기도 안양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성용) 주간보호센터. 복지관의 장애아동들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공덕회(팀장 이성이)가 들어서자 양말을 벗기 시작한다. 그 모습을 본 복지관 직원과 공덕회 회원들 모두 웃음바다다.

공덕회 회원들을 보자마자 아이들이 양말을 벗는 까닭은 공덕회의 발마사지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이라 자신의 발을 문지르고 지압봉으로 꼭꼭 누르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한 표정이 역력하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다 보니 거동이 불편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일이 없죠. 근육도 약하고 순환기 장애도 많아요."

다리를 살살 문지르는 중간중간 아이들의 발이 공덕회 봉사자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지만 이내 다시 발을 내민다. 아이들은 봉사자들에게 그저 발을 내맡기고 바닥의 장판 무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봉사자들을 완전히 믿고 있는 눈치다.

"웬걸요, 처음엔 애들이 아프다고 겉에도 안 오려 했어요. 그런데 좀 익숙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가까이 오더라고요."

안양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만 5년째. 장애아동들이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고들 하지만 오랜 시간 봐왔기 때문인지 공덕회를 대하는 아동들의 태도는 남다르다. 오히려 매일 시간을 함께하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다리를 만지면 내뺄 정도다. 아이들이 자신들을 믿어줄 때까지 봉사의 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창기 손두봉(70) · 최재희(54) · 황순봉(54) · 박계순(53) 이렇게 4명의 봉사자로 시작해 이제 14명의 대식구가 된 공덕회는 안양지역 불자들의 자체 모임이다. 초기 봉사 멤버들은 식당봉사만 10년 정도 했을 정도로 봉사는 삶의 일부였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 그런 자신의 삶이 보람있고 즐거웠기에 각자의 친구들에게 '봉사활동'을 적극 추천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 다리를 막 주물러준대요, 자기들이 받은 것 그대로. 그 말을 들을 땐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글 · 사진/안양=김강진 기자

장난감 보내 주세요

안양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7세~18세 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해 놀이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 공덕회 봉사자들은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블록이나 색깔 놀이판 같은 장난감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31)473-7776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하셨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쾌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조상운 50,000 윤선애 10,000 조근영 1,000
이창근 10,000 남광 20,000 박상환 50,000
지명숙 60,000 오승희 10,000

총 누적금액 41,955,05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옴마니 밤매훔 건강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지혜의 밸트!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된다는 옴마니 밤매훔 건강밸트가 불교 법구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밸트다. 또한 일반밸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밸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맬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밸트로 만사 형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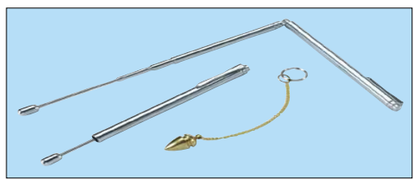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그림1



맬토차단캡



그림2 모아짐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첨단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 책명 : 이책 읽고 불치병 나으소서

- 저자가 3개월 시한부 말기 암환자로서 수술, 재발, 말기현상은 물론 여러 합병증을 극복하고서 5년 여간 현대 첨단의학으로도 못 고치던 각종 암환자를 비롯하여 불치,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3천여 분을 치유하게된 바로 그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 각종 암, 당뇨, 중풍, 협심증, 퇴행성관절염, 성기능 장애, 아토피, 부종복수, 자궁근종, 치매, 간질, 천식, 갑상선, 악성빈혈 등으로 고통받던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주요목차 자연의학에선 불치병은 없다 / 면역력만 살리면 된다 / 체질을 쉽게 바꾸는 법 / 유황오리의 신비한 능력 / 자연치유력 키우는 법 / 암 정복 식품외 다수

※구독을 희망하시는 농협 023-02-237173 김용식 계좌로 8,000원 입금 후 성명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참 좋은 생명의 집
02)844-1655~6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49	륙	시		춤	전
식	재	재	식	물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요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증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적중율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정통 중국 황실 육임학 비법 전수
- 평생운 流年運의 정확한 예측법
- 古宮(자금성)에 소장중인 秘書로 강의
- 대육임 현대응용 활용법 강의

御 定 六 壬 學 會
(어정육임학전문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불교 어린이집
스님선생님 모십니다
055)635-3248

역학개인지도
비구니스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에 철학하는 처사 필요한 사찰 전화주세요.
(함께 운영 하실 분 연락바람)
010-9664-8029
051)867-8029

남여사원모십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 긍정적 사고력을 지닌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2JOB가능 평생사업 (꿈의 발 교정 보조기구)
「BH코리아(주)」
011-225-4144

소백산 송이·능이 판매
054)634-3334
주문처: 농협(한희욱)
751081-51-060579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2동 269
심우사 한산 합장

사찰운영(동업,주주)모심
- 사찰위치 : 경주
- 규모 : 토지3500평,건물 300평 (소자본으로 힘을 모아 사찰운영 같이 할 분)

처사님 보살님 동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051)803-5143

주역과 사주를 통달한 60세 비구입니다
스님없는 절의 보살님에게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병든 노비구스님을 시봉할 신심있는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9484-7693
문수스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성 전통사찰
011-9350-3216

행자모심
고졸이상, 40세미만 대학, 대학원 까지 책임지원함
02)917-3363

공양주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조용한 산속 암자입니다
수양하면서 도량관리 컴퓨터관리 하실 처사 한분 공양주 한분 모십니다
054)535-03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지리산
011-483-5639

처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나이 53세 대형운전면허 있음
010-6476-6026

종무소 직원 구함
신심있는 불자로서 PC가능한 40세 이하(여)
▷경기 이천
011-415-5558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16-9730-3003

가난한 절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절 주지직 원합니다.
무보시로 운영해 드리며 철학을 공부한 60세 조계종 노비구 입니다.
010-9484-769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시 위치
011-688-6625

산세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실 신심있는 처사님들은 연락바랍니다.
▷울산
052)254-5125

용이 승천한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고 불사중인 비구승입니다. 불사에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같이 사실 분 환영)
▷용천사
010-4518-3978

사미니,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서초 소재
02)3472-1080
010-7448-1080

조용한 산사에서 평생 같이 할 노스님 비구니, 행자, 보살님을 모십니다
▷ 덕유산
017-569-3722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경주시 양북면
016-278-9166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 울산시내 보탑사
052)275-0829

5년 전 포항시 기계면 구지동 안국사에 머물던 스님을 찾습니다. 성은 '이'씨 고향은 경상남도. 충남 한산섬 방생 같이 갔던 스님. 찾는 사람은 공보살
054)243-7235
011-802-99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 이하, 월 보시 120만원)
불심있고, 건강하고, 음식을 잘할 수 있는 분.
▷ 경주시 강동면
054)762-4269
017-531-77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숙식제공
월 보시금 100만원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
문의처 02)719-1855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당진시내(제1교옆)
- 4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가능)
- 면적44평 큰방1 샤워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10-9473-317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 420평,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 2천만원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강남
- 법당 50평, 요사채 50평
-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500만원에 월 160만원 시설비는 절충가능

010-7163-5392

불상(급)안내
지장대불을 모실분을 찾습니다
- 위치 : 경북 ● 높이(좌대포함) 23석자 옥좃대, 향로, 다기-한세트, 초꽂이 180개
- 대불조성비용 4,500만원(절충가능) 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0-6512-1237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눈
- 충혈,눈물,피로,눈곱,눈이 뻑뻑함
- 침침함,눈부심,안구건조,가려움 등

눈 전문 특수영양식품
일본특허 2790212 식약청HSK 2106909099
미국특허 5382714 KIST승인 KDAR03G-3K



일본 성인병예방협회 추천제품

제조 : 日本(株)MERCURY-MK
눈밝은 세상
(02)2237-8004

항암 특보
각종 암,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뚜렷한 치유의 기쁨을 확인시켜드리는 일본제품을 소개합니다.

氣
절대 말이나 이론으로 하는게 아니고 몸으로 수련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오세요.

제1기 전문 기수련인 모집 (선착순 0명)
- 모집대상 : 스님 및 전문 기공인이 되고자 하는 분, 일반수련생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하실 분)

천지도법 기공협회 053)754-0082 / 011-549-8130
(대구 동부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난강학회[蘭江學會] 사주명리학 및 대 육임학 문하생 모집

문하생 모집 및 교육 목표
운명 학의 최고봉인 자평 명리 조후학과 인사만단 정복의 제왕술 대육임의 자유로운 구사로 학,술의 상호보완을 통 하여 추명과 예단 능력을 완성 하는것을 목표로 하며 참된 공부를 체득 하기 위한 강호제현의 인들에게 길잡이가 되기 위함 입니다.

사주 명리학
격국의 기본 연해자평 부터 조후의 정수 난강망 까지의 체득과그 외에 실전응용 이론에 입각한 말문을 확실히 트는 학습과정을 수료 할 수 있습니다.

대 육임학
육임대전,대 육임심경.대 육임 비본. 육임 지남.육임 역지.육임신과 실전 감정법.육임 필법부.육임 정해등의 다수의 육임 교습서로 수업 합니다. 육임은 일명 삼전사과(三專四課)라고도 부르는 점술이다. 육임은 대단히 오래된 5천년의 감증된 역사를 지닌다. 주역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이는 점술의 황제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방법도 이론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도나 명상을 통해서 감지해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실제 풍부한 임상과 이론을 겸비한 경륜자의 지도 아래에서 학습 하여야만 이론의 적절한 대입이 용이 해 진다. 단지 책을 펼쳐서 되는 그런유형의 학문은 결코 아니다. 고로 수행자가 체득 하기에 누구 보다 용이한 학문 임을 알수 있다. 예를 들어 난강학회 학회장 등명 서정갈 님의 을유년 국운 예측을 통해 육임의 진수를 이해 할수 있다. 05년 1월3일자 주간조선 1836호에 기고된 05년 을유세년의 국운정세 예견은 점복의 제왕학 육임학에 의한 추론 임을 밝힙니다. [weekly.chosun.com]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 비중있게 취급된 내용은 7월복한 6자회담 복귀와 사상 유례가 없는 7월중 주가 1,100 P돌파의 여부가 세인의 관심을 끌던 사안 이었습니다.

[서정길 - 난강학회] "양력 7월, 주가 1100 포인트 돌파할 것" "북한 7월 6자 회담 복귀"
을유년의 기운은 퇴축退縮의 형세다. 마찰과 대립이 계속되지만 궁극적으로 기운이 쇠하면서 수그러드는 형국이다. 열린우리당은 4월 재 · 보선에서 패하겠지만 국회에선 절반의 세력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 다른 당에서 의원들을 영입해 오거나 세력제휴를 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의 힘은 약해지겠지만 정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북한은 억지로 끌려나오게 될 운세다. 시기는 양력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시적 태도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가시적 결과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려면 2009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문제에 대해 북한은 4월부터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제도상 커다란 개혁이 있지 않을까 싶다. 파 破와 생 生이 함께 나와있다.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경제 개혁을 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형국대로라면 북한은 바라던 원조를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탈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올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외교관계. 특히 대미관계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파병은 연장되고, 그로 인해 국제적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며, 교역 · 무역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쌀 시장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도 더 이상 줄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니다. 올해의 화두는 경제다. 을유년에서 경제를 의미하는 글자인 유酉 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2005년의 국민 생활은 몹시 곤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민심이 급속하게 이반, 집권층과 괴리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혼선을 빚으면서 잇달아 무리수를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를 얻기 위해 열을 쓰는 형국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백약[百藥]을 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폐단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주가다. 증시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다 양력 3월부터 상승, 7월경에 1100포인트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육임학은 天,地,人 삼재의 중심인 人을 위주로 하는 학문 임으로 天氣, 地氣 역시 자연스럽게 밝혀 낼 수 있는 학문 입니다]

- 육임 명리기초반 수강료 : 월 30만원
- 육임 명리기초반 수강 기간 : 12개월
- 강의시간 : 매주 월,수 일일 3시간
- 강의장소 : 지하철 2호선 2번출구앞 4층 난강학회

※ 학습 자료는 사정에 의해 변경 될수 있습니다.

문의처: 02) 393-2471
011-9016-2471

눈생각, 20가지를 40일 숙성시킨 한방차
안경, 렌즈 벗고 싶지 않으십니까?
백내장, 녹내장, 건조증, 시력, 시고 눈물 흘림 약시눈, 렌즈 끼신 분
초등학생에서 노인까지 무리없이 드실 수 있는 것
효과없으면 100% 환불
전국대리점 모집 02)2631-2205, 1305 눈생각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남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선방 대중 모심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는 감포도량에 선방을 개원하고 동안거 정진대중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아우르는 천혜의 대도량에서 큰 깨달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 무문관 : 15명 (법랍 10년~20년 승려증지참) - 비구
- 재가대중선방 : 40명(주민등록증지참) - 건강한 여성 불자
- 행자 : 10명(45세미만, 남 · 녀) - 대구큰절 중 택일
- 동안거 결제일 : 음력 10월 15일 (그 이전에 방부허락을 받으셔야 함)
- 감포도량 위치 : 감포 대본 2리(회곡)에 있음
- 선방 방부문의 : 011-881-9710 (감포도량 연봉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입학 납골(053-474-8228), 행자문의 011-9852-0075

유황 법제를 전수합니다
054)751-822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위치: 전북완주 • 위치: 경기 청평
• 법당: 25평 • 법당: 30평 • 법당: 25평
• 요사: 65평 • 요사: 45평 • 요사: 30평
• 부지: 530평 • 부지: 440평 • 부지: 670평
• 가액: 6억5천 • 가액: 2억5천 • 가액: 4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북한산토굴1000평-6억5천
②충주사찰1000평-3억5천
③북한산임법당임대-월85만원
④경기목조사찰2000평-20억
⑤서울토굴2000-20억
⑥서울토굴만평-30억
◆ 1억~10억사찰많음.투자상담
※ 직원,공양주,기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52)258-4994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포교당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청주과광호텔앞
• 평수: 45평 3층건물중 2층
• 시설: 삼존불, 고급후불탱화 3점.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부동산 오셔서 즉시법회가능
시설비: 답사후절충

016-261-2068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위치 : 경기도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부지 : 천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법당 : 30평
• 요사: 23평, 용왕전 • 요사 : 30평
• 급매 1억2천, 약수물 • 가액 : 10억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동
• 지하 1층 60평, 시설일체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는 스님 불사관계로
• 능력있는 분에게 좋은조건으로 양도

011-9511-8656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완도읍 5분거리
• 대지 : 60평 사용가능평수 300평이상
• 시설 : 법당, 산시각, 공양간, 삼존불
• 전세 : 3천만원 양도가액 : 5,500만원
• 기도하실 스님에 매우 적합 몸만 오시면 됨

011-9394-1215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당진군 합덕읍
• 평수 : 330평(등기허가),170평(구구지) 합 500평, 건평 115평 (3채 중 1채는 단독 전세, 매매 가능) 법당 50평(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짐)
• 조견 정리 되있고 산세수려, 마당넓고 차진입 가능, 물-바위속으로 600자
• 전세 1억(년비례이 원하는 기간만큼) 양도 2억. 인연있는분 만나고싶습니다.

041)363-4905
011-325-1272

사찰 안내

• 법당 및 현대식 요사채 4동
• 15,000평 부지에 도로 전기 완비
• 산청-증산리간 소재, 맥반석 계곡접 웅장하고 청정한 도량
• 답사 후 결정 요망

010-6398-573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 위치: 부산시
• 대지: 120평 • 대지: 50평
• 법당: 18평 • 법당: 40평
• 요사: 25평 • 요사: 80평
• 양도가: 5억(융자가능) • 양도가: 3억3천(융자가능)
※ 도심속 유서깊은 사찰임 ※ 역사깊은 도량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월천역에서 5분거리
• 평수 : 상가건물 53평,옥상 55평 사용가능
• 시설 : 삼존불 외 집기일체 주방, 화장실, 응접실, 방 2개 시설A급, 시장입구 주차장완비
• 아파트 주택 밀접지역.위치좋음
•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꼭 필요한 분 연락바랍

017-508-2675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토굴 안내

• 위치: 속리산 국립공원 칠보산 자락 봉양사에서 10분거리
• 평수: 488평
• 목구조(황토방)20평
• 가액: 2억

043)834-7138
011-491-7138

사찰 안내

• 위치: 대전시내
• 대지 905평, 전 150평, 임야 320평, 총 1,375평 임야 전은 현재 주차장 밑마당으로 사용중이며 언제라도 건축을 하면 대지로 전용 할 수 있음.
• 법당은 새건물이며 시멘트슬라브 기둥세워서 2층으로 올릴 수 있음.
• 1층 120평, 지하 40평, 요사채 구옥 시멘트슬라브 약 40평 • 가액 : 15억

011-209-7420

사 찰 안 내

• 위치: 양산 • 위치: 경주근교 • 위치: 밀양
• 부지: 120평 • 부지: 3,000평 • 부지: 1,000평
• 법당: 20평 • 법당: 15평 • 법당: 20평
• 요사채: 20평 • 요사채: 20평 • 요사채 : 30평
• 가액: 2억2천 • 가액: 2억 • 가액: 5억
• 조용한 근교암자 • 한적한 산속 암자 • 표충사 부근 괜찮은 사찰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역 2분거리, 시장내 위치
• 3층 건물 중 2,3층 2층 법당 사무실 스님방 3층 요사채 방3개, 공양간 거실, 시설 일체 완비
• 시설비 1700만원(절충가능)
• 가액 : 2층만 사용시 - 1천만원, 월80만원 2,3층 사용시-1천만원 월 100만원

019-9264-7000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남구 신정동 암사역 2분거리
• 대지 : 60평 사용가능평수 300평이상
• 시설 : 법당, 산시각, 삼존불 공양간
• 전세 : 3천만원 양도가액 : 5,500만원
• 기도하실 스님에 매우 적합 몸만 오시면 됨

011-9394-121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 면적: 756평 법당 집기 일체
• 방4개, 창고 50평
•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7천만원

010-3138-4897

사찰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5평(전망최고)법당: 30평(신축건물) 요사채: 50평(화장실2, 창고1)
• 산좌수려(와우형),교통편리
• 가액: 3억

016-626-4388
062)653-9097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요망
• 女행자나 사미니 60세미만 기도하실분 모십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당안내

• 위치: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 3층 건물에 3층 70평 법당30평, 주지실, 사무실, 총 방5개, 참선방 4칸,주방, 욕실, 화장실 3개(실내외)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66만원,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9969-9895
032)572-7508

암자(토굴)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대구,진주고속도로 공사중)
• 대지 100평.
• 건평 : 본채, 요사채, 방4개, 입식주방, 욕실2개, 창고1
• 합천읍 5분거리, 50호 촌락
• 가액 : 5천만원(절충가능)

055)932-9917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5동 (영대전철역 옆)
• 총평수: 40평.즉시법회가능 법당(삼존불, 신중, 시왕 방2개, 공양간) 집기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백 월 26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011-9850-2946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8천5백만원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가액 : 500만원에 월35만원

010-4841-3499

임법당안내

• 위치: 서울 불광동 북한산 자락
• 단독 3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교통편리 기도최적지 주변환경좋음
• 꼭 인연되는 분만 전화요망

02)352-9810

사찰 안내 (전세 가능)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2층 슬라브집) 법당 평수 약50평, 방6개, 부엌2개, 심야보일러2대, 식기세척기1대, 주차장 25대 확보.
• 위치 : 경남 밀양시 하북면 용연리 586번지 (50m 넓이 계곡을 끼고 있음) (부산-언양간 시내버스 10분간격 운행중. 버스정류소에서 도보2분거리, 정류 소에서 50m (절앞으로 4차선도로 개통, 절 주변 도시개발 택지 조성중)
• 용도 : 지장기도도량 또는 포교당, 기타 노인복지센터로도 이용가능, 현재도 노인 0명 하숙중임)
• 가액 : - 매매시 5억5천만원 (계약금, 중도금 포함 1억지불 후 잔금은 2년까지 할수 있음) - 전세시 3천만원에 월 100만원

055-374-3669 / 017-201-1323

(용인시) 도심속 산중 절 (전망좋음)

• 법당 약 20평
• 산신각 노천법당 (비로전 따로 있음)
• 요사채 3채 약 60평
• 가액: 9000만원

016-354-9742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대둔산 안심사 주위
• 건물 3동, 경관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 6,700만원 (상환받을수 있는 4,400만원 짜리 콘도권을 포함해 드립니다. 답사후 절충가능)

011-456-5587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주례동
• 3층건물중 2층. 유료주차장옆
• 평수: 45평
• 큰법당, 방2개, 입식 부엌 및 화장실
• 법당에 삼존불 및 각 후불탱화 산신, 용왕, 영가단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차후결정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1-847-2992
010-4879-657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76평, 전: 156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선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사찰(급)안내

• 위치: 울릉도 도동
• 면적: 1000평 공시자가 6억 대웅전 25평, 삼성각 4평, 용왕각 4평 요사채 2동 40평
• 가액: 3억5천만원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수비 4거리 지하철 출구 바로앞 포교최고적지
• 107평 옥상에 60평 법당
• 가액: 보증금 50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1-500-1777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풍세면 (천안시 10분거리)
• 대지 400평
• 법당, 삼성각, 요사채 2동 (5분거리내 신축 아파트 밀집)
• 가액 : 전세 4천만원

041)578-3565
010-2201-674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둔천리
• 평수 : 밭 5천여평
• 임법당(25평), 방3개(20평)
• 가액 : 3억5천만원
※ 기도처로 적합

011-776-5569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 대지 : 364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시설완비
• 가액 : 상담 후 결정

061)282-0703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600평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교통편리, 산세위치 수려함, 신축건물 고건축
• 가액 :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530-8490

사찰 안내

• 위치 : 합천군 가야면
• 대지 : 300평 • 건물 : 법당1동, 요사채2동(황토1동)
• 특징 : 산세좋고 물 좋음 (명산 입구)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품 1천만원)

055)931-72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
• 법당: 15평
• 대지: 267평
• 가액: 2억

011-568-9748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나주시 인근 현도로에서 2차선 도로예정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분기점 IC 5분거리 (1호선국도 7~8분거리)
• 대웅전(목조) 30평 요사채(목조) 20평 - 스님방1, 주지실방1, 종무실방1, 객방1 공양간(목조) 10평 방1개,화장실 목조 (해우소) 남여 각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 cc카메라시설(내부외부 모두 설치) 총 490평
• 암반지하수 대형관전(130m 물량 100톤) 사찰주변계곡 물 흐름 안쪽으로 골프장 확정
• 가액은 꼭 보시고 의양이 있으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627-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 앞
• 평수: 40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 집기일체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 됨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52)295-3700
010-4846-5194

사찰(급)안내

• 위치: 원주시, 원주터미널에서 10분 (서울에서 1시간)
• 종교부지 800평 외 320평
• 보궁 20평, 법당30평, 산신각, 미륵대불, 3층석탑 요사채, 신축 50평
• 정남향, 산세수려, 아늑한 도량, 30년된 사찰
• 가액 : 4억8천만원 (절충가능)

010-6213-5949
011-361-0516
031)594-941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중구 (버스, 지하철 2분)
• 평수 58평 (5층건물의 4층, 엘리베이터 이용)
• 가액 : 보증금 3천8백만원에 월50만원
시설비 : 2천1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 내부 순 한옥식, 바닥은 게르마늄과 맥반석 온돌방
※ 비구니 또는 행자 모십니다.

011-9193-2351
010-8678-5442

사찰터 및 납골당터 안내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7호선 천왕역, 1 · 7호선 온수역 10분거리(마을버스 수시운행)

평 수 : 약 5014평중 1418평은 대지이고
나머지 3596평은 임야 (자연녹지, 공원용지, 그린벨트)임

도 로 : 현재 8m 도로 접함 및 30m 예정도로가 1분거리

특 징 : 사찰 터 및 납골당 터로 최고의 명당자리임

문의전화 : 018-302-5500
011-399-9271





사찰 경내 출토 유물의 주인은?

조계종, 사찰출토문화재 보존 · 관리개선 공청회

1965년 이후 발굴 유물 3773점 중 213점만 사찰 귀속
소유권 판정 절차 법제화 · 유물 활용 방안 마련 등 제기

현존 사찰 내 발굴현장에서 출토된 유물은 누구의 것으로 봐야할까.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사찰 소유가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1965년 이래 36개 현존 사찰 발굴에서 출토된 유물 3773점 가운데 213점만 사찰로 반환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 귀속됐다.

납득될 수 없는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계종이 나섰다. 조계종은 8월 3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 ·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고 스님이 사찰출토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측면을, 조계종 법률전문위원 김형남 변호사가 사찰출토문화재에 관한 법률적 측면을 검토했다.

현고 스님은 "경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해당 사찰뿐 아니라 불교계의 종교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유산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지금까지 전통사찰 894곳 가운데 36곳만 발굴이 이뤄져 앞으로도 더 많은 사찰에 대한 경내발굴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유물의 활용성을 살릴 수 있는 보존 · 관리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한다"고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고 스님은 사찰출토문화재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출토문화재 소유권 인정 기준이 탑과 불상에 달리 적용되는 점 △출토문화재 소유권 인정 기준이 문중의 묘와 사찰에서 달리 적용되는 점 △국가귀속시 면밀한 검토 결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불상 복장유물의 경우 불상과 일괄적인 것으로 간주돼 사찰 소유임을 인정받고 있지만, 탑에서 나온 사리구는 매장문화재로 분류돼 탑과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리구들이 국가에 귀속됐다. 해인사 길상탑(보물 제1242호) 출토 사리구나 운주사 · 인각사 · 개태사 출토기와는 사찰명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귀속됐다.

이처럼 사찰측이 경내지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반해, 문중묘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문중 소유권을 인정받는 분위기다.

현고 스님은 "문화재가 원출토지를 이탈하게 되면 본연의 가치가 반감되고, 역사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이렇게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들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전시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채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소유권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현고 스님은 현존사찰 출토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법적 해석과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의기구 설치, 소유권을 객관적으로 판명할 수 있는 기준안 및 귀속절차의 행정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현고 스님의 뒤를 이어 발표에 나선 김형남 변호사는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민법과 문화재보호법이 매장문화재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이상 '국가귀속의 편의'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는 문화재보호법과 실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 판정절차를 법상 명기할 것 △전통사찰경내지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전통사찰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등을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소유권 판정절차와 관련 "이 조항을 법상에 명기하지 않는다면 매장문화재의 소유자를 찾기보다는 공고 및 거치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시키는 관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발굴사실을 통지하고, 독립된 기구가 소유권자를 판정하는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재훈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는 "문화재의 출토지, 원위치 보존이 이제는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현고 스님의 주장을 지지했다.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도 "국립박물관의 출토문화재 관리능력은 포화상태"라며 "향후 증가할 출토문화재 관리를 사찰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보존에 더욱 효율적이다"며 사찰박물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명대 동국대 교수(불교미술사)는 "현존사찰의 경내지 발굴유물이 불교유물일 경우 당연히 해당사찰유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유물들에 대한 해당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내용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조유전 前 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는 넓은 의미에서 국가 소유"라며 "소유의 개념보다 보존의 개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 테두리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원주법천사지 사적 지정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원주 법천사지 약 4만5천평을 사적 제466호로 지정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법천사지는 묘탑 가운데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지광국사현묘탑(국보 제101호 · 사진)과 탑비(국보 제59호)가 있던 곳으로, 탑은 일제에 의해 경복궁으로 옮겨졌고 현재 사지에는 탑비와 지광국사현묘탑지와 부도전지, 당간지주 등이 남아 있다.

유구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기의 건물지 19동과 우물지 3개소, 석축 및 담장유구, 계단지를 비롯해 금동불입상, 연화대석, 각종 기와류 및 자기류 등이 확인돼 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법천사는 신라 말 세워져 고려시대에 대대적으로 중창됐는데, 화엄종과 더불어 고려시대 양대종단을 형성한 법상종의 고승 정현이 주지를 지냈으며 지광국사 해린이 주석하기도 했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됐다.

한국정토학회 세미나

한국정토학회(회장 법산)는 9월 2일 오후 2시 서울 도선사 3층 법당에서 '불교신앙의 자력과 타력의 문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정토학회 고문 정토사 설산 스님의 미수를 기념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아대 강동균 교수의 '정토의 자력과 타력',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의 '선의 자력과 타력', 도업 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학)의 '화엄의 자력과 타력', 이병욱 고려대 강사의 '천태의 자력과 타력'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법상 스님, 화랑스님, 정엄 스님, 최동순 동국대 강사 등이 참가한다. (02)581-3138



제 모습을 찾은 건봉사 능파교. 능파교는 대표적인 홍예교 가운데 하나다.

건봉사 능파교 복원 마무리

지난해 6월 보수공사 도중 붕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한 보물 제1336호 건봉사 능파교가 2년여 만에 옛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고성군에 따르면 현재 98%가량 공정이 완료된 상태로 상단부분 처리에 대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과 고색처리 등을 남겨놓고 있다.

복원된 능파교는 붕괴이전에 일자형으로 돼 있던 윗면을 곡선형태로 고쳐 옛 모습에 더욱 가까워졌다. 길이 14.3m, 폭 3m에 중앙부 높이는 5.4m다.

건봉사 능파교는 2003년 8월에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 보수 복원공사를 시작했으나, 면석을 쌓는 과정에서 붕괴돼 부실공사 논란을 야기했었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3>

줄기 세포

최근 황우석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개 복제에 성공했다. 암컷과 수컷의 생식 세포의 만남에 의해서 새로운 세포가 탄생하고 이 세포가 분열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개 복제는 아프간하운드 수컷 타이의 피부에서 체세포를 떼어, 잡종 개의 난자에서 핵을 뺀 뒤 융합시켜 대리모에 이식시키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개는 미성숙한 난자를 배란하기 때문에 채취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게 됐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성과로 황 교수 팀은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임을 입증했다.

줄기세포는 어느 부분으로도 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난치병 치료 순수한 동기 이면에 탐진치 도사려
생명조작으로 인연의 아름다운 그물 파괴된다면…

특히 몸의 한 부분이 고장 난 환자들에게 큰 복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세포에서 만들어 낸 줄기세포를 주사하거나, 외부에서 장기로 길렀을 때, 이 부분이 우리 몸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예를 들어 뼈에 주사한 줄기세포가 분화해서 털이 자라면 큰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줄기 세포를 기르는 기술의 발전은 생명 복제 기술의 진보를 뜻한다. 이번 개 복제의 성공에서 보여 주듯이, 줄기세포 연구와 복제기술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줄기세포 배양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의 복제 또한 결국은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이다.

종교적 · 윤리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학 기술은 자체의 논리로 발전해 온 경향이 크다. 지동설의 확립이 그러하고, 진화론의 발전이 그러하다.

물론당시 그렇게 많은 논란을 일으킨 지동설이었지만, 지동설이 종교, 특히 기독교의 정체성을 해친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후일, 과연 개를 포함하는 동물이나 인간의 복제 또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될 것인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불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고민의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화엄적 입장을 제시해 본다.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 그리고 무생물 조차도 인드라 망이라는 인연의 그물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연의 아름다운 그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생명조작으로 파괴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비록 순수한 동기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면에는 탐진치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탐진치를 세 개의 독이라 가르친 부처님법의 이면에는, 탐진치가 단지 개인을 괴롭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인연 전체의 모습, 아니 우주 전체의 모습을 괴롭게 만든다는 지혜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줄기세포의 제조,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산업적 이익에 대한 동기 또한 과도한 탐진치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토굴 안내
- 위치 : 충주시 소태면 복탄1구
- 대지 130평, 요사채 17평. 등기완료
- 가액 : 2천5백만원

019-537-3564

사찰 안내
- 위치: 동해안 산세 수려한 명산자락임
- 부지: 종교 부지를 포함해서 1300평임.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삼포건물임
- 신축건물: 1층 황토방 겸 공양간 2층 회관 요사채 현대식 슬라브 건물 주차장 2곳 포장된 진입로 2곳 연수원 기도원 적합
- 가액: 답사 후 마음에 드시면 절충 바람

010-3660-2867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강서구 대제동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주지실 8평 주차장 200평

051)941-0195
010-6480-6960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성북구 성북동
- 대지 : 220평, 건평 60평 법당, 요사채 2동
- 전세 : 2억5천(절충가능)

02)762-2204
02)745-6939
011-244-2083

절터(급)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탄부면 준농림지, 밭 1170평
- 가액 : 평당가 5만원
- ※ 포란형의 길지
- 상주,보은 - 청주간 고속도로 2007년 개통 예정 (진입로 있음, 큰길에서 300m)
-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스님 직접.

011-9122-0793

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 대지 건물 : 총 839평
- 경관 좋음.
- 가액 : 7천만원 (절충가능)

※비구니 수행처로도 가능

010-6460-1316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 대지 : 600평 (종교부지 300평) 현재 기초공사 되어있음
- 도로,전기,물,시설 좋음
- 가액 : 4천만원
-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3189-3525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 연동리 (고산 유적 근처)
- 대지 800평, 한옥법당 17평 (2년전 불사완료) 요사채 20평(팬션형)
- 해남읍 2-3분 거리 (대흥사 들어가는 대로변 위치)
- 가액 : 2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772-4780

사찰안내
- 위치: 마산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 요사채 2, 산신각
- 대지 300평 주차장 700평
- 가액: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9527-346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주택중심가
- 대지 203평 현거래시가 250-260만원 정도
- 사정상 급 안내 평당 190만원 총 3억 8천 5백만원
- 법당 30평 요사채 25평 7층탑, 5층탑, 100년 이상된 고목 두 그루, 포교적합 도량, 화장실 수세식 4칸
- 주차 7-8대 가능 주인직접

010-3133-0018

암자운영안내
- 위치: 전주시내(공원지역, 어은골 뒷산)
- 건평: 35평(법당, 대중방, 주지실, 거실, 주방시설, 세면장) 산신각
- 법당: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후불탱화(4*10), 신중탱화(4*6), 산신탱화(4*5)
- 불단 및 불기 일체
- 가액: 2800만원

063)255-0733
010-3943-0733

포교당안내
- 위치 : 광주시 남구 월산5동 2층 슬라브
- 1층 법당 30평, 2층 요사채 30평, 대지 50평 3층 건축 가능
- 가액 : 1억6천만원(절충가능)

017-602-9779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법당: 18평 부지: 약 300평(국유지)
- 전망좋음
- 가액: 3억원

016-237-3006

사찰안내
- 위치: 진주에서 15분거리
- 대지: 200평 현대식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큰방 5개 화장실 2층 법당 20평 공양간 20평 창고 10평
- 삼존불 아미타불 400불 신중탱화
- 몸만오시면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2억

017-548-5980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시장내요지 2층 건물에 2층 65평 법당, 방3칸
- 가액: 전세 300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결정
- 허가등록된 주차장운영 (월세 충당)

051)364-4889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면목동 사가정 전철역 앞
- 2층 건물 중 2층 약 20평, 방 2개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특징 : 지하철 역세권 유동인구 많은 시장 입구 시설 A급

016-346-045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범어사 입구
- 평수 : 50평, 큰방2, 작은방1 집기일체, 삼존불, 산신, 용궁, 신중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1-9556-8413

일 주 문



석종사 무량범종 타종법회

충주 석종사 주지 혜국 스님은 9월 3일 오전 11시 석종사 범종루에서 무량범종 타종법회를 봉행한다. (043)854-4505



하천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남양주 구리 불교사원연합회장 철안 스님(봉선사 주지)은 8월 24일 한강 지류인 수동골 하천에서 자연보호 및 하천 정화활동을 했다.



여의도포교원 개원 20주년 법회

서울 여의도포교원장 현진 스님은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을 초청해 개원 2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대전사암련 18대 회장 취임법회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 운봉 스님은 8월 29일 보문산 그린타워에서 대전사암련 18대 회장 취임법회를 거행했다.



'다시 태어나도…' 출간법회

구례 천은사 주지 금종 스님은 9월 1일 오전 11시 극락보전에서 저서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출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061)781-4800



부처님 수행법 주제 강연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각묵 스님은 9월 29일, 10월 6, 13, 20일 오후 7시 서울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부처님의 수행법' 주제로 강의한다. (02)576-1886



관문사 백중법회 참석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8월 19일 이강두 최고위원, 김병호 · 주호영 · 김태환 · 김재경 의원 등과 함께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백중법회에 참석했다.

계간 '불교문예' 편집주간에 이은봉 시인



이은봉씨



공광규씨



김연자씨

현대불교문인협회는 최근 <불교문예> 편집주간에 이은봉 씨, 부주간에 공광규 씨, 편집장에 김연자 씨를 각각 임명했다. 이은봉 주간은 광주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하며 평론과 시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공광규 부주간은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시집 <지독한 불륜> 등을 발표했고 김연자 편집장은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교는 내 생활 깊은 곳의 동력"

정년퇴임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형효 교수

서양 · 동양 철학 거쳐 불교에 귀착

"불교의 지혜 배우는 건 시대 요구"



오직 진리에 대한 열정만으로 동양과 서양, 고전과 현대를 넘나들며 거침없는 지적 항해를 거듭해온 김형효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철학종교연구 · 사진). 김 교수의 정년퇴임을 맞아 8월 26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념강연회가 열렸다. 김형효 교수는 '자기철학'을 전개하는 몇 안 되는 철학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인물.

기념강연 주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철학'. 프랑스의 실존주의철학자 마르셀로 시작해서 레비스트로스, 라깡, 푸코에서 하이데거, 데리다 등을 거쳐 공맹과 노장, 한국의 퇴계와 율곡 등 동양철학에 이르렀던 김 교수가 이제 불교에 닻을 내렸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김 교수의 지론은 동서철학사가 구성철학과 해체철학으로 구분된다는 것. "자아 · 의식이 세상을 구성해 진리를 진리답게 만들려고 하는 철학이 구성철학"이라면, "의식이 세상의 왕인 양 진리를 만들어내려 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러한 행위를 거짓된 것으로 간주하는 철학이 해체철학"이다.

김 교수는 "자아를 해체하고 무아를 주장하는 불교는 진정한 해체철학이며, 참된 지혜의 담지자"라며 "불교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색즉시공을 "소유되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유루법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공즉시색이라고 하는 존재론의 대긍정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공즉시색에 대해서는 "모든 만물의 생멸과 존재방식은 무한대 허공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공의 현상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로 여기서 김 교수는 소유론이 아닌 진정한 존재론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봤다. "존재론을 말하면서 실상은 환상과 소유에 집착하는 대다수 철학의 한계를 넘어선 불교야말로 진정한 존재론이며 철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사유의 모습이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기념강연 주제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철학'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퇴임강연은 학문 인생을 결산하는 의미를 갖는다. 철학 강연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사상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본다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주제라고 판단했다.

나의 학문적 관심사는 서양철학에서 동양철학으로 이동해왔고, 그 귀착점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이다. 불교는 진정한 존재론적 철학으로서, 철학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다.

▲불교의 가치는?

-과거 형이상학은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론이 아니라 소유론적이다. 즉 인간이 또는 의식이 진리를 잡으려는 시도였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도덕명분학이고, 이것이 형이하학적으로 나타난 것이 경제기술학이다. 이들은 모두 재래의 철학은 소유의 철학이고 유루법이다.

불교는 색(色)을 실체처럼 여기고 장악하려 드는 것이 허망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색즉시공이 바로 그런 의미다. 공즉시색은 마음과 진여의 아름다움을 말해준다. 즉 참된 존재론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준다는 점에서도 불교는 의의를 갖는다.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자기중심주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흐르기 마련이다. 여기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불교는 아를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한다.

▲교수님에게 불교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동력이다. 불교는 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불교를 학문이 아닌 수행으로서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산책할 때 원각경 게송을 읊고, 출근하면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목탁을 치며 천수경과 금강경을 독송한다. 퇴근하면 반야심경을 독경한다.

수행은 아상을 지워줘 하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상이 강해서 번뇌가 심했던 나로서는 이보다 값진 수양이 없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2003년 계를 받기도 했다.

▲후학에게 해줄 말은?

-세계를 설명하는 틀로서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자기가 전공한 특정 철학만 고집하다보니 사유가 제약되고 편협해짐은 물론, 현실과 자꾸 멀어지게 된다. 이 같은 풍토는 철학을 대중으로부터 유리시키고, 생명력을 약화시켜 철학은 쓸모없는 학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철학, 나아가 인문학이 위기를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퇴임 후 계획은?

-알음알이가 아닌 반야지혜를 얻고 싶다. 이는 간절한 소망이다. 반야지혜를 얻고 알림으로써 세상의 복덕이 되고 싶다. 이를 위해 참선을 배우려 한다.

학문적으로는 <동서철학사> <원효사상> 등을 집필할 계획이다. <동서철학사>는 철학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를 다루고, <원효사상>에서는 원효 스님을 철학적이고 쉬운 말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불교연구를 통해 보살도 정신이 우리들 삶에 배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2005년 임관 신임 ROTC 장교 수계법회



2005년 임관한 ROTC 신임장교 650명에 대한 수계법회가 8월 21일 육군 종합행정학교 호국 남성사에서 봉행됐다.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을 수계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스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동량으로 성장해 가라"고 당부했다.

호국 연무사, 군종교구장 초청법회



육군 논산훈련소내 호국 연무사(법사 혜산)는 8월 21일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허평환 훈련소장을 비롯, 훈련병 3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군 생활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광식 저서 '한문서당' 출판기념회



벽암 김광식 선생(청주 명광사 설법원장)의 <한문서당> 출판 기념회가 8월 23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진행됐다. 태고종 충북종무원장 월담 스님을 비롯, 이원종 충북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출판기념회에서 김광식 선생은 "남녀노소 누구나 한문을 쉽게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 해인종 하계수련회



대한불교 해인종(종정 혜지)은 8월 23~25일 울산 보현사에서 제2차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 원로원장 혜종 스님, 교육원장 응관 스님을 비롯 교구 종무원장, 신도 등이 참석한 수련회에서는 종단 발전을 위한 천도재와 응관 스님의 '정토불교와 생활불교' 특강 등이 마련됐다.

부산불교신도회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8월 20~21일 마라도 기원정사에서 평화통일기원 수륙대재와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공병수 회장을 비롯한 신도회 임원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원정사에 통일목을 식수하고 부산불교신도회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화제의 신간
다시 보는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고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종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숙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 · 사업 전화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집 · 땅 · 가게 · 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화, 부동산과 인간의 궁합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 교제 · 결혼 · 취직)의 궁합
- 인간 알대사를 평생토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시험, 건강, 혼인, 매매, 사업, 금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광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416쪽 / 정가 12,9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최근 이혼률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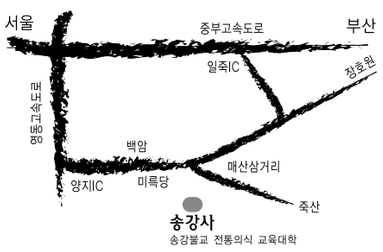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짓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00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대령.관욕.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00명	6개월
특수반	복청게.천수바라.도량게.다게.사다라니.나비춤	00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수륙재. 점안의식	00명	6개월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 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불자 세상보기

최 순 열
동국대 사범대 교수

교사들이 바로 서는 길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고난 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꼭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둔 가정이 아니더라도 교육의 문제는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

공공부문의 혁신이 사회적 요구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교육분야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혁신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질수록 교육계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각별한 역량과 자질의 엄격성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적으로도 교사에게는 거의 성직자적 도덕성과 완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최근 교육부가 부적격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소식은 만시지탄의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성적 조작이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을 저지른 교사는 법적 징계를 강화하고, 이후 교단에 되돌아오는 길을 봉쇄하자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예고에 이미 교원관련 단체들의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권위 추락이나 교사에 대한 폄하 의식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또 자정에 의한 교단의 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교사의 인성적 파탄에 의해 초래되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사실 교육정책 당국이 추진하던 교원평가제는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무능교사 퇴출 방안이 빠진 채 표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차제에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어야 할 부적격 교사의 기준이 좀 더 엄정해져야 한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주로 교사의 인성 · 도덕적 기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수업 능력 및 학생지도력 등 교육기술의 기준도 더 보태야 입법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핵심적 주체가 되는 교사의 자질과 자격이 소정의 학업과정에 의한 자격증 획득과 일회적인 임용고시에 의해 판단될 뿐, 재검증 절차를 동원한 추가 선별로 옥석을 가리지 않는 것은 너무도 느슨한 사회적 방조다.

그러나 결과론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와 같은 규제로서 교사의 자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입법적 취지만으로는 교단의 정화를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없다. 결과를 놓고 처벌을 통한 경계심 강화보다 예방적 유도가 전제되는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원의 급여를 포함한 후생복지가 대폭 확충되어야 하고 수업량과 지도학생수의 하향조정, 잔업과 부수행정업무의 경감, 사회적 신분과 지위의 고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 교사 스스로의 확고한 정체성과 자존감의 강화로 교원 비리가 근원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교원양성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대학 · 사범대학 그리고 교직이수 과정 등을 통해 교사가 양성되고 배출되는 제도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기량과 자질을 충분히 보유하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철저한 전인적 자질과 교육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의학 · 법학전문대학원 수준의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교사의 임용고시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 필답형의 교육학 및 전공교과 시험을 통한 정량적 평가만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지극히 비교육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교사의 재교육 시스템이 보다 확고하게 갖춰져야 한다.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담보한 교육 기회를 정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유도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노력과 아울러 부적격 교사의 퇴출을 시도해야 교단 정화와 교육의 정상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종단 화합을 위한 53 선지식 선언대회'가 8월 30일 열린다.

정부와 언론기관에의 투서에 의지해 종단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불순한 세력에 대한 경고와, 불교의 근본정신에 의거하여 종단의 화합을 이룩하자는 여망을 강하게 호소하는 대회로 예상된다. 불교중앙박물관 공사와 관련한 '의혹'을 중심으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종단의 건강한 청정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종단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이용되면서 불교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을 우려한 종단 종진 스님들이 나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선언대회가 열려야 할 정도로 승단의 분열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선은 깊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고자 나선 53 선지식들의 결단이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바란다.

53선지식, 화합의 촉매되길

그러나 이런 대회 자체가 하나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충분히 경계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운동의 출발점에서부터 투명하고도 정당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목적을 표방해야만 할 것이다.

승단이 외부의 압력에 모독을 당하는 것은 그만큼 모독당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요소를 척결하는데 과감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모독이 올 것이요, 그것을 이용하려는 세력 또한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속세의 법으로 출가의 법을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승단의 비리는 내부적으로만 해결하자고 해서는 적당한 온정주의에 머무르는 미봉책 밖에 나올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불순한 의도로 승단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방치하지 못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요, 우선은 이 급한 불을 끄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할 때 53선지식의 움직임이 종단 화합을 위한 진정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80년대 법난의 아픈 기억이 있기에 이제 정권과 언론에 결탁한 종단 흔들기는 천만 불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위험한 급식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반찬에서 머리카락은 기본이고 손톱에 벌레, 스테이플러 철침까지 나왔다. 식당의 위생상태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장사가 될까?

하지만 버젓이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 그것도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다. 부산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실급식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칼날이 나와 대구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쥐수세미와 담배꽁초도 나왔다고 한다.

올초에 결식아동들에게 부실 도시락 등을 보내 국민들을 분노케 하더니 이제 급식비를 내고 먹는 음식도 부실덩어리로 전락해 또 한번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의 목숨이 돈 한 푼 더 버는 것보다 못했나. 영양소가 골고루 잘 갖춰진 급식을 먹여도 부족할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학부모 내지는 지역 교육청의 조사 정도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정부 지자체들이 나서야 한다. 돈을 더 벌려고 아이들에게 먹이는 먹거리가 비위생적이다 못해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러서야 되겠는가.

'온갖 중생이 지은 행위는 백겁을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 인연이 결합되는 때에 가서는 응당 과보를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부처님은 〈광명동자인록경〉에서 말씀하셨다.

위험천만한 부실급식을 제공한 급식업체나 그것을 수수방관한 학교 관계자들 모두 그 업보를 어찌 갚으려고 그러는 것일까.

■ 강지연(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월간중앙' 백배 사죄해야

〈월간중앙〉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불교계를 폄훼하는 기사를 8 · 9월호 연이어 게재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정직해야 할 언론이 사회의 공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창구역할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권력화 되어온 재벌언론의 횡포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특히 〈월간중앙〉은 삼류소설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하의 글과 공정성을 잃은 기사를 실어 2천만 불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억불숭유의 가혹한 탄압정책으로 설자리를 잃고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조선불교는 국가와 민족의 고통을 함께하며 자비행으로 수많은 승병들이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했고, 일제강점기에는 경허 · 만공선사로 이어지는 눈 밝은 선지식들이 일본의 잘못을 질타했다.

하지만 당시 나라의 주류였던 타락한 양반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듬기보다 이전투구의 치졸한 당파싸움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다 〈월간중앙〉에 실린 것과 같은 음담패설을 즐기며 우리 문화를 어지럽히더니 결국 국권조차 빼앗겼다.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말없이 이끌어 온 불교를 〈월간중앙〉은 '갓 쓴 양반들의 性담론'이라는 해괴한 글로 불교를 우스개꺼리로 전락시켰다. 이들이 불교를 한낱 저잣거리 뒷골목의 조롱거리로밖에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한심한 작태다.

〈월간중앙〉은 사회정론이라는 언론의 양심은 고사하고 이 시대를 망국(亡國)으로 이끄는 현대판 '갓 쓴 양반'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월간중앙〉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배사죄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불교의 사회참여 부족이 이러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반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불법에 의지해 중생들의 참된 행복을 구현하는 불교의 이상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불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폄훼사건을 모두 파헤치고 일부 삐뚤어진 시각을 가진 유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불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범상(붓다뉴스)

초심자에 대한 배려 아쉽다

얼마 전 겪었던 황당한 일이다. 모처럼 휴가를 얻어 칠순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모 사찰을 찾았다.

평소 어머님이 딸과 함께 절에 가보고 싶다는 바람을 들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나 나도 직장 생활에 쫓겨 절을 찾는 일이 드물었고 어머님은 관절염으로 평소 누구의 도움없이는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터였다.

부산에서도 제법 큰 절이라는 말을 듣고 찾은 절은 마침 백중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공양간에서 어렵게 빈 자리를 찾아 앉았다. 잠시후 내가 음식을 가지러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중년의 보살 한분이 어머니 뒤로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낚아채듯 어머니가 앉은 의자를 뺐다. 순간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바닥으로 쓰러질 뻔 한 것은 물론이다.

공양주로 보이는 여자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스님석' 푯말을 가리키며 "신도가 스님들 자리에서 공양하려 했다"며 화를 버럭 내더니 무안을 주기 시작했다.

순간 공안간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로 날아왔다. "잘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이라는 해명에도 그 여자분의 질책은 그치지 않았다.

이날 오래간만에 찾은 절에서 그동안 내가 가졌던 불교에 대한 호감은 여지없이 깨졌다.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종교를 믿는 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교를 오래 공부한 사람의 향기가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묻어날 때 사찰예절에 익숙지 않는 초심자들도 편안히 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문희경(부산 연산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공주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NSF-ISR에서 ISO 9001(2000), HACCP인증
3억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심마니 토종 오가피



심봤다! 제2의 산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의서에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등 자사 직영 현풍농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잎을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HYUN PUNG F&B CO.LTD 02)447-9114

쑥뜸! 쑥뜸! 온구(쑥뜸)기 개발!

연기와 화상에서 완전 해방된 온구(쑥뜸)기
민간요법, 대체의학계의 기본이 되는 쑥뜸!

한의원, 피부관리실, 경락 · 스포츠 맛사지실, 다이어트방 및 가정에서 호평을 받고 있음.



오행온구(쑥뜸)기는 5개의 쑥봉으로 5개의 혈자리에 동시에 쑥뜸을 할 수 있다.

대리점 및 쑥뜸체험실 모집

쑥뜸이 좋은 이유

하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므로써 생식기 주변의 습기를 제거하여 양의 기운을 북돋운다.
둘, 관원혈을 자극하여 음경내의 조직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시킴으로 정력이 강화된다.
셋, 인체 깊숙한 곳에 쑥의 약초 성분과 열기가 침투되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감기 몸살에 효과가 있다.
넷, 면역기능 형성이 작용하여 항체를 늘리는 작용을 한다.
다섯, 뜸뜬후 5분 경과시 백혈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한두시간 후에는 정상인의 2배가 된다.
여섯, 장운동을 원활히 하여 숙변이 제거되면서 열기로 인해 노폐물과 단백질을 분해시켜 균형잡힌 복부를 만든다.
일곱, 출산 후 아래로 쳐져 있는 장기들을 쑥뜸의 특이한 기능으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여 빠른 회복을 돕는다.
여덟, 위장이나 대장의 자율신경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체의 노폐물이나 독소를 몸밖으로 배출시킴으로 인해 기미나 여드름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D.M.I 산업 대구한의대학교(한방 바이오 창업보육센터) 모사포유 www.moxa4u.com ☎ 02-521-6353~4

하와이 무량사 창건 30주년 기념 · 문화원 준공 법회 · 선원장 초청 간화선 대법회 안내



하와이 무량사는 20여년간에 걸려 완공한 문화원 불사준공법회와 창건 30주년 기념 선원장 초청 간화선 대법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 하와이에 한국 전통양식의 큰 사원을 세우고 문화원을 개원하는 것은 이 지역사회와 미주전역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문화원 건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었던 것은 따듯한 격려와 신심 있는 불자여러분의 정성어린 보살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완공된 하와이 무량사는 명실 공히 조계종 미주포교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사에 동참하여주신 여러분의 거룩한 보살행을 널리 칭송하고
앞으로 미주 전역이 불국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문화원 큰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하와이 무량사는 1998년부터 조계종 수좌스님들을 모셔
매 철 참선 정진해오고 있는 태평선원을 비롯 2001년부터 준비해온 하와이 싯다르타 대학, 팔롤로 한인 요양원과 무량사 명원 다도원을 열어 잘 운영할 것입니다.
2005년 개산 30주년을 맞는 무량사가 조계종단 원로 대덕 큰 스님, 본국, 하와이, 미주전역 사대부중 여러분들을 모시고 문화원 준공법회와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니
다망하시더라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주지 권 도현
창건 30주년 문화원 준공 행사 준비위원회 위원장 양 자모 합장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전경

하와이 무량사 창건 30주년 기념 및 문화원 준공법회

- **일 시** : 2005년 9월 24일(토) 오후 3시
- **장 소** : 하와이 무량사 설법전

중요 무형문화재 제 57호 명창 이은주 선생초청
문화원 준공 축하공연과 만찬

- **일 시** : 2005년 9월 24일(토) 오후 7시
- **장 소** :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코랄 볼룸

담원 김창배 화백 초청
하와이 한인요양원 건립 기금모금 전시회

◆ **1차 전시회**
- **일 시** : 2005년 9월 24일(토), 오후 6시 - **장 소** :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코랄볼룸

◆ **2차 전시회**
- **일 시** : 2005년 9월 25일(일) ~10월 23일 - **장 소** : 하와이 무량사 문화원 3층 갤러리

하와이 무량사 · 현대불교신문 공동주최
간화선 세계화를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올해로 창건 30주년을 맞는 하와이 무량사는 미주에 조계종의 전통적인 선풍을 알리려는 선원장 초청 간화선 법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선원장 스님들을 초청하여 미국인들과 우리 동포들에게 간화선의 선풍을 진작시킬 대법회를 봉행하니 많은 사부대중들께서 다망하심을 물리시고 참석해 주실 것을 삼가 앙원합니다.

- **일 시** : 2005년 9월 25일(일) ~10월 23일(일) 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6시 (법회 1시간 30분, 참선실수 1시간 30분)
- **장 소** : 무량사 설법전
- **주 최** : 하와이 무량사.현대불교신문 - **후 원** : 도선사. 명원문화재단

▌법회일정 및 참가 법주

진허 스님 9월 25일
· 97년 조계종 초대 기초선원장. 일현스님을 은사로 마곡사에서 출가,
· 87년 천안 광덕사 선원장, 96년 대구 동화사 금당선원장.

현산 스님 10월 2일
· 현재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이며 화엄사 선등선원장.
· 은사는 화엄사 조실 도천스님이며 법랍 42년.

영진 스님 10월 9일
· 현재 전국선원대표자회의 의장. 조계종 기초선원장 역임.
은사는 금산사 도영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법랍 32년.

설우 스님 10월 16일
· 현재 법인정사 선원장. 1975년 석암스님으로부터 사미계 수계.
· 해인사 통도사 수도암 도성암등에서 25안거 성만. 조계종 간화선 지침서 편집위원 역임.

혜국 스님 10월 23일
· 현재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이며,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이고 제주 남국선원장.
· 1961년 해인사 일타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랍 42년.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18)366-1002, 하와이 무량사 (808)735-7858

'한국불교 세계화의 꽃' 하와이 성지순례 및 역사문화관광

한국 선원장 초청 간화선 법회 입제 · 회향식에 참가 하세요

현대불교신문사는 하와이 무량사와 함께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하와이 성지순례 및 역사 문화관광을 갖습니다.
한국 이민사의 첫 장인 하와이는 한국불교 해외 포교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미주포교 41주년을 맞는 올해로 하와이는 불자수가 10만명을 넘었으며, 미국 캐나다 남미를 잇는 미주포교 전진기지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최대 규모의 한국 사찰 무량사가 창건 30주년을 기념하며 전통한국 가람건축 양식으로 조성해온 20년 불사를 모두 회향하는 낙성대법회를 열고 풍성한 기념행사들을 엽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셔서, 하와이 성지순례와 함께 하와이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귀한 인연을 지읍시다.



- **공동주최** : 하와이 무량사 · 현대불교신문사
- **일 정**
  입제 : 2005년 9월 24일(토) ~ 29(목) 5박 6일 (기념행사 풍성)
  회향 : 2005년 10월 22일(토) ~ 26(수) 5박 6일 (법주 : 혜국스님)
- **동 참 금** : 169만원(비자비용 별도)
- **신청 마감** : 1. 미국 비자 가지신 분 : 2005년 9월 15일까지
  2. 미국 비자가 없으신 분 : 2005년 8월 29일까지
  (비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주시면 대행해 드리겠습니다.)
- **동참 및 비자 문의** : 현대불교신문 최언규 팀장
  018-366-1002

● **일 정 표**

날 짜	도 시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제 1일 9 / 24 (토)	인 천	KE 051	20:0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호놀룰루	전용버스	09:35	호놀룰루 도착 후 입국 수속 알로하 환영 레이 증정
				탄탈루스언덕, 이올라니궁전등 시내관광, 무량사 도착
			15:00	낙성식 (문화원 준공법회 참석)
			19:00	저녁 만찬(힐튼 하와이언빌리지)
제 2일 9 / 25 (일)	호놀룰루	전용버스	08:00	진주만, 와이키키해변 등 관광
			15:00	•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1641년 12월7일 일본군 기습작전 무대. ※ 선원장초청 간화선 대법회 참석(무량사)
제 3일 9 / 26 (월)	호놀룰루	전용버스	전 일	오하우섬 일주 관광 • 232M 의 분화구 정상에서 와이키키 조망을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해드 분화구,한국지도마을,마카후포인트,모자바위, 42에이커의 광대한 부지에 폴리네시안 마을을 재현한 폴리네시안 문화센타, 썬셋비치,파인애플 농장등 관광
제 4일 9 / 27 (화)	호놀룰루	전용버스 국내선 전용버스 국내선	전 일	비숍박물관, 팔리바람산, 와이메하 폭포공원 ※ 원하시는 경우(실비250$ 추가) 1. 마우이섬 관광 • 카아나팔리, 라하이나옛수도, 마우이 트로피컬, 이아오 계곡, 온검초 지대, 할레이 칼라 국립공원 등 2.빅아일랜드(화산섬) 관광 • 하와이에서 가장 늦게 형성된 섬으로 아직까지 화산이 살아있는 대자연 경관을 보임
제 5일 9 / 28 (수)	호놀룰루	KE 052	11:40	호놀룰루 출발
	인 천		16:10 9 / 29 (목)	인천 국제공항 도착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월계동 밤길 우리가 지킨다’

우먼캅스

향기 도반의

범죄야 물렀거라 ‘UDT’ 나가신다

우리 동네 특공대

“살기좋은 마을 위해 똘똘 뭉쳤어요”
통장 아줌마 15명 8년째 야간 순찰



야간 순찰 5분전, 최양현(오른쪽에서 두번째) 대장과 우먼캅스 대원들이 ‘야간 순찰 임무작전’을 최종 점검 한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새벽 1시, 우먼캅스 대원들이 월계동 환내공원에서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있다.

UDT(Underwater Demolition Team). 수중폭파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특수부대를 말한다. 그런데 지역에서 보충역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일명 방위)을 일컬어 ‘UDT(별칭-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 ‘우리 동네 특공대’라는 별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단체가 있다. 주인공은 비록 군대 밥 한번 먹어보진 못했어도 당찬 대한민국 아줌마 15명으로 구성된 월계 3동의 ‘우먼캅스(대장 최양현)’다. 우먼캅스는 ‘범죄 없는 마을, 살기 좋은 동네,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양현(52)씨와 월계동 통장 15명이 뜻을 같이해 1998년 창단했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월계3동 일대 8km 구간을 야간 순찰하는 것. 최양현 대장은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빽빽이 들어서고 근린공원도 조성돼 각종 범죄나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줄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월계동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우범지역으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회고한다. 당시 마을은 공사장과 공터, 녹지 등이 많다보니 밤마다 몰려드는 비행청소년들의 탈선행위로 범죄의 온상이 돼 갔다. 때문에 주민들은 밤 9시가 넘으면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가기도 두려울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우먼캅스는 탄생됐지만 이들의 야간순찰 활동이 자리 잡기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초창기에는 “힘없는 아줌마들이 뭘 하겠어?” “저 사람들 괜히 폼만 잡고 돌아다니는구만”하는 식의 핀잔도 많았다. 하지만 8년 간 야간 순찰 임무를 수행하며 아찔하고 긴박했던 순간 그리고 명쾌한 판단력이 돋보였던 일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우먼캅스는 이제 명실공히 ‘월계동 UDT’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순찰 중 가장 많이 겪었던 일은 새벽녘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난잡하게 놀고 있는 남녀 청소년들을 선도한 일.

“힘 없는 아줌마들이 뭘 하겠어?”핀잔에 야간 순찰 활동 자리 잡는데만 4년 걸려
“이젠 ‘우먼 캅스’ 모르면 간첩이죠”
하천 쓰레기 수거 등 환경 보호에도 앞장

“우리 부모도 담임선생도 날 못 건드리는데 아줌마들이 뭔데 집에 가라 말아라야”라며 맥주병을 깨 행패부리는 아이들을 타이르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며 이길자(49)씨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영하 10도가 넘는 겨울밤 만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취객을 발견하고 병원응급실로 후송한 적도 있었다. 택시에 무임승차한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택시기사를 중재해 택시비를 받아 준 일은 다반사였다.

“‘남의 아이들이니까 탈선을 하든 말든 관심 없어’ ‘우리 가족만 안전하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 할 수 없죠. ‘남이 잘 되야 내가 잘 된다’고 부처님도 상생을 강조하셨잖아요.”라며 우먼캅스 대원들은 입을 모은다. 이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우먼캅스 대원들이 지도하고 타일렀던 학생들이 먼저 자신들을 알아보고 “아줌마! 안녕하셨어요.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먼캅스 파이팅!”하며 반갑게 인사해 줄때 “더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씩 마시세요.”라며 음료수를 건네는 팬들의 응원도 청량제 역할을 한다. 월계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신성균(58)씨는 “월계동에서 우먼캅스 모르면 간첩이죠. 청소년 범죄 예방은 물론 월계동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또 우먼캅스가 있기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이들도 있다. 바로 월계동지구대 경찰관들이다. 월계동지구대장 류제경 경위는 “우먼캅스의 자율방범 활동은 실제로 청소년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주민간의 유대관계를 개선시켜 준 공로가 크다”며 “앞으로 지역별로 제2·제3의 ‘우먼캅스’가 만들어져 민관이 함께 사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효율적인 범죄예방책이 될 것이다”고 말한다. 실제로 월계동지구대는 우먼캅스가 활동하는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협조관계를 구축해 야간지시등, 야광 X반도, 호루라기, 모자 등 야간 순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초 호신술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우먼캅스는 방범활동 외에도 다양한 봉사를 펼치고 있다. 매년 10월엔 노원구청과 자연보호협의회와 함께 수락산과 불암산 일대에 150여개에 달하는 새집 달기 운동도 펼친다. 새들이 편안한 보금자리를 틀 수 있도록 낡은 집을 새로 갈아 주는 일종의 생태보호 활동이다. 새집을 구입하는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되는 돈과 우먼캅스 회원들이 한 달에 5천원씩 내는 회비로 충당된다. 두 달에 한 번씩 중랑천 쓰레기 수거 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임무다. 바로 월계동을 관통하는 중랑천 3km구간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오물, 스티로폼, 담배꽁초 등 우먼캅스가 하루에 수거하는 쓰레기만도 약 100가마.

또 노원경찰서 시민경찰로도 맹활약을 하고 있다. 노원구에 큰 행사가 있을 때나 각종 군경합동훈련 시 경찰관과 함께 도보순찰을 한다. 이런 우먼캅스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법무부 장관 표창, 노원구청장 표창, 노원경찰서장 표창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많은 치하와 격려를 받았다.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며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우먼캅스 대원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뭘까? 그것은 아마도 ‘불심(佛心)’이 아닐까. 15명의 대원들 중 반 이상이 독실한 불교신자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총무직을 맡고 있는 이길자(49)씨, 대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누구보다 열성적인 전삼순(60)씨, 김순덕(54)씨, 이명자(50)씨, 박명옥(49)씨, 김순덕(47)씨 등이 핵심 대원이다. 김순덕씨는 1996년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지금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며 성치 않은 몸에도 순찰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불공드리는 마음으로 야간 순찰을 돌아요. ‘저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바른 길로 인도 하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야간 순찰에 임하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생각도 잊게 되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과 경찰관들의 노고에 비하면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고생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는 우먼캅스 대원들.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그날까지, 누구나 꼭 한 번 살아보고 싶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월계동이 되는 그때까지 우먼캅스의 순찰은 계속 될 거예요.”

글=노병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삶과 죽음의 소중한 만남
영산대재

열린 문화 공간 조계사에서 전통불교의식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영산재(靈山齋)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하시던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의식화 한 재공양(齋供養)입니다.
불교의식의 정수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백미로 손꼽히며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종합예술입니다.

이렇듯 소중한 영산재가 선 수행 중심의 종단 풍토상 관심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조계사는 전통문화를 지키고 종단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3년에 걸쳐서 영산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향하는 조계사 영산재는 의식의 전 과정을 정리하는 자리로 종단의 원로 큰스님을 모시고 문화공동체 한마당을 펼치고자합니다.
뜻있는 사부대중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일 정	법 사	법문주제
입재 8월 22일(음 7. 18) 월	동주스님(조계종 영산재 어장)	영산재의 의미와 공덕
1재 8월 28일(음 7. 24) 일	도영스님(조계종 포교원장)	금강경과 천도재
2재 9월 4일(음 8. 1) 일	법장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천도재, 49재의 공덕과 의미
3재 9월 11일(음 8. 8) 일	월운스님(봉선사 조실)	지장경과 천도재
4재 9월 18일(음 8. 15) 일	추 석	합동차례
5재 9월 25일(음 8. 22) 일	종범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아미타경과 천도재
6재 10월 2일(음 8. 29) 일	원담스님(조계사 주지)	서원과 천도
7재 10월 9일(음 9. 7) 일		영산재 법문

기 간 : 불기2549년 8월 22일~10월 9일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기도동참금 : 생축동참 15만원 / 생축설판 30만원
영가위패(친가,외가 별도) 10만원
동참문의 : 종무소(02-732-2115)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나의 수행법

보현행원 체험기 – 박정준 (中)



불교는 오랜 세월에 거쳐 다져온 종교이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깨달음을 향해서 간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다양함이 장점일 수 있지만, 나 같은 초보자에겐 너무 많은 길이 놓여 있어 선택이 힘들다.

불교의 길을 가고 싶은데, 어느 길이든지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면 열심히 가려 하는데,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내 스스로 선지식을 찾아야 하는데 누가 선지식인지 알기도 어렵고, 설사 그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일개 필부에게까지 좋은 말씀을 해줄지 확신 또한 서질 않았다. 또 그런 시간을 낸다는 것 자체가 생활에 바쁜 내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망설임 속에서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며, 스승이 없어도 공부를 지을 수 있다'는 보현행원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넘쳐 나오는 보현행원의 소식. 그 소식에 환희를 감출 수 없었으며 마음 시리게 울기도 했다. 내일 모레면 지천명인데.

그러나 '보현행원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어나가야 하는지' 몰랐다. 우선 지난해 불광 30주년 기념으로 행한 이종린 선생의 보현행원 강의를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인터넷 부사모카페에 올려진 글을 읽으며 나름대로 하루하루 지어 나갔다. 카페에 올려져 있는 무비 스님의 <보현행원품> 강의도 노트에 쓰기 시작했고, 광덕 스님의 보현행원품 강의 책자를 하루에 한 품씩 읽기도 했다. 그리고 <실천보현행원>(불광출판부)을 보며 한 달여를 지내니, 행원 수행이 그리 어려울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면서 '하는 행마다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서원을 세우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분들께 고마워하고 칭찬하며, 잘못한 일이 있을 땐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는 보현행원 수행은 초보자인 나를 환희롭게 만들었다. 또 행여나 기회가 있어 수행하게 된다면, 공경과 찬탄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좌선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특히 '내가 부처이니 부처의 길로 가면 되는 것이니, 매사에 감사하고 중생을 찬탄하는 것이 부처님의 행'이라는 수행에 대한 확신은 내게 큰 힘이 됐다. 일상의 삶만 아니라 수행도 업장참회나 깨달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와 찬탄하는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이 보현행원은 인생의 큰 빛으로 다가왔다. 늘 어렵게만 생각되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불교. 그리고 깨달음을 향해 가야할 고난의 길과 긴 세월들. 하지만 지금은 그 길이 그렇게 멀게만 보이지 않게 됐다.

사실 아직도 부처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는 줄 잘 모른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가야할 길을 어렴풋이나마 그려 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설파하신 말씀, '이미 성불은 이루어졌고 이 세상 모두가 본래 밝고 청정한 부처이니 단지 눈을 뜨기만 하면 되고 부처로 살아가면 된다'는 그 길은 바로 일체 중생을 섬기고 찬탄하며 공양하는 보현행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단순한 몇 가지 행으로 모든 생명이 희망과 용기를 얻으며 환희 속에 성장하는 것이다. 아직도 내 생활에서 크게 익숙하지 못한 보현행원이지만 매일매일 실천해 가기로 했다. (계속)

인터넷 강의 샅샅이 · 책 닥치는 대로 공부
'수행은 어렵다'는 편견 깨고 확신 얻어

'자비 손'으로 몸 쓰다듬어 보세요



자비수관의 첫 단계인 좌선.



두번째 단계인 행선.



수행일기를 통한 점검.

'지운 스님이 지도하는 자비수관 수련회' 현장

'자비수관(慈悲手觀)'. 일반 불자들에게 생소한 수행법이다. '도대체 자비의 손은 무엇이고, 그것으로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과연 이 수행법의 원리는 무엇이며, 또 왜 하는지 등 자비수관에 대한 의문표는 계속 꼬리를 문다.

자비수관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저자이면서 전통 강원에서 학인을 가르치고 있는 지운 스님(대구 동화사 강주)이 5년 전에 창안해 지도하는 수행법이다. 8월 20~23일 충주 봉은사(주지 자일)에서 지운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자비수관 수련회' 현장을 찾았다.

'마음의 문' 스르르 열리는 경험

#체험사례1 자비의 손으로 내 몸을 쓰다듬자 팔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듯했다. 머리와 몸통도 없어져버린 듯 텅 빈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경험을 하니 자비 손의 흐름은 몸 구석구석 걸림 없이 흐르듯 움직였다. 그러자 몸에서 온갖 현상들이 일어났다. 시원함 질투 통증 등이었다. 즉각적으로 그 현상들을 '삼법인'으로 알아차렸다. 일어난 현상들은 흘러가는 영상들일뿐 지속적이지 않고, 고통은 몸에 대한 집착 때문이라는 것, 바로 무상(無常)과 무아(無我)의 원리 체득이었다. 내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경험이었다. **(장세레나 · 39 · 경기 용인시 상현동)**

마음에 따라 몸 변화할 수 있다

#체험사례2 자비수관은 '그때뿐인' 알아차림을 일상에서의 그것으로 만들었다. 생활 속에서도 몸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는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자비의 손으로 신체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이미지 연상 수행은 몸에서 생기는 불쾌함과 피곤함을 상쾌함과 개운함으로 바꿔놓았다.

몸에 대한 인식 전환은 10년간 앓던 당뇨병 완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했다. 몸은 마음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과 본래 '몸은 비어 있다'는 것을 정념으로 꿰뚫어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박성하 · 42 · 대구 달서구 성당동)

▲좌선(坐禪)→행선(行禪)→점검

8월 22일, 충주 봉은사 법당에 들어서자마자 좌선에 든 참가자들의 손 모양부터 살폈다. '자비수관'이란 독특한 이름 때문이었다. 비로자나불처럼 양 손을 맞잡은 금강결인(金剛結印)을 했을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일반적으로 좌선할 때의 손 모양(禪定印) 그대로였다.

의문은 40분 좌선 끝에 이어진 행선시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제각기 다른 속도의 발걸음으로 법당 안을 오가는 것이나, 발뒤꿈치 감각에 집중하며 감각의 변화에 몰두하는 모습은 여느 행선과 다를 바가 없었다.

두 시간이 지났을까? 지도법사 지운 스님이 두툼한 원고뭉치를 들고 상석에 앉았다. 참가자들이 하루하루 직접 쓴 자비수관 수행일기였다. 이어 스님은 참가자들의 수행일기를 일일이 한 줄 한 줄 읽으며, 수행점검에 들어갔다. 자비수관에서 웬 수행일기? 일단 궁금증을 잠시 접고, 현장에서 오가는 문답을 들어보기로 했다.

"자비의 손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차근차근 자비의 손으로 몸을 쓰다듬어보세요. 자비의 손은 의식을 움직이는데 그 역할이 있어요. 하나의 방편인 거죠. 그 방편에 너무 신경 쓰면, 정작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놓치게 돼요. 안 보인다고 조바심 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바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세요."

점검 내용은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의 수행경험 공유로 이어졌다. 연신 "그랬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소리가 앉은 자리에서 터져 나왔다.

▲'자비의 손'은 '마음의 손'

"자비수관의 손은 집중의 한 표현으로 법이 나타나게 하는 도구죠. 자비는 나타나는 법(法)을 가로막은 업(질투, 자만, 성냄, 해침, 거침, 폭력 등)을 녹여요. 그리고 관은 관조(觀照)로서 '자비 손'의 도움으로 대상을 꿰뚫어 삼법인을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어울려 하나로 작용해서 법을 체득하면,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죠."

지운 스님의 자비수관에 대한 설명이다. 자비의 손은 '마음의 손'이란 것이다. 의식을 움직이게 해 몸에 영향을 줘, 그 반응을 삼법인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이 자비의 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참가자들의 체험에서도 이 같은 원리는 그대로 확인됐다. 자비수관 수행 3개월째인 류승환(47 · 대전 대덕구 중리동)씨는 "자비수관은 그간 가졌던 심리적 억압과 부정적 감각을 자비심으로 엷애, 자기 긍정의 에너지를 얻게 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천주교 신도인 한성국(60 · 서울 서초구 우면동)씨도 마찬가지였다. 한씨는 "자신의 몸을 통해 삼법인의 현상을 직접 알아차리게 되면서, 몸이 곧 마음의 현상임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위빠사나 · 사마타 원리와 닮은꼴

그럼 자비수관의 원리는 무엇일까? 지운 스님은 자비수관의 출발은 위빠사나(觀)와 사마타(止:정신집중)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즉 자비의 손을 만든 것은 고도의 정신집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사마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위빠사나는 자비의 손으로 일어난 몸의 반응을 삼법인의 현상으로 확인한다. 그 방법이 알아차림(정념)이고,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그 알아차림이 결국 지혜로 바뀐다는 것이다.

"'자비의 손'을 빌려 몸이 갖는 땅, 물, 불, 바람의 4대(大)와 공(空)의 성품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 자비수관이에요. 그 '자비의 손'으로 5대라는 성품을 직접 대면하면, 몸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실체가 없는 공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아가 본래 존재한 적이 없는 무아의 지혜가 생기게 돼요. 자비심에 의해서 몸속의 생명에너지는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이 돼 업이 바뀌면서 깨어나죠."

그렇다면 몸에 대한 관찰이 깊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스님은 '지→수→화→풍→공'의 순서로 관찰이 깊어지면, 관하는 마음이 부분에서 전체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관자재(觀自在)로 가는 방편이 되는 것으로, 자비의 모습인 5대의 손이 지, 수, 화, 풍, 공에 관계되는 업장을 소멸시켜 몸을 정화해서 몸의 고통과 속박된 마음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의식이 청정해진다는 것이다.

글 · 사진/충주=김철우 기자

"몸의 부조화 사라지고 깨달음의 지혜 생겨"



인터뷰 지운 스님

"'자비 손'으로 몸을 관찰해 나가면 몸에 일어난 부조화가 사라져요. 그러면 몸이 청정해져 탐진치가 사라지게 돼 집중력과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죠. 자비수관을 창안한 까닭이 이 때문이에요."

지운 스님(사진)은 자비수관을 주창한 이유와 효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즉 조용한 장소에서 집중력을 요하는 다른 수행법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자비수관은 비교적 쉬우면서 단기간에 몸과 마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그럼, 자비수관을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스님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매일 10~20분씩 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수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하루 평균 두 시간 정도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주의할 점은 자비수관을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해요. 무심(無心)하게 하세요. 의도적으로 하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에요. 자비심 없어 치병의 의도로 한다면, 자비심도 안 생기고 삼법인도 관찰되지 않아요. 어머니의 손을 빌려와 자신의 실제 몸을 쓰다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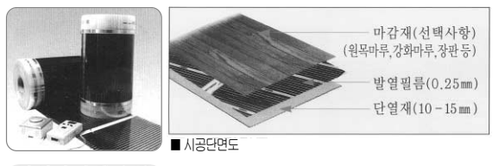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8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9. 5 월 · 화반, 수 · 목반, 금 · 토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9월 5일 개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 동구 좌천동 567-2 다전리치텔 1004호 (좌천역 1번 출구)
문의 :018-312-7110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2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교육장소	동산 법당 (동산불교회관)
3.개강일시	2005년 9월 7일(수요일) 오후 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90,000원(3개월)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반 야 회

유식학특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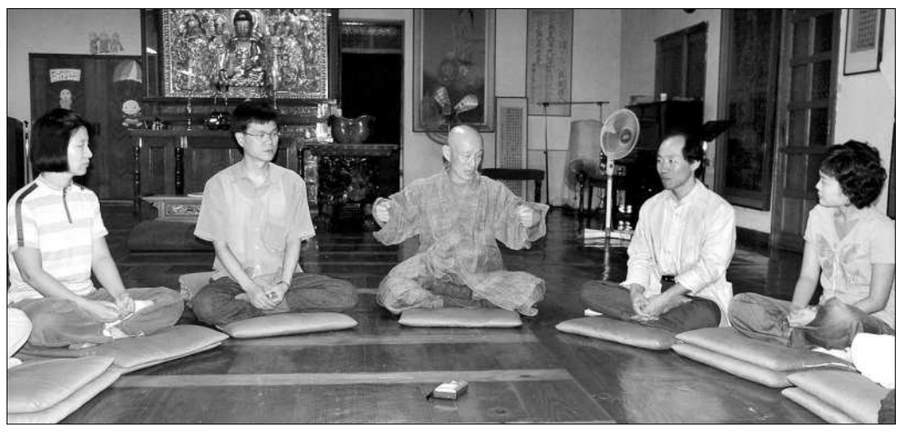
본원에서는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님과 불교대학원 원장님을 역임하신 오형근 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유식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인간의 정신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문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근본이 되기도 하고, 윤회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유식학입문>의 저자이신 오형근 박사님과 함께 유식학을 공부하면 마음의 심오함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유식학 특강
강 사 | 오형근 박사님
개강일시 | 2005년 9월 3일 오후 2 ~ 4시 (매주 토요일)
수 강 료 | 월 5만원
장 소 |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대학문화원 (앰버서더호텔 바로 옆) -동대 전철역에서 7분 거리-
문의전화 | 02)2264-7120

대승불교연구원
대승기신론 수강생 일동

근기 맞게 다양한 수행법 지도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⑪ - 청주 대한불교수도원 직지선방



직지선방 원장 설곡 스님이 참선을 마친 불자들에게 수행자의 자세에 대해 소참법문을 하고 있다.

"어느 날, 객이 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

"…."

직지선방 원장 설곡 스님이 이 이치를 묻자, 답하는 대중들이 없었다.

"선(禪)은 모르는데서 시작해요. 선은 알려고 하는 것도 앎의 대상도 아니지요. 그럼 얼마만큼 몰라야 할까요? 철두철미하게 몰라야 해요. 은산철벽처럼 확실히 몰라야 해요. 이렇게 '모름의 작업'을 하지 않고, 매일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해요. '참나'를 바로 찾아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살면, 그야말로 동물적 삶이죠. 선공부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소참법문으로 공부 점검

8월 23일 오후 7시, 청주 대한불교수도원 직지선방. 재가선객 10여 명이 50분 참선정진, 10분 포행이 끝나자, 설곡 스님의 소참법문(小參法門: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선법문)이 바로 이어졌다.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으면 마음공부 못해요. 머리에 붙은 불 끄듯이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공부가 되겠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해요."

경책과 당부는 간절했다. 매주 화요일 한 차례 모이는 재가선객들의 참선모임이지만, 마음공부에서만큼은 출·재가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스님의 수행관이 배어있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의심이 솟구쳐야 해요. 그래야 의심의 농도가 짙게 돼 공허함을 경계할 수 있죠. 그러면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있게 돼, 예리한 칼날이라도 그 화두 의심으로 들어설 수 없지요."

#경계를 만나면 경계를 바로 본다

그럼, 직지선방에서 수행해온 재가선객들은 어떤 자기변화를 경험했을까?



참선 정진 하고 있는 직지 선방의 재가불자들.

6년째 참선수행 해온 홍진숙(43 · 청주 상당구 수동)씨는 "선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계를 받아도 덜 받고, 갖고 있어도 그 기간이 짧아졌다"며 "경계에 부딪쳐도 그것을 바로 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호복(42 · 청주 상당구 우암동)씨의 경험담도 마찬가지였다.

"'놓아버려라!'는 스님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었죠. 마치 '너는 누구인가?'란 물음과 같았어요. 사실 선수행을 하면서 경계가 올 때마다 두려웠어요. 또 마음자리부터 흔들리는 내 모습도 걱정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한 물건'을 찾는 화두 참구과정을 멈출 수가 없게 됐죠. 후퇴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을 한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불상에서 배웠어요. 어느 누군가가 와서 깨부수려고 해도 꿈쩍 않는 불상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죠."

#54년 역사의 재가 수행도량

청주 대한불교수도원 직지선방은 지난 1952년에 문을 연 역사가 긴 시민선방이다. 한국전쟁 중에 개원한 직지선방은 '선(禪)의 냄새마저 사라진 충북불교계에 선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창건주 벽산 스님의 서원이 담겨 있다. 은해사 주지 법타,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도 출가 전에 이곳에서 정진했었다.

이 같은 재가자 도량으로서의 가풍은 선방의 지리적 여건에서도 확인된다. 열 걸음 들어서면 산사 같고, 열 걸음 나서면 도심 같은 도량의 위치가 바로 그것이다. '산중불교'의 경건성과 '도심불교'의 활발함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직지선방의 수행 분위기는 자유롭다. 현대인이 겪는 자기존재에 대한 성찰, 동시대의 문화흐름 속에서 불교수행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히 수행프로그램에 담아내고 있다.

이를 위해 직지선방은 지난해 겨울에 선 체조도 도입, 몸 수련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신체의 건강함도 중시하면서 참선정진을 하기 위해서였다.

직지선방은 특히 간화선 수행법 외에도 초심자들의 근기와 인연에 맞게 다양한 수행법을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설곡 스님은 재가불자에게 맞는 위빠사나, 경전공부 등을 간화선 수행의 공부과정으로써 병행할 것을 권하며 수행의 기초를 다지게 한다.

직지선방 법우회장 이성도(51) 한국교원대 교수는 "선방에서는 간화든 묵조든 위빠사나든 수행법에 제한 없이 특정한 수행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며 "누구든지 침묵과 고요 속에서 정진하고, 부담 없이 다음 주에 다시 올 수 있게 만드는 수행분위기가 바로 직지선방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www.bsdw.net (043)256-2655

글 · 사진/청주=김철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금강선원, 선하불교대 · 기초참선반 개강

금강선원은 9월 5일 서울 개포동 선원 법당에서 21기 선하불교대학 신입생 및 7기 기초참선반 개강식을 개최한다.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불교대학과 기초참선반은 오전 10시~오후2시, 오후 8~10시에 각각 실시되며, 지도는 선원장 혜거 스님이 맡는다. 동참비는 불교대학 6만원, 참선반 10만원. (02)445-8484

한국위빠사나선원, 기초과정 지도

한국위빠사나선원은 8월 22일~10월 12일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5시 총 14회에 걸쳐 제7차 위빠사나 기초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제7차 초보자 과정은 호흡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느낌을 알아차리고 또한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을 배울 수 있다. 또 위빠사나 기초수행법도 직접 지도받을 수 있다. (02)512-5258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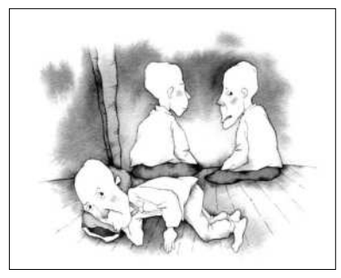
<32> 선사들의 수다

함께 만행길 떠난 덕산 선사 제자 셋
'수처작주' 의지 수다로 우회 표현

지대방 한담은 성역이 없다. 위로는 불조부터 아래로 행자까지의 야사(野史)를 다루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방위로 터치하다가 사이사이에 우스개 소리로 양념도 한다. 잡담은 머릿 속을 어수선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또 법담으로 이어질 때는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선어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해제 후 마음맞는 도반끼리 함께 만행길을 나서는 것은, '벗이 수행의 전부'라는 부처님 말씀을 빌리지 않더라도 출가생활의 큰 즐거움이다.

하지만 '떨어져서는 죽고 못 사는' 어느 도반이 인도로 배낭 성지순례를 같이 갔는데 '나갈 때는 함께 가더니 들어올 때는 각각 오더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척박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맞추어 가며 긴 시간을 함께 다닌다는 것이 어찌 녹록한 일이겠는가.



덕산 선사 밑에서 공부한 설봉의존(雪峰義存 822~908)스님과 암두전활(巖頭全豁 828~887)스님, 흠산문수(欽山文邃 생몰연대미상) 스님은 자주 함께 다녔다.

어느 겨울날 폭설을 만나 외딴 암자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몇 날밤을 같이 지냈다. 고지식한 암두 스님은 내내 꼿꼿이 앉아 좌선을 하였고, 느긋한 설봉 스님은 맨날 누워서 잠만 잤다. 보다 못한 암두 스님이 "흠산 스님과 행각할 때도 곳곳에서 누를 끼치더니, 또 잠만 자면서 나를 번뇌롭게 한다"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설봉 스님은 "맨날 참선한다고 폼만 잡고 있으니 뒷날 사람들 꽤나 흘리겠다"고 덜 깬 목소리로 한마디했다. 지청구에 못 이겨 자다가 일어나 눈을 비비며 하품 속에서 내뱉은 말이겠지만 언중유골(言中有骨)이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객실에서 함께 묵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각각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게 되었다

먼저 암두 선사가 말했다.

"조그마한 나룻배를 하나 얻어 낚시꾼과 함께 앉아 한 평생을 보내고 싶다."

별다른 욕심도 없고 은둔자적인 기질이 다분하다. 아니나 다를까, 뒷날 법난을 만나 속복차림으로 악저호에서 뱃사공 노릇을 하였다. 어쨌거나 타고난 품성 자체가 소박한 것 같다.

이어서 흠산 선사가 말했다.

"큰 도시에 살며 절도사에게 스승의 예우를 받으면서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평상에 앉아서 금 그릇 은 그릇에 담긴 밥과 찬을 먹으면서 한 평생을 지내고 싶다."

누군들 이런 마음이 없겠는가. 그런 속마음과는 달리 선종의 '무소유'라는 가풍 속에서 이런 불온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흠산 선사는 어찌 보면 자기의 본마음을 남에게 억지로 가리지 않겠다는 그 순수함이 오히려 돋보이는 면도 있다.

마지막으로 설봉 선사가 말했다.

"네 거리에 선원을 세우고 대중을 법답게 공양을 시키겠다. 만약 어떤 납자가 길을 떠나면 내가 바랑을 메고 지팡이를 들고서 문 밖까지 잘 전송하고 그가 몇 걸음을 디디면 '아무개스님' 하고 부르고 나서 고개를 돌린다면 '먼 길에 조심 하십시오' 라고 하리라."

그 말대로 그의 회상은 융성한 총림을 이루었고 많은 납자들을 제접하면서 살았다.

이 세 선사의 수다를 종합한다면 '슈퍼승려'상(像)을 각각 나누어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때로는 도가적인 은둔자풍으로도, 때로는 유가적인 벼슬살이풍으로도, 때로는 불가의 청정승가 구성원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양한 중생세계 속에서 어떤 곳에 살더라도 수처작주(隨處作主)해야 함을 각자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리라.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Sale! 과일의 왕 두리안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www.durianshop.com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미륵은 진정 우리 곁에 있는가
합체의 신간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원통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이 책이 던지는 여덟 가지 질문
1 아함경에서 설하는 인수 팔만 사천 세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소승경전의 무상성과 대승경전의 항상성은 어떠한 관계인가?
3 12연기법의 무명과 대승불교의 광명사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4 법화경의 일불승 사상은 중생이 부처되는 교설인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5 화엄경의 세계는 실세계인가? 아니면 상상의 세계인가?
6 주역에서 설하는 선천 · 후천의 개벽사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은 무엇인가?
7 극락세계는 진정코 서방세계에 있는가?
8 최근에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책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덟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립니다.
원통 지음 | 신국판 | 394쪽 | 값 9,600원
미륵불은 한 사람이 성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6불과 당신 스스로를 포함하여 현세 7불의 본말을 밝혔듯이, 미륵이 오실 때도 7불의 처음과 끝을 밝힌다고 하셨는 까닭에 미륵불은 6명의 도통을 이어서 7번째로 완성하심을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다. 이제 일곱 분의 도통 연원과 의의를 밝히며 비로소 드러나는 진眞 대승불교의 일불승 사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구입문의 : 해조음 053) 624-5586
[해조음 海潮音]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00-6 불교대구회관 2F Tel 053-624-5586 Fax 053-624-5587 E-mail bubryun@hanmail.net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5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강 혜능의 혁신, 자성불(自性佛)의 제창

번뇌, 지혜, 그리고 불성 사이

혜능은 불성을 전면에 세움으로써 돈교의 가르침을 제창했다. 자성불(自性佛), "너는 이미 부처이다"가 이후 선의 표어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전폭 신뢰함으로써 그는 불교사의 한 기원을 열었다.

그런데 이 불성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솟아나 본래의 빛과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할 것이다. 바탕인 불성과 장애물인 번뇌,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는 지혜는 불교의 삼각코드라 할 수 있는데, 혜능은 이 관계를 금강과 영양각, 빈철의 삼각관계에 빗대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왜 <금강반야바라밀>이라 했을까

9. "우리 석가 본사께서는 <금강경>을 사위국에서 설하셨다. 수보리가 물음을 제기한데 인연하여 대비(大悲)로 설하셨는데 수보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부처에게 이 법(法)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청했는데, 후인들로 하여금 수지(受持)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경은 말한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고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다. 너는 이 이름으로 마땅히 봉지(奉持)하라.' 여래가 그 법에 어째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금강(金剛)은 이 세상의 보물로, 그 특성이 매우 날카로워 능히 무엇이든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我釋迦本師說金剛經在舍衛國. 因須菩提起問, 大悲爲說. 須菩提聞說得悟, 請佛與法安名令後人依而受持, 故經云佛告須菩提. 是經名爲金剛般若波羅密, 以是名字汝當奉持. 如來所說金剛般若波羅密, 與法爲名. 其意謂何. 以金剛世界之寶, 其性猛利能壞諸物.)

–앞에서 적었듯이 금강은 1) 지극히 견고하고, 2) 지극히 예리하며, 3) 지극히 비싼 물건이다. 우리 마음속의 불성(佛性)도 또한 그렇다. 혜능은 여기서 금강을 반야(般若)의 특성으로 읽기보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한 영원의 불성의 상징으로 본다. 이 해석은 통념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사람들은 이 해석 앞에서 혜능이 불성을 실체화 절대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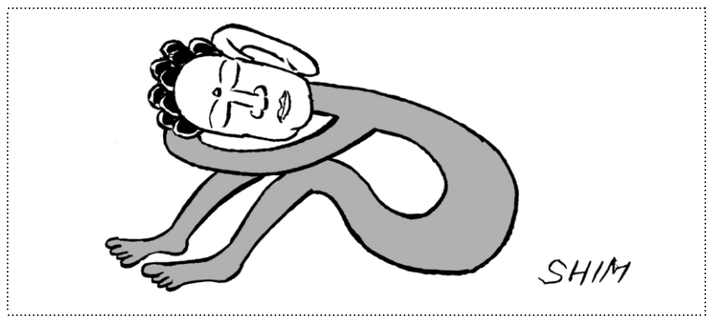
이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혜능의 말을 더 들어보기로 하자. 다음은 그의 독창적 비유이고 해석이다.

금강과 영양각, 그리고 빈철 사이

10. "쇠(金)가 비록 지극히 견고하나, 영양각이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 (여기) 금강(金剛)은 불성에 비유했고, 영양각은 번뇌에 비유된다. 금이 비록 단단하나, 영양각이 능히 부술 수 있다. 불성이 비록 견고하나, 번뇌가 능히 어지럽힐 수 있다. 번뇌가 비록 견고하나 반야가 능히 부술 수 있다. 영양각이 비록 견고하나, 빈철(賓鐵)이 능히 깨트릴 수 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뚜렷이 자신의 본성(佛性)을 본 것이다." (金雖至堅, 羚羊角能壞. 金剛喩佛性, 羚羊角喩煩惱, 金雖堅剛, 羚羊角能碎. 佛性雖堅, 煩惱能亂. 煩惱雖堅, 般若智能破. 羚羊角雖堅, 賓鐵能壞. 悟此理者了然見性.)

–이 비유는 다시 말하지만 혜능의 독창이다. 새로운 비유와 상상력을 통해 그는 한 스타일을 만들었다. 불교의 삼 요소는 다름아닌 불성과 번뇌, 그리고 지혜이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불성은 목표, 번뇌와 무지는 문제, 그리고 반야는 방법에 해당한다. 이들 사이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안목에 따라 서로 다른 불교가 펼쳐졌다. <대승기신론>은 이 세 축을 각기 본각(本覺), 불각(不覺), 시각(始覺)으로 설정하여 불교의 원리와 구조를 보여주고 있던 것을 기억한다.

좀 거칠지만 이렇게 단순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붓다 초기에는 문제에서 출발해서 방법으로 나아갔다면, 아비달마와 유식은 문제의 분석에 치중했고, 중관은 세 번째 '지식'의 성격과 발휘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원효가 <대승기신론>을 주목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 짧고 간결한 저작이 위의 세 항목 전체를 유기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는 <소(疏)>와, <별기(別記)>에서 그 구조와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의 분석' 쪽에 더 깊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이장의(二障義)>라는 책을 따로 썼다. <대승기신론>에서 '무지로 오염된 마음(不覺染心)'의 모습으로 제시한 번뇌애(煩惱碍)와 지애(智碍)에 대한 상세하고 독창적 해석이 여기 담겨 있다.



혜능의 혁신, 금강불성(金剛佛性)

–이에 대해 혜능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는 불각(不覺)의 어둠을 분석하거나, 시각(始覺)의 훈련을 강조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본각(本覺)에 철저하다! 인간의 바탕은 번뇌와 망상의 기름띠에도 불구하고 본래 광명을 발하고 있다는 믿음, 그 돈오(頓悟)의 정신에 충실했던 것이다.

이 강조는 자칫 점수(漸修)의 수련을 소홀히 하고, 창광자자(猖狂自恣)의 광태로 흐를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을 존중하겠는가. 인간의 몸은 그 자연 속에 고유한 이성이 거주하고 있다. 그 소리에 다만 귀를 기울이면 거기 모든 것이 있지 않을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혹시 열등감과 오만의 자의식일 때가 적지 않다. 방하(放下), 즉 놓아줄 때 일은 스스로를 만들어 가고, 잊어버림으로써 우리는 기억한다.

–혜능은 내 속의 이성의 빛, 그 불성이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나, 번뇌의 바람에 이리저리 어지럽게 흔들린다고 말한다. 그건 더 설명이 필요없이 누구나 알 수 있다.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일상이기 때문이다. 그 쳇바퀴로부터 벗어나자고, 그 윤회의 고리를 끊어보자고 우리는 불교를 찾는다.

이에 대해 혜능은 말한다. "걱정하지 마라. 불성은 어떤 번뇌나 업(業)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결코 소멸되는 법이 없으니…" 이것은 정말 정말 위대한 복음이다. 우리를 속이는 삶에 대해,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이 꺼지지 않는 불꽃에 희망을 붙든다.

그러나 번뇌 또한 두텁고 완강하다. 겹겹이 둘러싼 그 어둠은 흡사 전복된 유조선에 오염된 바닷가같다. 나는 기름에 덮인 가마우지를 볼 때마다 번뇌에 덮인 불성을 떠올리는 버릇이 있다.

그렇게 강하고 두텁고 집요한 번뇌도 그러나 불성의 불꽃에서 발하는 지혜의 공격과 정화력 앞에서 손을 든다. 역시 관건은 지혜이다. "마하, 반야, 바라밀!"

11. "<열반경>에 이르기를, '불성(佛性)을 본 사람은 중생이라 하지 않는다. 불성을 보지 못한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고 했다." (涅槃經云, 見佛性者不名衆生, 不見佛性是名衆生.)

–혜능의 돈오관이 여기 드러나 있다. 부처와 중생은 '마음'의 한 '특성'을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렸다. 그 갈림길은 한 순간에 결정된다. 그 존재물음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를 다그친다는 점에서 견성(見性)은 끝나지 않는 도정이다. 혜능의 자성불(自性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중생으로서 저 멀리의 부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부처와 중생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시계추들일 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암두 전활(巖頭全豁 828~887): 당대 스님, 덕산 선감(德山宣鑑)의 법을 이음.

네티즌 교리문답

선가에서 면목(面目)이 무슨 뜻입니까?

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잘·잘못을 했을 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자네의 진면목을 보여줬네"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고 있는 면목의 의미는 '체면' '남에게 드러낸 얼굴'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면목'이란 말이 선가에서도 쓰인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궁금이)

답 1 : 면목이란 말은 '본래부터 지닌 맑고 깨끗한 성품' '체면·남에게 드러낸 얼굴'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본래 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을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깨끗하고 맑은 진수(眞髓)를 일컫는 말로 '불성(佛性)'과 같이 쓰입니다.(스님네)

답 2 : '본래의 면목'을 중시한 대표적인 조사(祖師)는 육조 혜능(慧能) 스님입니다. 혜능 스님은 천민출신으로 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스승인 5조 홍인(弘忍) 스님으로부터 가사와 발우를 전해 받습니다. 이처럼 혜능 스님이 홍인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는 계기도 '본래의 면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보면, 혜능은 매우 어리고 누추한 모습으로 홍인대사의 방을 처음 찾았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영남(嶺南)에서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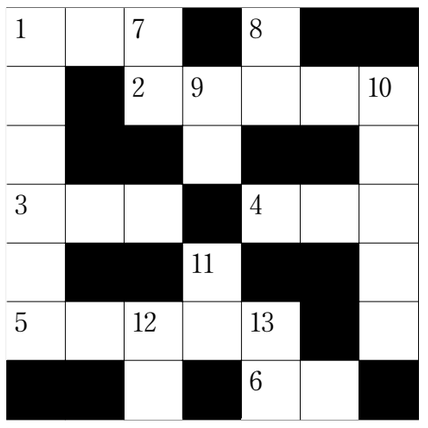
"영남이라면 보잘 것 없는 천민지역 사람이군. 그런 곳 사람이 어찌 부처가 되겠다는 꿈을 꾸는가?"

"사람은 남쪽에서 살기도 하고 북쪽에서 살기도 하며 북쪽 사람은 상류층의 대접을 받으나 남쪽 사람들은 천대받는 소외 계층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성(佛性)이야 남과 북, 부자와 천민,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불성을 얻으러 왔습니다."

면목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여 거짓이 없으니 진실불허(眞實不虛)합니다. 둥근달이 맑은 물에 비치면 맑고 아름답게 비칩니다. 그러나 찌그러진 그릇에 탁한 물을 담아 보면 달은 찌그러지고 더럽게 비치지요. 진면목도 그와 같아서 사람마다 면목은 같지만, 그 면목을 지키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목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면목이 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면목 없는 짓을 하지 말고, 면목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혜능맨)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사찰 내에서 전각이나 산문 외에 스님들의 생활과 관련된 건물 2. 광주리에 채소·어물 따위를 담아 이고 다니며 파는 사람 3. 낭만파시대에 주로 피아노를 위하여 작곡된 소곡 4. 행정부, 입법부, ○○○ 5. 수표(手票)나 어음의 임자, 또는 그것을 받을 사람의 이름을 그 뒷면에 적어 넣는 일 6.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남'을 뜻하며 24절기의 하나로 우수와 춘분사이.

정답은 26면에

세로

1. 조선 숙종 때 박두세의 수필집으로 국가정책과 사회제도를 풍자함 7. 햇빛 등을 받아들여 실내를 밝게 함 8. 중국영화 '붉은 수수밭'의 여주인공 9. 국가의 구성요소는 ○○, 국민, 영토 10. 올빼미목 올빼미과의 조류로 천연기념물 제324호 11. 불상의 배후에 광명을 나타낸 의장(意匠) 12. 말을 번복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뜻 13. 평양의 옛 이름.

열정으로 한 평생 '나눔왕' 카네기



'평생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 는 강철왕 카네기.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19년 8월 11일 미국 메사추세츠 주의 셰도브룩에서 이 말을 끝으로 눈을 감는다. 그가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1865~191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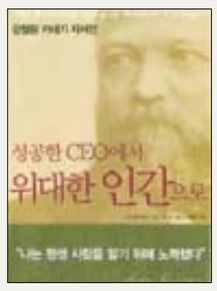
최근 카네기의 일대기를 번역해 출간한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는 성공학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카네기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앤드루 카네기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다. 그의 인생 자체가 '성공한 부자의 삶이라서가 아니라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더 진부하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본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작은 도시 덤펌린에서 태어나 13세때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동생과 함께 1848년 미국 피츠버그로 이민 길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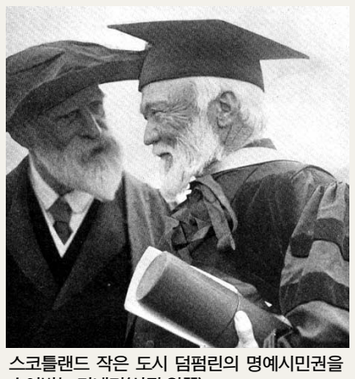
피츠버그에서의 생활은 지독한 가난과의 싸움이었다. 면직물 공장, 전신국 전보 배달원, 철도회사 직원 등을 거치며 그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꽉 붙잡았다. 그게 바로 침대차 사업과 교량회사, 유정 사업 등에 대한 투자였다. 그것들을 통해 카네기는 착실히 부를 축적해 나갔다.

인생에 큰 기회는 누구에게나 세 번은 온다고 했든가. 카네기가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데 있어 결정적인 기회는 철강 사업이었다.

새로운 시대와 미래의 트렌드를 읽으며 제철산업에 눈을 돌린 그는 1873년 몇몇 지인들과 힘을 합쳐 강철레일 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강철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피츠버그의 주요 제강업체 대여섯 곳과 연합해 1886년 홈스테드 제강소를 합병한다.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앤드루 카네기 지음 | 박상은 옮김
21세기북스 | 1만5천원



스코틀랜드 작은 도시 덤펌린의 명예시민권을 수여받는 카네기(사진 왼쪽).

그는 나아가 이 회사를 중심으로 석탄, 철강석, 광석 운반용 철도, 선박 등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철강 트러스트인 카네기 철강회사를 마침내 설립한다.

그러나 그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지 그가 대단한 부를 축적한 재산가였던 때문이 아니었다. 66세때 세계 최대 부자의 길을 내팽개치고 18년의 여생 동안 자신이 일궈온 부를 나누는데 전력을 다했다.

'앤드루 카네기 구제기금'을 설치하고, 뉴욕에만 68개의 공공도서관 분관을 짓는 것을 시작으로 영어권 국가에 총 2천509개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이른바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워싱턴에 카네기협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재산을 나눠줬는데, 그 규모가 전 재산의 90%에 이른다고 한다.

카네기의 말 … 말 … 말 …

△ 시련을 당하면 웃어 넘겨라
△ 기회 앞에서 절박하라
△ 배움을 탐하라
△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
△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자리란 없다
△ 친구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니 반드시 우정을 지켜라
△ 마음의 상처는 오직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 노동자의 마음에 답이 있다
△ 어떤 유혹에도 신념을 지켜라

평생 사람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성공 비결도 인재를 잘 가려 뽑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카네기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다양하다.

이 책도 그가 주는 메시지에 중심을 두고 읽기 쉽게 편집했다. △시련을 당하면 웃어 넘겨라 △기회 앞에서 절박하라 △배움을 탐하라 △기회는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자리란 없다 △친구를 잃는 것은 큰 손실이니 반드시 우정을 지켜라 △마음의 상처는 오직 자신만이 입힐 수 있다 △노동자의 마음에 답이 있다 △어떤 유혹에도 신념을 지켜라 등이다.

무엇보다도 카네기의 삶에서 참으로 감탄스러운 점은 항상 자신의 삶에서 무슨 대단하고 근사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이런 그의 삶은 가진 것이 없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부와 성공을 얻을 수 있는지,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의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성공학의 모범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카네기의 한 평생은 잔잔한 감동과 아울러 생에 대한 도전과 용기와 지혜를 주는 데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생각의 역사
(한 권으로 읽는 서양철학 명저 100선)
허만원 외 지음 | 주혜란 옮김
다카미네 이치구 감수
이른아침 펴냄 | 2만5천원

'철학은 어렵다. 보통 사람과는 상관없는 분야다.' 이런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철학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모르겠다' 거나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은 이런 거다' 라는 등 철학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생각의 역사>는 고대의 플라톤에서부터 현대의 마르크스까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서양철학을 시대별 흐름에 맞추어 '철학 명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100권의 명저들은 모두 인류의 정신사에 거대한 충격과 영향력을 행사한 것들이다.

우선 명저의 지은이가 살던 시대의 사회 분위기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지은이의 출생 환경과 성장 과정 등을 소개하여 하나의 철학 사상이 어떤 바탕 위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의 맥락을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원전의 충실한 해설을 기본으로 철학 사상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식으로 구성돼 있다.

독자들은 현재 우리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서양철학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새로운 사상과 철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양철학의 탄생에서 성장까지

이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철학자는 인간의 본질, 생각하는 방법, 사회의 구성 원리 등에 대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 결과 선배 철학자의 생각을 비판하는 과정이 무수히 반복됐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냈다. 철학사는 이렇듯 사람과 사회에 대한 고민의 변형과 뒤집힘의 연속이다. 그리고 철학사에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 책들은 치열한 현실에서의 고민의 결과물이다.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를 쓴 <크리톤>에는 유명한 '악법도 법'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나온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크리톤은 독배를 마시게 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뇌물을 쓴다. 크리톤은 돈을 아끼려고 친구의 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었다고 감옥에 찾아와 소크라테스에게 말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판이 아니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네. 열의는 알겠지만 거기에는 정직함이 수반돼야 하네. 바르게 사는 사람은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여기에서 도망치는 것은 법률과 국가 전체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는 짓이 되네. 한 개인에 의해 판결이 멋대로 파기되는 나라는 하루도 존립할 수 없다네. 결혼, 양육을 관장하는 국법은 국민의 어버이 같은 것이고,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네"라고 설득했다.

윤리 교과서에 나왔던 '악법도 법'이란 말에는 이처럼 삶의 방법과 국가관이 종합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일반인은 철학에 관심이 있더라도 대개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해한다. 이 책은 이런 막막함을 해소해주고 실제 원서를 접하는 두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서양 사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경석(충남대 철학과 강사)

불경, 금책, 금병풍



실물크기(3.5×5cm, 5×7cm)
금강경 24매 ·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관세음보살 보문품) 2폭금병풍 크기 (1폭 가로37cm 세로74cm) (광명진언 지장본원경)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호신용 소장용 영가천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순도의 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개인 소장용으로 기도정진 재례용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최고급 금병풍(관세음보살보문품, 광명진언 지장본원경)도 제작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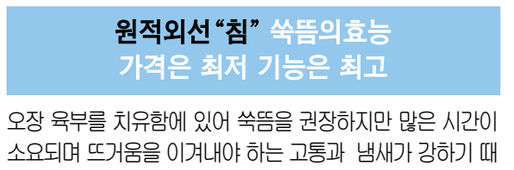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돌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산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하신 분

원적외선 "침" 쑥뜸의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다용도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저렴한 가격의 은행석 온열복대 사용으로 건강을 지키고 암과 질병 등을 예방하고 장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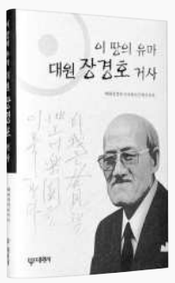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재가불교 운동의 거목 장경호 거사 삶과 수행

1백여만부에 이르는 불교서적 출간, 50여 곳의 군 법당 건립, 불교방송 설립 지원, 최초의 불교 교양대학 설립, 대한불교진흥원 설립…. 우리 불교사에 남겨진 이 같은 발자국들은 하나같이 동국제강 그룹 창업주인 故 장경호 회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장 회장 입적 30주기를 맞아 그의 일생과 수행 과정을 담은 평전 <이 땅의 유마, 대원 장경호 거사>가 출간됐다. 평생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에 매진하고, 이 땅에 불국토(佛國土)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한국 재가 불교 운동의 사표로서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899년 부산에서 태어난 장경호 회장은 17세 되던 해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됐다. 이후 3 · 1운동에 참여한 뒤 경찰에 쫓겨 일본으로 건너간 장 회장은 그곳에서 종교서적을 탐독하며 '불교'를 다시 만난다.



이 땅의 유마, 대원 장경호 거사
대원장경호거사
평전간행위원회 엮음
대원사 | 1만원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 노릇 하겠구나'라는 결심으로 고국에 돌아 온 그는 통도사 구하 스님에게 '만법귀일(萬法歸一) 일귀하처(一歸何處)'라는 평생의 화두를 받았다.

27살에 처음으로 통도사에서 안거를 난 후 "상업에 종사해 크게 돈을 벌어 불교에 바치겠다"고 맹세한 그는 1929년 첫 사업체인 대궁양행을 설립한다.

이후 점심 한 끼 사 먹지 않고,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 쓴 장 회장의 노력 덕분에 이 사업체는 오늘의 동국제강으로 거듭났다.

그는 사업가로서 뿐만 아니라 재가 수행자로서도 뒤지지 않는 구도열을 내뿜었다. 만공 한암 스님을 찾아 깨달음의 길을 구했고, 평생 정월 초하루 불공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나이 육십이 되면 사업에서 물러나 수행에 전념하겠다'던 결심을 잊지 않고 62살이 되던 1960년부터 10여 년간 부산 금정산 무위암에서 안거를 지낸 일은 깨달음에 대한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대중 포교에 미친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문서포교를 위해 불서보급사를 설립하고 불교서적을 펴냈으며,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대원정사를 건립해 도심포교의 거점으로 삼고 불교계 최초의 불교전문 교양대학과 시민선방을 개원했다. 갑작스런 췌장암 선고에도 그는 목숨을 부지할 생각보다 포교를 고민했다. 그가 '불교 중흥을 위해 써달라'는 유언과 함께 남긴 사재 30억원은 대한불교진흥원 건립의 초석이 돼 포교 현장에 두루 그 빛을 발하고 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이(不二)의 철학으로 동국제강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하고, 대중포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장 회장. 평전을 통해 장 회장의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는 굳은 신념과 초심을 잃지 않은 한결같은 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 (02)737-0695



달라이 라마 평전
질 반 그라스도르프 지음
백선희 옮김 | 아침이슬 | 1만5천원

티베트를 모르고 어찌 달라이 라마를 말하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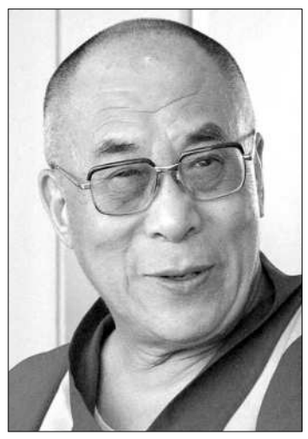
"또 달라이 라마야?"

많은 사람들이 책 제목을 보고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달라이 라마는 평화나 자비, 관용, 명상, 깨달음 등의 단어로 포장된 채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으로 검색되는 국내 번역본만 50여 종이 넘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상품성'이 뛰어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묻는다. 당신은 달라이 라마와 그의 조국 티베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고. 또한 티베트인들에게 달라이 라마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느냐고. 달라이 라마의 행동 하나, 말 한 마디에 담긴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를 키워낸 티베트와 그 문화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이 책을 말한다.

티베트 전문가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질 반 그라스도르프는 1993년부터 10여 년간의 방대한 자료조사와 주변인물과의 인터뷰, 대담 등을 통해 한 권의 평전을 탄생시켰다. 기존의 달라이 라마 관련 서적들이 그의 법문이나 수행법만을 다루었던 것에 반해 이 책은 단순한 개인의 삶을 되짚어간 전기가 아닌, 달라이 라마를 통해서 본 티베트의 정치 · 종교적 현실을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가치를 가진다.

티베트인들의 영적 ·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달라이 라마'는 14대 달라이 라마 텐진 갸초(사진)에 의해 세계 평화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조국 티베트가 권력의 폭압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13대 달라이 라마가 통치하던 이전 시기까지만 해도 티베트는 자신들만의 문화와 역사를 가진 독립 국가였다. 자연히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도 티베트인들에게서 벗어나지 않았고, 벗어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1933년 제13대 달라이 라마의 열반 후, 티베트는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다. 독립을 원하는 티베트인과 티베트를 자국의 영토로 묶어 두려는 중국인 사이에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기운이 팽배했다. 그 어떤 사람의 희생도 원하지 않았던 텐진 갸초는 피난길에 올랐고, 인도 다람살라에서의 고달픈 망명정부 생활이 시작됐다.

'세계 평화의 상징' 되기까지
티베트 정치 · 종교적 현실 분석
고뇌하는 인간적 면모 드러내

하지만 소수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는 달라이 라마의 역할과 위상도 바꾸어 놓았다. 용서와 자비, 대화와 비폭력으로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를 얻고자 했던 달라이 라마는 전 세계를 방문해 이를 알렸고, 비폭력-평화주의의 사절로서 1989년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 이제 티베트인만의 지도자가 아닌,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조국은 독립되지 못하고 있다.

책에서는 13대 달라이 라마의 열반에서 시작해 텐진 갸초의 탄생과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선정돼 교육을 받는 과정, 수많은 수행자들을 이끌고 인도로 망명하게 되기까지의 70여년을 연대기적으로 엮었다. 여기에 주변국과의 갈등과 티베트인들의 생활상, 신탁과 환생 등 티베트 불교의 특징도 생생하게 그려놓았다.

'정치적 미스터리와 영적 카리스마의 비밀'이라는 책의 부제에서 보듯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 고뇌하는 정치인이자 수행자로서의 달라이 라마의 모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위빠사나 수행 이렇게

"왜 수행합니까? 어떻게 수행합니까? 수행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태국의 선사 아잔 차 스님(1918~1992)은 이렇게 답했다.

"왜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잘 먹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좌부 불교의 대표적인 선사로 알려진 스님은 평생을 고향 근처의 숲에 머물며 잭 콘필드와 조셉 골드슈타인, 샤론 잘즈버그 등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아잔 차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의 핵심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라'는 것이다. 스님은 아무 것도 붙잡지 말고, 심지어 깨달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잔 차 스님의 오두막
잭 콘필드 · 폴 브라이터 지음
침묵의향기
8천5백원

이를 위해서는 호흡을 지켜보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꾸준히 '알아차림(mindfulness)'을 연마해야 한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감정, 즐거움과 고통을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놓아 버리는 것이다.

1997년 <고요한 숲속의 연못>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을 새롭게 번역한 <아잔 차 스님의 오두막>은 바로 이러한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지침서다. 관념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수행할 것을 강조한 스님은 쉽고 평범한 언어로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



1186년 지어진 앙코르 타 프롬 사원.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무뿌리에 둘러싸여 버린 이 불교사원에서는 '폐허의 미학'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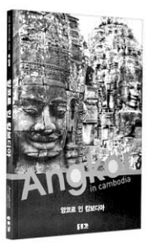
'폐허의 미학' 숨이 멎는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앙코르 사원 여행지침서

캄보디아 앙코르 타 프롬 사원.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1186년 세운 이곳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 거의 허물어진 폐허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커다란 나무들이 사원의 벽과 기둥 전체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 '폐허의 미학'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10세기를 전후해 막강한 세력을 자랑했던 앙코르왕국의 크메르왕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리는 앙코르 와트를 비롯해 100여개가 넘는 사원을 남겼다. <앙코르 인 캄보디아>는 세월이 무게를 견디고 이 곳을 지키고 있는 앙코르의 사원 여행을 위한 지침서다. 앙코르의 사원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사원의 성립 배경과 역사, 내부 동선을 볼 수 있는 도면과 감상 포인트 등을 설명한다.

책을 지은이는 고대 문명 답사 모임 '유목민루트'. 철저한 답사와 취재를 통해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기 쉬운 감상 포인트를 간추려 담았고 앙코르와트 여행의 거점 도시인 씨엠립과 숙소, 식당, 시장 등 실질적인 여행 정보도 함께 소개한다. 이들은 앞으로 미얀마 파간과 스리랑카, 캔디, 한국의 경주 등 고대 유적도시를 안내하는 시리즈도 펴낼 예정이다.



앙코르 인 캄보디아
유목민루트 지음 | 두르가 | 1만3천원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범음범패 하계교육 대특강 안내
1. 자격 : 스님 및 교임 포교사 일반불자
불교에 관심이 있는 자
2. 일자별 교육내용
◆ 8월 29일: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목탁, 요령) 39위 신중작법 외
◆ 8월 30일: 구병시식, 안택기도 외
◆ 8월 31일: 화청(회심곡), 종사관욕 점안의식, 용왕불공, 방생의식 외
◆ 9월 1일: 시다림(상가염불하는법), 바라춤 종사영반
◆ 9월 2일: 요잡바라, 천수바라, 관음시식 외
3. 교육기간 :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4. 교 육 비 (교재비 별도)
1) 200,000원정(숙박포함)
2) 1일 수강시: 50,000원
※ 비디오 컨펀 구입시 교육 무료
5. 모집일시 : 8월 29일 오전 10시
6. 교육장소 : 본 대학 강의실
7. 준 비 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세면기
8. 문 의 처 : 전통불교의식대학
종무소 062) 362-8604
011-624-8604
9. 계좌번호 : 농협 641010-56-000296(노연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59-14
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노 혜 공

무문관 선원
후원회원 모집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 선원을 1992년 4월에 개원한 후 2002년 7월까지 10년간을 1년에 2회씩 각각 5개월과 1개월씩 안거기간을 정하여 두문 불출 안거 정진을 마치고 새로 증설한 부여 제2무문관에 함께 다시 1차 3년 결사안거를 2002년 8월에 시작하여 금년 2005년 오는 8월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2005년 8월부터 제 2차 3년 결사 안거를 하고자 하나 경제상 어려움이 많아 여러 신도님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후원 회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많은 동참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기 간 : 2005년 10월 - 2008년 9월까지 (3년간)
◆ 회 비 : 1개월에 1만원
◆ 송금계좌번호 :
• 우체국 310623-02-033475 • 예금주 : 문판오(정영)
◆ 부여 제 2무문관
•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은산 초등학교 매화분교)
• 전화 041)833-4963
계 룡 산 대 자 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갑사 대자암
전화 041)857-5880 / 857-3604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영산범음집 한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카세트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님들은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정체성 탐구 전제될때 美 보인다

한 · 중 현대수묵전을 계기로 본 수묵화의 세계



충돌하는 문명의 이기심을 화합시키는 매개체로 '미륵반가사유상'을 선택했다. 한국 이민주 작가의 '문명의 충돌과 화합'.

'형태를 구하되 형태를 구하지 않는다.' 동양화의 정신을 집약한 말이다. 이 말은 현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 수묵화에도 적용된다. 유독 정신적인 면을 강조하는 수묵의 심미(深味)는 은유적이며 담담한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 현대 수묵화는 전통기법에서 많이 변화돼 왔다. 정신적인 세계를 화려하거나 대담한 필치로 화선지에 표현해 내는 실험 역시 꾸준히 시도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1950년대 이후 이 같은 한국 수묵화의 다양한 시도들을, 80년대 이후 중국의 실험적인 수묵화와 함께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중국의 현대 수묵화풍을 비교할 수 있는 '한 · 중 현대수묵전'이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02-2124-8800)에서 열리고 있다. 한 · 중 대표 작가 40명이 110여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수묵화란 무엇이며 현대 한국수묵화의 변천사와 중국 수묵화의 실험정신을 살펴본다.

수묵화란

먹으로 그린 그림을 총칭하는 수묵화는 선(線)의 분방함과 면백함, 여백의 미로 대변된다. 종이 위에 먹이 번지는 효과를 내는 발묵법(潑墨法), 윤곽을 그리고 그 위에 서서히 짙은 먹을 칠하는 파묵법(破墨法), 옅은 먹색으로부터 시작해 농도가 다른 먹색을 겹쳐 칠하는 적묵법(積墨法) 등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먹빛으로 표현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 수묵화에는 채색을 하는 담채화 농채화 진채화 등도 포함된다.

수묵화가 처음 그려진 것은 중국 당나라 시대. 수묵화는 기존의 윤곽 위주로 그리는 관습을 깨고 먹의 농담 변화와 효과에 의해 질량과 암영(暗影)을 나타낸 중국화단의 획기적인 변화였다.

특히 수묵 위주의 남종화가 채색 위주의 북종화보다 인정받았고 중국의 이 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정착됐다. 초기에는 다양한 중국 화풍들이 전래됐는데 남종 문인화가 유행하면서 한국에 실재하는 산천을 한국적으로 그린 진경산수화가 득세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이인상, 김정희, 장승업에 이르기까지 파격적이고 개성있는 화풍이 선보였다.

중광 · 석정 · 수안 스님 등 현대의 스님들은 수묵화의 전통을 선(禪)의 세계를 표현하는 방편으로 채택, 현대 선서화라는 장르로 꽃피우기도 했다.

한중 수묵전에서 본 불자화가들의 작품세계

수묵화의 대가이자 불화가로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송영방 명예교수(69 · 동국대). 그는 독자적 문인화의 정신세계를 구축한 화가, 전통산수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화가, 문인화와 산수화 두 경지에서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화가로 평가받는다. 일상의 중도를 지키며 생활 속의 도를 닦아 가는 소박한 심성의 화필 수도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송영방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심수일체(心手一切)'. 생각이 위대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는 슬쩍 물에 적셔 독기를 걸러낸 듯한 먹색의 아름다움을 담은 '산과 구름' '연밥' 등을 출품했다.

산수를 소재로 현대 미술로서의 한국화를 이끌고 있는 남천 송수남 명예교수(67 · 홍익대). 그는 묵(墨)의 가치를 강조한다. "색의 시초이고 끝이며, 가장 우주적이고 영원성을 지녔을 뿐 아니라 극치에 이르면 선(禪)사상과 맥락이 통한다"는 송수남 교수의 한마디는 먹빛을 통해 바라보는 그의 세계관이 녹아들어 있다. 출품작 '붓의 놀림'은 전면을 먹과 필선으로 덮어가면서 때로 격정으로 때로 여린 서정으로 물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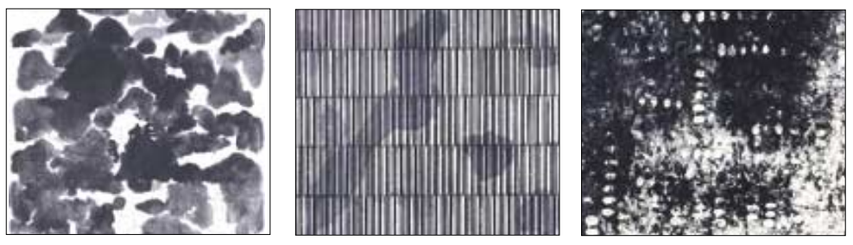
송수련 교수(60 · 중앙대 한국화과)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고백한 글에서 "내적 시선을 통해 단절된 개개인의 단편성을 극복한, 자아로서의 나와 집단으로서 우리의 총체적 진실이 마치 역사라는 연못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래서인지 30여 년 동안 '관조'라 이름 붙여왔던 작품 제목을 이번 전시에는 '내적 시선'으로 달았다.

이외에도 미륵반가사유상의 깊은 사고(思考)에서 문명의 화합을 읽어낸 이민주 대표(삼심아트)의 '문명의 충돌과 화합', '영겁'의 순간을 화선지에 담아낸 정탁영 명예교수(서울대)의 '영겁' 등이 시선을 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투명한 두장의 비단을 겹쳐 안감에는 먹으로 겉감은 불로 태워 글씨를 썼다. 중국 실험주의 작가 왕텐더의 '중국옷'.



불자작가 3인의 출품작. 왼쪽부터 송영방의 '산과 구름', 송수남의 '붓의 놀림', 송수련의 '내적시선' 작품의 부분도.

9월 18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한 · 중 대표작가 40명 110점 전시

석정 · 수안 스님 등 전통 이어

현대 선서화로 禪의 세계 표현

한국 VS 중국 수묵화
8월 17일 세미나 지상중계



오광수 / 앤샨춘

■ 오광수 (前 국립현대미술관장, 미술평론가)

'백양회' 현대화 시도, '묵림회' 비구상 표현

근대 이후 수묵에 대한 최초의 인식은 1945년 해방 후 왜색탈피와 민족미술건설이란 시대적 요청과 함께였다.

한국 수묵화의 새로운 모색은 57년 출범한 '백양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백양회' 멤버들은 전통적 양식의 동양화를 현대적 회화로 올려놓는 양식적인 측면에서의 실험을 시도했다.

수묵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되고 표현 가능성이 확대된 것은 60년 '묵림회'의 출현부터다. 서세옥 송영방 정탁영 등 서울대 출신들이 모인 묵림회 출범 후 수묵화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났다. 비구상의 세계가 수묵화에서 구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묵림회 이후 정체됐던 화단은 80년대 홍익대 출신 송수남 문봉선 등이 주도한 수묵화 운동으로 변화를 맞는다. 수묵화운동은 '수묵'이라는 문화적 맥락을 추적한 운동이라 평가받는다. 90년대 이후는 그룹활동은 보이지 않고 몇 해 전 젊은 작가 중심으로 구성된 '동풍(東風)'이 의욕을 보였다.

수묵을 통한 정체성의 탐구란 화두가 전제될 때만이 수묵은 단순한 매재개념을 뛰어넘는 문화적 아우라(aura, 예술작품의 고유한 특성 미적 아름다움)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 앤샨춘(嚴善錞) (중국 심천화원 부원장)

미술혁명 이후 전통 · 현대 접목한 작품 발전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수묵화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형식의 하나이다. 중국 수묵화의 현대화 진통은 1920년에 발생하기 시작한 '미술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수묵화의 현대화를 가속시킨 '실험수묵'은 90년대 수묵화계의 중요한 예술 운동의 하나로 학술성과 탐구성을 띤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수묵화는 현대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매개를 이용해 현대의 도시 생활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심천 화단은 90년대 초 '도시 산수화'라는 과제를 제기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묵의 입체적 공간 표현에 대한 가능성을 개척하는데 왕텐더(王天德)는 가장 대표적인 화가이다. 90년대 중기 '수묵화 식탁'은 중국 당대 장치 예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후기 왕텐더는 몇몇 '의복 산수'를 창작했다. 그는 최근 전통적인 그림과 실물을 조합해 우아함과 세속성이 함께 공존하는 특징적인 현대 예술 작품을 창작해냈다.

수묵화는 고대 예술 양식 중 하나로 최근 20여 년 동안 중국 대륙에서 전통을 중시해 왔지만 동시에 전위적인 방향으로도 발전해 왔다.

강지연 기자

청명한 가을, 화사(?)한 문이 秋天 하는 도서와 함께!!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禪 너는 누구냐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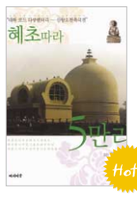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Hot!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대하 로그 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



혜초따라 5만리

무려 15년 동안 7차에 걸려10여 개국을 떠돌고 머물며 발품으로 완성한 신왕오천축국전

Hot!

상권 302쪽 · 하권 296쪽
값 각권 18,000원 / 김규현 지음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 어 삼 백 칙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석 譯解

잊혀져 가는 페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



잊혀진 가람탐험

폐사지 보존 법안 상정추진까지
이끌게 만들었던 책으로 시인 장지현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책으로 엮었다.

B5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저

'선방'에서 벌어지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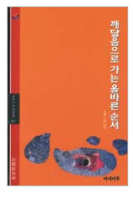


선 방 일 기

'지허'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

B6 / 136쪽 / **값 5,000원**
지허 스님 지음

'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치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초펠 스님이 직접 배워 번역한 책.

B6 변형 / 178쪽 / **값 4,500원**
초펠 스님 편역

집착은 마음의 적!



감 산 자 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248쪽 / **값 8,000원**
지허 지음 / 대성 옮김

참선자의 필수도서



참선요지(參禪要旨)

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나태 그리고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

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법어 / 대성 옮김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훌륭한 나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황금빛 봉황이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 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불 지음

조계종 수행의 길



간 화 선

이론보다 실천, 방편보다 법을 위주로 하여 선의 본지를 제시한다.

A5 / 436쪽 / **값 15,000원**
불학연구소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문수의 법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노니 선근공덕이 많은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책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니라

A5 / 300쪽 / **값 15,000원**
자재만현

www.yosiamun.com

이메일 :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2004-8220 팩스주문 : 02)737-0696

한가지 계 지키면 한가지 악업에서 해탈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3

주제 : 북방불교의 대승계에 대하여 (8월 20일)

법주 : 혜능 스님 (해인총림 율원장)



8월 20일 열린 세번째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에서 혜능 스님은 "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회"라고 강조하며 "오계를 다 지키지 못하기에 골라서 받아 지니겠다는 나약한 마음보다는 다 받아 지키겠다는 큰 발심으로 노력할 때 공덕이 되고 자기 향상이 된다"고 역설했다.

수계는 면죄부 아니다…참회로 악업 씻어야
계 지키고 나아가 적극적인 선행하도록 노력

불교의 계율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 해탈의 계율(성문계), 남을 배려하는 계율(보살계), 밀교의 계율입니다. 첫째, 개인적 해탈의 계율은 성문계, 소승계라고 하는데 남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신업(身業)과 구업(口業) 삼가는 것을 근간으로 하며, 한 사람이 생로병사의 순환, 즉 윤회를 넘어 해탈열반에 이르는 데 필요한 방법을 가르칩니다.

둘째, 남을 배려하는 계율은 대승계, 보살계라고 하는데, 이기심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자만심을 버리는 동시 몸과 마음의 악행을 삼가는 것입니다. 신업, 구업에 의업을 더한 것인데 생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셋째, 밀교의 계율은 지혜와 자비의 광명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제한된 지각을 억제함으로써 초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밀교계, 탄트라계 또는 선계라고 합니다. 다라니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수인을 하는 부분은 밀교에 해당합니다. 밀교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무상유가탄트라 수행을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해탈을 위한 수행과 남을 배려하는 수행까지도 다 받아서 지켜야 하며, 출리심(出離心,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보리심(菩提心), 정견(正見)의 3가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밀교에는 계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인의 해탈을 위한 계와 남을 배려하는 계, 밀교의 특수한 계까지 포함하는 계행이 바탕이 될 때 궁극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또, 선계라고 얘기하는데 선종에서도 선원 청규와 선종의 질서로 계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규는 율장의 중국적인 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 자각종색 스님이 정리한 선원청규에는 "출가 수행자가 성문계를 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보살계를 받아야 하느니, 이것이 불법에 들어오는 순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계와 율은 부처님의 삶입니다. 따라서 불자들의 삶의 방식이 계율입니다.

계(戒)는 좋은 습관, 선한 행동, 도덕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계를 지키면 마음속 후회가 없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마음의 평온, 안정 기쁨을 얻어 궁극에는 해탈열반을 성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律)은 규칙, 조복, 멸의 의미로, 스님들이 지켜야할 승단의 규칙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계가 자발적인 의지라면 율은 타율적인 규범입니다. 따라서 계는 처벌이 없지만 율은 어겼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이 주어집니다. 서로 다른 의미로 된 계와 율을 모아 만든 합성어 '계율'은 계의 정신에서 율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계의 정신에서 율을 지킨다

북방불교에 전해진 계율은 대승계입니다. 우리는 대승계라고 하면 '범망경 보살계'만 생각하는데 초기 모습은 어땠을까요?

대승보살계에는 출가대승계와 재가대승계가 있습니다. <유가사지론>과 <보살지지경>에 나오는 계는 출가보살계로, <우바새계경>에 나오는 6중 28경계는 재가보살계입니다.

'범망경 보살계'는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이 함께 지키는 계인데 우리나라에는 범망경 보살계만 수지되고 있기 때문에 범망경 보살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망경 보살계 이전에 초기 대승불교의 보살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선계(十善戒)였습니다. <반야경> <화엄경> 십지품의 '이구지(離垢地)'에서 십선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불교에서는 계율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오계나 팔관재계가 신업 구업만을 제재하는 것이어서 의업을 강조하기 위해 대승불교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십선계의 세 번째 불사음계는 삿된 음행에서 멀리 떠난다고 하는 것으로 출가자에게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문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가사지론>을 보면 삼취정계로 대승계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취정계는 섭율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입니다.

섭율의계는 '칠중(七衆:비구 비구니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 우바새 우바이) 별해탈율의로 출가보살은 출가보살이 지켜야할 성문계를 다 지키고 재가자라면 재가보살이 지키는 오계와 팔관재계를 다 지키는 것입니다. 섭선법계는 정견을 실현하기 위해 선을 모으고 발생시키는 것이며, 섭중생계(요익유정계)는 중생을 거두고 이익되게 한다는 뜻으로 중생을 불교로 끌어들여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후기 중기 이후 <유가사지론> <보살지지경>이 등장하면서 십선계에서 삼취정계로 바뀌었고, 개인의 해탈에 관한 계와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계까지 지키는 것이 됐습니다.

그 뒤 <보살영락본업경>이 등장하면서 삼취정계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섭선법계는 부처님이 일생동안 말씀하신 팔만사천 법문을 모두 다 지키는 것으로, 섭중생계는 자, 비, 희, 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으로, 섭율의계는 십바라이, 열 가지 바라제목차로 외연이 넓어지게 됐습니다.

참회, 자기 잘못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

누구나 계를 받아야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기만 하고 지키는 데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은, 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참회(懺悔)입니다. 일반적으로 참회는 '자기허물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한다'는 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참회는 다른 종교의 회개나 속죄처럼 '누가 내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우리를 굴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각하는 것으로 악업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합니다.

참회는, 계의 참회와 율의 참회가 있습니다. 신구의(身口意) 삼업으로 지은 죄악업을 참회하는 것이 계의 참회입니다. 오계를 어겨도 계를 준 스님이나 부처님이 율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지만 그 업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업을 참회하는 것이 계의 참회입니다. 율의 참회는 오편(五篇)칠취(七聚)로 나눠지는데, 마음속으로 뉘우쳐서 없어지는 죄도 있고, 한 사람의 비구에게 가서 고백하면 없어지는 죄도 있습니다.

일정시간 참회 행위를 해야 하는 무거운 참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참회를 통해 본인의 본래 청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율의 참회며, 이를 통해 승단의 청정과 화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지킬 수 없는 성문계를 받기만 한다'며, 통과의례나 수계식만 하지, 계를 지키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성문계인 비구계, 비구니계는 도무지 우리나라에서는 지킬 수 없으니 우리나라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율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가운데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뭔지, 필요 없는 계가 뭔지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못 지켰을 때 스님의 자격을 박탈하는 계는 250계 중 단 4가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날마다 범해도 범한것을 대중에게 가서 참회하면 대중이 그 죄를 없애줍니다. 이것이 율입니다.

문제는 계의 참회입니다.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간섭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악행의 그림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나 운명, 기적, 요행이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습니다.

범망경 보살계는 '광명금강보계'

범망경 보살계 10중 48경계는 십지보살 정도 돼야 지킨다고 할 정도로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편한대로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버리면 언제 부처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망경>의 내용보다 대승보살계의 근본정신입니다.

바로 '광명금강보계(光明金剛寶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모든 번뇌의 어둠을 없애버린다는 뜻에서 광명의 계이

법회 동영상 중계
buddhanews.com



며, 마음속 온갖 번뇌를 깨뜨려 없애는 것이 마치 마구니를 다 항복받는 것에 비유해서 금강의 계라고 합니다. 또, 한량없는 모든 공덕과 복의 재물을 다 구족하고 있어 보배의 계라고 했습니다.

범망경 보살계는 율이 아니고 계입니다. 법의 계, 자성의 계, 불성의 계입니다.

승단은 사의법(四依法)에 근거한 율을 지킴으로서 개인의 청정과 승단의 화합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자는 율은 없고 계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나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 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범망경 10중 48경계를 지켜야 광명금강보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를 안 지키더라도 절을 하고, 연비 확실히 하고 보살계 받으면 광명금강보계의 무한공덕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수계는 절대로 면죄부가 아닙니다.

신·운명·기적이 행복 가져다 주지 않아

소승계가 쉽고 대승계가 어렵다거나, 소승계가 어렵고 대승계가 쉽고, 우리에게 맞고 안 맞고는 다 분별입니다. 대승계든 소승계든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한 가지라도 지키면 한 가지 악업에서 바로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해탈(別解脫)입니다.

이제 불자들이 먼저 할 일은 파계적인 행동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해탈을 위한 계를 지키는 일로 지지계(止持戒)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적인 행동에 열중하는 일로 작선계, 작지계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선(善)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도와주는 일 등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줌으로써 큰 공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자의 삶이고 보살의 삶이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삶으로 공덕을 지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계의 근본입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혜능 스님은 "소승계는 쉽고 대승계는 어렵고, 우리에게 맞고 안 맞고 등은 다 분별이며 한 가지라도 지키면 악업에서 바로 해탈한다"고 강조했다.

불살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자

스님께 묻습니다

부뚜막의 개미를 잡아도 될까요?

▲부뚜막에 개미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잡게 됩니다. 또, 여름에는 파리 모기도 많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김계선 · 예천 청복리)

혜능 스님: 불살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자각시키는 것이 불살생계입니다. 율장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상품의 살생, 귀신을 죽이는 것을 중품의 살생, 축생을 죽이는 것을 하품의 살생으로 나누고 있지만 불자된 입장에서 개미 한 마리라도 나 개인을 위해서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살생하게 되면 나도 실수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 중국 양무제의 스승은 전생에 청소하다가 모르고 지렁이를 죽인 죄로 지렁이 환생인 양무제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스님들은 아침에 "하루종일 길을 다닐 때 중생들이 전부 길을 비키고, 만약 내 발에 몸이 상했거든 극락왕생하소서"란 게송을 염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개미 등 미물들이 부뚜막으로 안 올라오고 다 피해간다고 합니다.

혜능 스님의 제안

사미(니)에게 계율 가르쳐야

▲6개월간의 행자교육 후 사미계를 받는 기존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계 후 2년 동안 계율과 승가원형 또 승단의 조직, 종헌 종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제안합니다.

2년 동안 경을 공부해 머리만 키워주지 말고 참선해 허리에 힘만 불여주지 말고, 계율을 가르쳐 기도하고 공부하는 승가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출재가 대상 범망계 보살계로 회향을

▲동화사가 계율법회 회향일인 10월9일 <우바새계경>에 나오는 재가보살계를 수계하는 것에 대해 문의를 했었습니다. <우바새계경>은 재가자가 지키는 보살계로 자운율사께서도 수계해 오셨고 해인사에서도 해 오고 있습니다.

재가자만 모아서 수계를 한다면 무방하나 출가자도 오신다면 공통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범망경 보살계'를 주는 것이 여법합니다. '범망경 보살계'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뿐 아니라 미물 축생, 귀신들까지도, 계를 설하는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범망경 보살계'는 재가 · 출가자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망경 보살계'는 자성계, 불성계, 심지계라고 하는 대승계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망경 보살계' 수계와 동시에 지계와 참회발원을 염두에 둔다면 여법한 수계가 될 것입니다. 재가보살님들만 따로 한 번 더 신심을 내어 재가보살계를 받으면, 왼쪽에는 범망경 보살계 오른쪽에는 재가보살계, 이 두 가지를 다 수계하게 되어 더 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재일'에 기도 뿐 아니라 포살을 꼭

▲스님들은 보름마다 계본을 외우면서 자기 청정을 확인하고 지난 보름 동안을 반성하면서 다짐하는 포살의 시간을 가집니다.

재가불자들은 한달에 여섯 번, 열 번, 또는 하루만 해도 되는데, 특히 재일에 재계를 지키는 것이 재가자의 포살입니다.

재일은 절에서 기도하는 날일 뿐 아니라 불자님들이 계본을 외우면서 자기의 청정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발원했으면 합니다.

율원서 수년간 계율학 연구 혜능 스님은

1975년 출가득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 진언종 총본산 고야산에서 밀교학을 수학했다.

해인총림 율원과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수년간 계율학을 연찬하고, 성우 율사스님으로부터 계맥을 이었다.

현재 조계종 단일계단 및 행자교육원 교수사 · 해인총림 율원장을 맡고 있다. 역서로 <반야이취경 강해> <법화경의 세계> <원시불교연구> <사미학처> <비구계의 연구 1 · 2> 등이 있다.

논 찬



"지키지 못하니 계 안 받겠다" 어리석은 일

덕조스님
(길상사 주지 · 계율학 전공 석사)

법주스님께서 '계율을 어떻게 받고 지킬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불자들은 계율정신 어떻게 지키며 불자답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질문1 : 계율은 계와 율이기 이전에 불교의 가장 중심 사상인 연기법이고 인과법입니다. 계율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은 결국 불자의 근본사상 정립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어떻게 하면 참된 불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혜능 스님 : 계율을 지키기 전에 연기법과 인과법에 대한 자각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선행을 한다면 내가 청정해지고 내가 악행을 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는 확신과 자각이 없으면 계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계는 우리를 구속하고 장피하게 만드는 속박의 틀이 아닙니다. '광명금강보계'를 성취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계를 자연적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인과 연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으면 신행과 계행이 따로 될 것이고 불자의 맑고 향기로운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 이전에 다생 겁 동안 지어온 많은 악업들은 쌓아온 시간만큼 선행해야 비로소 없어집니다.

인과 연기에 대한 믿음과 자각을 바탕으로 계정혜의 발로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지킨다면 반드시 지복의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2 : 재가불자들 가운데 지키지 못할 것이 두려워 계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일아함경>에 '오계분수(五戒分受)'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불자들이 삼귀의 오계를 받아 진정한 불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혜능 스님 : '오계분수'는 오계 가운데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지키면 한 가지 악업에서 해탈을 얻고, 두 가지를 지키면 두 가지 악업에서 해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키기 힘든 것을 지킬 때 공덕이 되고 자기향상이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은 두 가지 청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법을 받아 한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과 계를 어겼더라도 묻어두지 않고 고백하고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오계를 다 지키지 못하기에 골라서 받아 지키겠다는 나약한 마음보다는 다 받아 지키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큰 발심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질문3 :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坐受立破)' 계를 받으라고 하시는데 지계 율장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혜능 스님 : 이것은 수계를 강조한 말입니다. 또 불성을 자각하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모두 불성이 있지만 계를 받아야 불성이 발현되고, 구현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직립인간의 삶을 갖고 태어나지만 걸음마를 배우지 않으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듯 수계를 하는 것은 불성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서서 파하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벌도 안 주고, 또 악업에 대한 참회방법도 있습니다. 참회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하세요. 지키지 못해 안 받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종헌 종법, 율장에 맞게 고쳐야

백도수
(동국대 강사 · 인도철학 박사)

질문1 : 승가에서 행해지는 계 가운데 지킬 수 없고 지켜지지 않는 소소한 계는 현실에 맞게 새롭게 계를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또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혜능 스님 : 이 이야기는 <사분율> 제1결집에 언급돼 있습니다. 아난 존자가 '승단이 원한다면 모든 비구들을 위하여 모든 소소계는 버려도 좋다'는 말을 부처님께 들었지만 무엇이 소소계인지는 여쭤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말을 들은 아라한들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 때 가섭이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것은 제정하지 않고, 부처님이 제정한 것은 버리지 않고 모두 따라 배운다'는 원칙을 제안했고 대중이 모두 찬동해 율장이 정리됐습니다. 이후 물론 세부적인 것은 부파마다 첨삭이 이뤄졌지만 제1결집 때 이뤄진 이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승과 소승, 북방과 남방, 옛날과 현대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도 문화를 그대로 섭생할 수 없어서 율장을 그대로 두고 율장을 중국화한 청규에 의해 살아왔고, 지금은 종헌 종법에 의해 조계종 승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장에 의해 승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님이 제정한 것을 따르기로 한다는 정신 하에 지켜온 율장을 임의로 첨삭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율장을 고칠 것이 아니라 종헌 종법을 율장에 맞춰 고쳐야 합니다. 또, 만일 승단의 규칙을 변화시키거나 첨삭을 한다면 그것을 시대와 국토에 조화시키면서도 해탈성취라는 최고의 목적을 잃지 않는 최선의 규범이 되도록 10가지 이익에 맞춰 논의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 밀교는 어떤 독특한 계율사상을 담고 있는지 또 선가에서만 지켜지는 계율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혜능 스님 : 밀교가 남아 있는 곳은 일본 진언종과 티벳불교인데, 티베트불교에서 나온 전적들과 달라이 라마의 법문 저술들을 통해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보리심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밀교의 계를 보리심계라고 합니다.

밀교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범부와 성인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아는 큰 지혜, 대지와 일체중생을 관하는 것으로 자기와 같이 이들을 구제하려는 대비,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관에 머무르는 삼매, 이 세 가지 활동을 내용으로 하며, 보리심과 서원을 일으켜서 이것을 원리로 생활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밀교에서 기도를 통해 신비적인 효험이나 가피 이런 것을 얻기 위한 행법을 닦으려면 먼저 몸이 청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업과 구업을 청정히 하는 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보리심을 일으켜 계를 지킨다는 것이 밀교의 수행입니다. 그 외 입능가경(선경)에서는 육식을 하고 다라니를 외우면 효험이 없다며 육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참옻조청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옻이 오르지 않는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 천연의 순수,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의 정성 !
山寺 참 옻 조 청
산사 참옻조청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과 위장장애를 좋게하며, 피로독소, 적체를 해소하고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에 기여할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 1200g 29만원 / 600g 15만원
山寺 청미래조청
산사 청미래 조청은 몸에 쌓인 중금속, 농약성분등의 독성을 씻어주며, 신장기능을 좋게하고 사지관절과 통증,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주며 중풍과 암 예방 차원으로 가장 탁월한 식품입니다.
● 1200g 25만원 / 600g 13만원
소중한 분께 드릴 추석선물용은 미리주문하시면 선물하시는 분의 마음을 담아 추석날에 맞추어 우체국 택배로 안전하게 우송하여 드립니다
● 주문처 : 054)372-3166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순희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부설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직지심체요절' 이 2000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매년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 '직지사 시상식 및 기념식'. 매년 학술행사 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사진은 2004년 '오페라 직지' 공연 모습. 사진제공=청주 직지축제추진위원회

청명한 가을 문화에 빠져보자

전국 역사 · 문화 축제 풍성… '직지 퍼포먼스' 등 눈길

무더위가 한풀 꺾였다. 말복과 처서가 지나고 나니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하다. 김병권(서울 성동구 성수동 · 33)씨는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지난 8월은 김씨에게 고역이었다. 휴가철을 맞아 붐비는 고속도로며 바닷가, 계곡에다 더운 날씨까지 김씨의 불쾌지수는 높아만 갔다.

9월 경 가을 여행을 계획 중인 김씨는 들떠 있다. 벌써 하늘이 청명하게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 주말여행 계획을 짜느라 바쁘다.

조금 한산해진 들녘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9월은 민족 명절인 추석도 끼어있어 이래저래 축제분위기다. 아직 따가운 햇살은 남아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 · 관광 행사가 마련돼 있어 마음만은 넉넉하다.

특히 역사 문화 프로그램들이 눈에 띈다. 청주시가 준비한 '2005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및 기념식' 은 14세기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직지심체요절' 이 2001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직지'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학술적이지만은 않다. '직지' 퍼포먼스와 금속활자 체험, 퓨전음악가 양방언씨의 공연 등이 마련돼 흥미 요소는 곳곳에 있다.

또 부산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행사, 백제 교류의 현장이었던 인천 능허대축제 등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한 행사가 많이 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관광 축제도 '입맛따라' 골라 갈 수 있다. 금산 특산품인 인삼을 내세운 '인삼축제 금산', 가을 생선의 향연으로 펼쳐질 '마산 어시장 축제' 가 그 예다.

이밖에도 가을 코스모스 축제, 문학제, 음악 · 예술제 등이 각 지역별로 준비돼 있어 9월은 즐겁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부산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모습. 사진제공=조선통신사문화사업추진위원회



해마다 새로운 '백제왕' 을 뽑는 인천 능허대축제.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축제위원회

각 지역 문화 관광 행사

지역	행사명	일시	주요행사	연락처
서울	한성백제문화제	9.30~10.2	동명제, 근구수왕 즉위식, 송파초등~방이동 거리행렬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 (02)410-3410
경기	구리 코스모스축제	9.10~11	국악한마당 가을음악회, 체험마당	축제추진위 (031)550-2065
경남	마산 어시장 축제	9.1~4	길놀이, 풍어제, 어시장 체험	마산어시장축제위 (055)221-0671
경북	청량문화제	9.22~25	전통 한시백일장, 전통혼례 재현, 공민왕제	봉화문화원 (054)679-6391
광주	임방울 국악제	9.26~28	국악대전, 공연	(사)임방울국악진흥재단 (062)940-9731
부산	조선통신사행렬재현	9.6~10	조선통신사 관련 전시 및 행렬 재현	조선통신사문화산업추진위 (051)888-6965
인천	능허대축제	9.9~11	백제왕 선발대회, 씨름대회, 사생대회, 마라톤	연수구청 축제위 (032) 810-7761~4
	함세덕 연극제	9.1~6	인천 출신 극작가 함세덕을 기리는 극단 및 대학 동아리 연극 공연	연극제추진위 (02)866-3927
충남	인삼축제 금산	9.2~11	인삼 캐기, 약초요리 만들기, 인삼 심포지엄, 만화공모전	금산인삼 집행위 (041)750-2391
충북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및 기념식 설성문화제	9.1~4 9.27~30	직지상 시상식, 오페라 '직지' 공연, 싸이클 대회, 학술제 풍물경연, 가장행렬, 거북놀이(지신밟기와 유사), 음성 청결고추축제	청주 직지축제추진위 (043)220-6829 음성문화원 (043)871-3839
전남	꽃무릇 축제	9.10~11	국악한마당, 오케스트라 · 사물 공연, 스포츠 댄스, 사진전	꽃무릇축제추진위 (061)320-3617
제주	서귀포 칠십리축제	9.28~10.3	최영장군 목호토벌, 바다체험	서귀포시 관광지흥과 (064)735-3548
	이중섭 예술제	9.8~9	설치미술, 이중섭 작품 퍼포먼스	서귀포시 문화공보실 (064)735-3548

불교TV, 현각 스님 '금강경 영어강의' 방영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화계사 국제선원장)의 <금강경> 영어 강의를 TV를 통해 볼 수 있다.

불교TV는 8월 22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12주간 '현각 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 이란 제목으로 현각 스님의 <금강경> 영어 강의를 방영한다. <금강경>의 영문 표기는 '다이아몬드 수트라(Diamond Sutra)'.

현각 스님은 "영어에 더 익숙한 교포들과 외국인들에게 불교 교리를 전파하고 싶다" 며 "대표적인 불교경전인 <금강경>을 통해 공(空)사상을 간결하고 명확한 화법으로 구체적으로 강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회 강의는 50분으로 화계사에서 녹화했으며 내국인을 위해 한글 자막처리도 했다.

현각 스님의 영어법문은 매주 월요일(08:20/13:00/19:30) 방송하며 수(21:10) · 토(04:00) · 일요일(01:35)에 재방송한다. 인터넷(www.btn.co.kr)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노병철 기자

이영화 어떠세요?

웃고 놀라고 사랑에 빠지는 깜찍한 자동차

허비: 첫 시동을 걸다 감독: 안젤라 로빈슨 출연: 린제이 로한, 맷 딜런 상영시간: 101분 등급: 연소자 관람가

꼬마 자동차 '붕붕' 처럼 감정을 가진 차. 그리고 '권토중래(捲土重來:한번 싸움에 패하였다가 다시 힘을 길러 재기한다는 뜻)' 의 스토리. 이것이 영화 '허비: 첫 시동을 걸다' 의 감상 포인트가 아닐까 싶다. 신형 뉴비틀 폴크스바겐을 보면 왼쪽 헤드라이트를 닫으며 윙크를 던지고 안테나를 앞뒤로 흔들며 환호를 보내며 사랑을 표현하고 공포 영화를 보면 놀라 헤드라이트를 닫아버리는 살아 숨 쉬는 차 허비.

단계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허비의 변신은 이 영화 플롯의 기승전결과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관객을 점층적으로 흥분시킨다. 자동차 경주의 명가(名家) 페이톤 집안의 막내딸 매기. 대학 시절 경주 도중 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매기는 아버지 엄명에 따라 경주는 꿈도 꾸지 못할 처지다. 대학 졸업 기념으로 아버지가 사준 선물은 40년도 넘은 폴크스바겐 '허비'. 폐차장에서 오직 처분되기만을 기다리던 허비와 자신의 새 주인 매기는 서로의 비범한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자동차 경주의 최고봉 나스카(Nasca) 경주에 출전하는데….



53번 번호를 달고 부활한 허비. 흥미진진한 자동차 경주와 더불어 때로는 중매쟁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을 돕기도 하며, 심지어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는 영화적 소재는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보는듯한 재미와 흥미를 안겨준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노년기 생활 아카데미 서울 성북노인복지관(관장 정성욱)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노년기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니어 플랜 아카데미(사진)' 를 진행하고 있다. (02)929-7950

전문간병교육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사장 무구) 부설 연꽃간병회에서 전문 간병교육을 받고 간병인으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02)363-7884

경인불교대학 개강 인천 수미정사 · 경인불교대학(학장 종연)에서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입문반과 주 · 야간반, 경전대학원 등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032)427-8400

나눔 사랑 일일찻집 경기 일산노인복지관(관장 능인)은 9월 10일 노인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사랑 일일 찻집' 을 마련한다. (031)919-8677

낮시간 어르신 모십니다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에서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인 정수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02)2282-1100

후원품 받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봉사원 파견센터(원장 나태선)에서는 무의탁 독거노인에게 보급할 가전제품과 책상 · 의자 · 서랍장 등의 사무용품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02)2202-3677

20면 상식 퍼즐 정답

요	사	채		공		
로		광	주	리	장	수
원			권			리
야	상	곡		사	법	부
화			광			엉
기	명	식	배	서		이
		언		경	칩	

전시

무심한 붓끝에 깨달음이 깃드니

혜성 스님 금니 사경전



혜성 스님이 쓴 금니 반야심경.

혜성 스님의 두 번째 금니 사경전이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모로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금니 · 은니 <반야심경>, 병풍 <반야심경>, 금니 신묘장구대다라니, 금니 나태(사찰이나 고궁 문 밑에 조성되어 있는 도깨비 문양) 등 30여점을 선보인다.

혜성 스님이 <반야심경> 한 작품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무려 18시간. 먹으로 쓰는 사경과 달리 스님의 금니 사경은 두 번의 덧칠 과정을 거친다. 스님은 내후년 경 '반야심경' '다라니'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경전을 준비하고 있다.

혜성 스님은 "부처님 말씀 가운데에 부처님 상호를 외우기만 해도 공덕이 크다고 했는데 불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을 꾸준히 사경하면 그 공덕이 대단하다"며 사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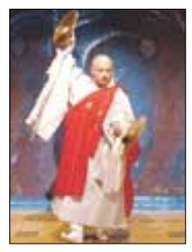
금니사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혜성 스님은 무공 스님을 은사로 1989년 동화사에서 출가했다. (02)739-1666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공연

나비춤 · 바라춤 · 승무 한무대에

서울 국제무용콩쿠르 개막공연



호법무라 불리우는 '바라춤' 을 선보이는 능화 스님.

범패와 작법무 예능보유자 능화 스님과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 채상묵 그리고 서울예술단 무용팀 21명이 펼치는 '기원(祈願)' 을 만나자.

9월 4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막하는 제2회 서울 국제무용콩쿠르의 개막축하공연으로 한국무용 '기원의 장' 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기원의 장' 은 일명 해탈무라 불리우는 나비춤, 진리를 전하겠다는 서원과 정법을 지키는 호법무인 바라춤, 승속을 넘나드는 승무, 북두칠성의 기원을 담은 칠고무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무용 '기원의 장' 이외에도 일본 민족무용가 후지마 랑코의 '모미지가사' , 북한 무용가 이미남의 '아리랑 환상무' , 일본 무용가 미타 노리야끼의 난릉왕 등도 개막축하무대를 장식한다.

아시아 무용 올림픽이라 불리우는 서울 국제무용콩쿠르는 15개국 90여명의 무용수들이 참가해 발레, 컨템포러리무용, 민족무용 등 3개 분야에서 경연을 펼친다. (02)588-7570

강지연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30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31일 21:05 영화음악실
1일 07:05 아침저널
2일 09:05 행복한 미소
3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4일 10:00 라디오 법회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29일 21:10 TV법회
30일 02:40 불교TV스페셜
31일 15:50 열린마당
1일 17:30 산중대담
2일 20:30 명상음악산책
3일 08:20 불교TV메디컬
4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박진선의 트롯시대(9월 1일 19:00~20: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나른함이 밀려오는 저녁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9월 4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속 재밌는 해프닝도 소개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성불도 놀이판



성불도 놀이는 조선 서산대사가 처음 만든 놀이로, 마하몰에서는 불교 전통 놀이인 성불도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성불도 놀이판' 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마하몰에서 판매하는 놀이판은 현재 여러 사찰에 전하고 있는 성불도 놀이판을 토대로 잘못 기록된 부분을 보완해 만들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숫자만큼 불패를 옮기는 게임으로, 방법이 간단해 남녀노소 불자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미리 마련해 다가오는 추석,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친목을 다지기에도 좋다.

가격 2만 2000원. (02)2004-8218~9

사경(寫經)으로 만난 부처님 (하)

예수해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건설사 공사 수주 담당으로 일하면서 부처님을 다시 만나게 됐고, 사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배우게 됐지만, 여전히 나는 불교 초심자였다. 불교를 좀 더 알고 싶다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즈음 회사 근처에 있는 영화사라는 절을 알게 됐다. 4년 전부터 다니게 된 영화사는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그윽한 산사의 풍취를 간직한 고찰이라 내 마음의 안식처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회사와 가까워 자주 사찰을 찾았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올해 봄, 영화사에서 불교대학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 바로 나에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영화사에 오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쁜 마음으로 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사실 사경을 하고 불교 경전을 조금씩 읽어보긴 했지만,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진리로 향하는 길은 너무도 많았고 그 종착점도 각기 달라보였다. 참선과 위빠사나, 염불, 사경 등 수많은 수행법과 또 셀 수도 없이 많은 불교 경전이 말하는 깨달음이나 진리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라는 큰 줄기를 보고 싶은 마음에 불교대학에 입학했다.

입학한 후 "이왕 공부하기로 한 것, 제대로 한 번 해 보자"는 생각에 제일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었는지 얼떨결에 학생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사실 절에 다니면서도 신도회나 거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아 사찰이나 불교대학의 운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학생회장이란 중책을 맡기가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니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학생회장을 맡게 됐고, 주어진 소임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내가 그동안 절에 가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불교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스님과 전문 강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머리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교리를 정리해 나갈 수 있었다. 처음에는 저명한 교수님과 덕망 높은 스님으로부터 사찰예절을 배우고 부처님의 생애, 불교개론, 근본불교, 선학개론, 중국 및 한국불교사, 업 사상 등의 기초 학습과정을 수강하게 됐다. 지도교수와 스님들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말을 풀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심도있게 가르쳐 주셨다.

특히 불교근본교리를 지도하시는 동국대 조용길 교수님의 강의는 경쾌한 유머와 다양한 비유법으로 진행된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업 사상에 대한 설명은 초심자인 내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가슴을 저미는 감동을 받기도 했다.

물론 불교대학에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일부분일지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불교대학의 목적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처음엔 경전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말만 담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의 구성과 내용,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게 되면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경전을 공부할 수 있었다.

지난 학기말에 김제 금산사에서 단체 템플스테이를 했다. 생애 처음 하는 경험이었지만 발우공양과 참선시간 그리고 다도시간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다.

그러나 템플스테이 기간동안 경험한 많은 프로그램들 보다 더 내 마음을 울린 것은 불교대학 동기들의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든 솔선수범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동기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나 역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난 후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죽을 때까지 부처님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졌다.

나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마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격으로 공부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여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고, 사경을 하면서 글씨에 마음을 두고 독경을 하면서 외우는데 더 마음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마음이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 밖에 부처 없고 부처 밖에 마음 없다"는 조사 말씀을 새겨 보기 위해 경허 스님의 <선문촬요>를 다시 펼쳐본다.

간명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자세히 마음보는 절차가 있건만, 무명에 덮이고 아집을 벗어나지 못함을 꾸짖는 듯한 한 소절 한 소절을 마음에 담아 본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하면 영화사 거사회 회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경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화엄경>을 배우고 있다. 이전에 <화엄경>을 일독한 바 있지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 글자만 읽었을 뿐이었다. 이번 학습을 통하여 장엄한 화엄의 세계를 좀 더 깊이 볼 수 있었기에 희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소개하고 싶다.

내가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도 약 1년 전부터 발심을 했다.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내가 절에 나가기 시작했고 <화엄경>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의 신심은 날로 높아져서 백일천도재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니는 모습은 나를 놀라게 했다.

아내가 절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의 대화도 한결 부드러워 졌을 뿐 아니라 서로가 절에서 배운 것을 묻고 답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 의논하게 된 것이다.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내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죽을 때 까지 우리 부부가 함께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다'고 다짐한다.

성불하십시오.(끝)

불교대학 입학 후 학생회장 중책 맡아 동기들과 봉사다니며 배려의 삶 배워 아내 발심, 화목…부처님 가피에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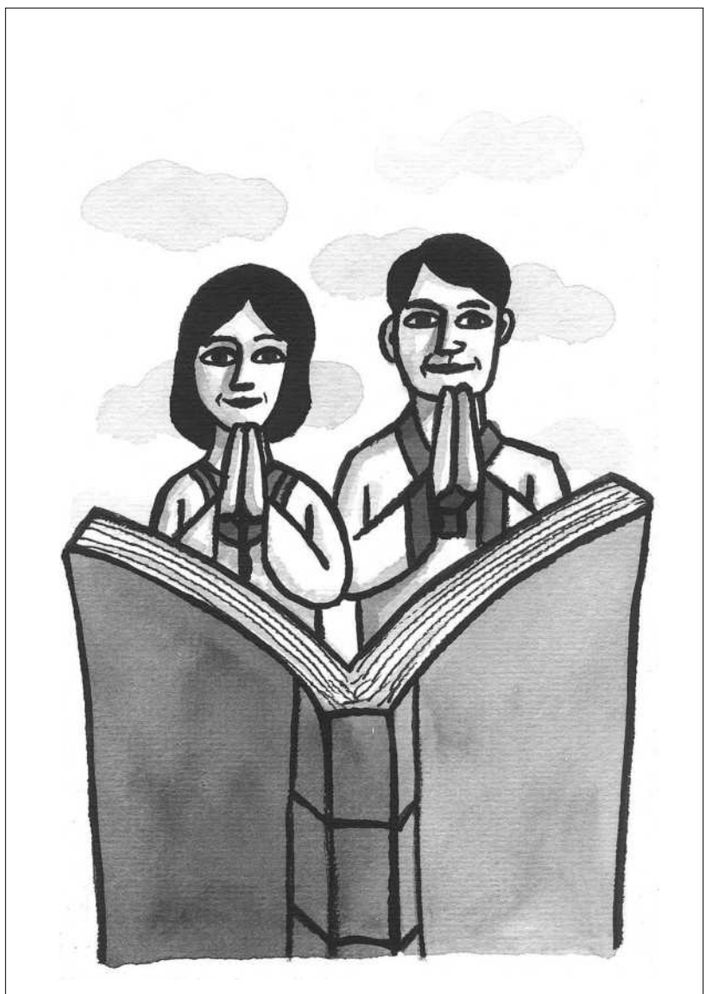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순분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수암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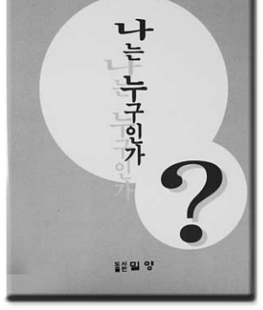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나는 누구인가?



유식사상연구회 고목지음
도서출판 밀양

'마음'을 알고 '선'을 한다
유식과 선으로 참나 찾아가는 여정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끌어 간다
對自에서 卽自로.... 그 완전한 合一까지

- 구입 · 문의 : 유식사상연구회
055)353-6142, 010-2356-6142
- 총판 : 02)3672-7181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친물도 못먹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아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신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새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福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연밭에 연꽃이 없다?

진흙 속에서 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은 깨달음을 구하는 구도자의 모습과 같다고 해 불교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오랜 세월 사찰에서는 연을 심어 가꿔 왔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사이 연꽃은 본래 있어야 할 연밭이 아닌 찻상 위에서 더 흔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연꽃을 줄기 째 잘라 다구에 놓고 우려 마시는 연차 문화가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체단체와 사찰을 중심으로 대규모 연밭 조성과 연꽃을 줄기째 잘라 우려마시는 연꽃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는 차 문화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연꽃차 문화, 어떻게 봐야 하나?

연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뛰어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다. 흔히 연근이라 불리는 뿌리줄기는 식용으로, 잎과 꽃은 차로, 연밥은 약용이나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이 같은 연의 상품성을 인식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규모 연밭을 조성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등 연꽃을 관광 상품화하기에 앞장서고 있다.

사찰도 예외가 아니다. 해마다 7~8월이면 연꽃축제를 개최하는 사찰이 전국적으로 10여 곳이 넘는다. 무안군 백련대축제나 청운사 하소백련축제, 인취사 백련시사회, 봉선사 연꽃축제, 봉원사 연꽃축제 등은 매년

'버릴것 하나 없다' …지자체 사찰 등서 대량 상품화
웰빙 열풍에 신앙적 의미 사라지고 즐기기만
선인들 연향차 즐겨, 줄기 꺾는 행위 안 좋아

수백, 수천 명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연꽃축제가 번성할수록 정작 연밭에서는 연꽃을 볼 수 없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연꽃차를 만들기 위해 채 피지도 않은 연꽃을 줄기째 자르는 것은 물론, 꽃이 채 피기 전의 연꽃을 대량으로 채취해 꽃잎에 차 주머니를 넣고 실로 동여맨 뒤 냉동실에 넣어 두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불가(佛家)에서 연꽃은 생명의 근원이자 불교의 신앙체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화엄경탐현기>에서 향기(香)와 깨끗함(潔), 맑음(淸) 정갈함(淨)을 상징한다고 했던 연꽃이 언제부터인가 '웰빙'과 '건강'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사시사철 즐기는 대용차로 변질된 것이다.

그렇다면 연차, 연꽃차를 만드는 이들이 '경전' 처럼 여기는 <부생육기(浮生六記)>에서는 연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부생육기>는 청나라 말기 소주(蘇州)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가이자 수필가인 심복(沈復)이란 사람이 쓴 자서전으로, 여기에는 아내 운(芸)이 연꽃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해질녘 연밭으로 가서 막 꽃잎을 접으려는 꽃송이를 살며시 열고 조심스럽게 비단 주머니에 싼 차를 화심(花心)에 넣어둔다. 이튿날 아침 꽃잎이 반쯤 피었을 때, 꽃잎이 다치지 않게 살며시 차를 꺼내 샘물을 끓여 차 마시기를 좋아했다. 그 차는 향기가 유난히 좋았다.'

명나라 고원경이 쓴 <운림유사>나 명나라 도융의 <고반여사>에 말하는 연꽃차 만드는 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처럼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연꽃차의 모습은 오늘날처럼 연꽃을 직접 따서 차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꽃 속에 찻잎을 넣어 향이 배게 한 후 그 차를 불에 쬐어 말려 우려 마시는 '연향차(蓮香茶)'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차 문화에 대해 혜우 전통차제다교육원의 혜우 스님은 "연꽃을 줄기째 꺾어 차로 만들어 나누어 마시는 것이 분위기 있는 찻자리인 양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래 화차(花茶)는 계절에 맞는 차의 향을 가미해 즐기는 대용차의 일종이므로, 연꽃이 피는 기간이나 종교적 행사 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여법한 법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을 대량 재배하거나 또 이를 즐기는 것까지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상생계를 지키는 불가에서조차 단지 향을 즐기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연꽃을 꺾는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녹차 기호에서 기능성음료로 거듭나

최근 10년간 특허출원 87건

최근 10년간 기능성 녹차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허출원 내용도 기호성 음료에서 기능성 음료로 변화하고 있음이 통계청 집계 결과 밝혀졌다.

특허청에 등록된 녹차 관련 특허출원을 살펴보면, 1994~1999년까지는 매년 10건 미만이던 것이 2000년 18건, 2001년 17건, 2002년 10건, 2003년 13건 등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특허출원 87건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특정 영양성분을 향상시키거나 항비만 · 콜레스테롤저하 · 니코틴제거 등의 효과를 강화하는 등 사용재료에 특징을 가한 것이 55건을 차지했다. 녹차 첨가물로는 인삼, 어성초, 매화 등의 식물성 성분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출원인별 출원건수를 살펴보면 개인이 44건, 기업이 24건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7건, 국가연구기관이 3건, 영농조합법인이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1999년 이전에 주로 기업과 국가연구기관에 의해 출원이 이뤄지던 것에 반해 2000년 이후에는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녹차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 ⑰



조선-다시(茶時) 일상화, 연담 같은 선승 나와
중국-큰 다상들 출현, 사회적 활동 많아

왕실에서는 변함없이 잦은 의궤(儀軌)에서 진다의례(進茶儀禮)를 빠뜨리지 않았고 다식(茶食)도 함께 썼다. 다시(茶時)는 일반인들도 평상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의 절차로 인식됐다. 차즘 움트는 새로운 학풍의 선비들도 차를 즐겼으니 순암, 안정복도 차인이었고 연담이나 지환화상 같은 선승들이 차 정신을 지켰으니, 선가(禪家)의 차는 식을 줄 몰랐다.

중국의 문인들도 차가 없이는 작품 활동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시문과 저서들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이즈음부터 특기할 것은 규모가 큰 다상(茶商)들이 출현해 차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 일본에서는 대전선사가 태어났다.

① 김인겸(1707~1772): <일동장유가>에 다모(茶母) 얘기가 나오고, 일본에서 차도 마셨다.

② 안정복(1712~1791): <잡동산이(雜同散異)>에서 혼례 때의 다례(茶禮)와 차 마시는 것을 기록했다.

③ 외교상의 의례 때 쓰인 다례에 관한 기록이 많이 전한다.

④ 숙종 45년 의궤에 다모 2명이란 기록과 송화다식을 준비해서 썼다는 기록이 있다.

⑤ 연담대사(1720~1799): 차를 즐겨 여러 편의 다시를 남겼다.

⑥ 지환화상: 화엄사 주지를 지냈으며 범음집(梵音集)에 '다각(茶角)의 축원문'에 대법회 때 불상에 유차(乳茶)를 올린다고 썼다.

⑦ 최눌(1722~1795): 차를 즐겨 다시도 남겼다.

⑧ 청사(淸使)의 공물 중에는 법랑다완(琺瑯茶盌)이 들어 있다.

⑨ 청나라 오진신(吳振臣) 등이 찬술한 것으로 다목(茶木)을 분(盆)에 이식해서 꽃이 피게 하는 내용을 싣고 있다.

⑩ 차를 즐겨 궁중에서 다연(茶宴)을 자주 거행했고 왕공대신들에게 차를 나누어 주었다. 차의 산지를 답사하고 여러 곳의 명차를 직접 마셨으며 시를 지었다.

⑪ 조설근(1715~1763): 그의 <홍루몽>에 다시가 많이 나온다.

⑫ 이린: 청대 다상(茶商)으로 200여 년간 명성을 지켰다.

정유화: 함풍년간에 상해에 다호(茶號)를 내고 동생 유생(裕生)과 함께 다계에 활약했다.

왕진화: 다업을 크게 일으켜 박람회나 농공상부의 일등상을 수상했다.

⑬ 기윤(1724~1805): 우루무치에 귀양 갔다 온 후 <우루무치잡기>에서 다사(茶事)를 썼다.

⑭ 원매(1716~1798): <수원시화(隨園詩話)> 등을 남겼고 차를 아주 즐겨했다.

⑮ 대전선사(1719~1801): 상국사(相國寺)의 스님으로 매다옹(賣茶翁)과 친하게 지냈으며 그의 차 정신을 이어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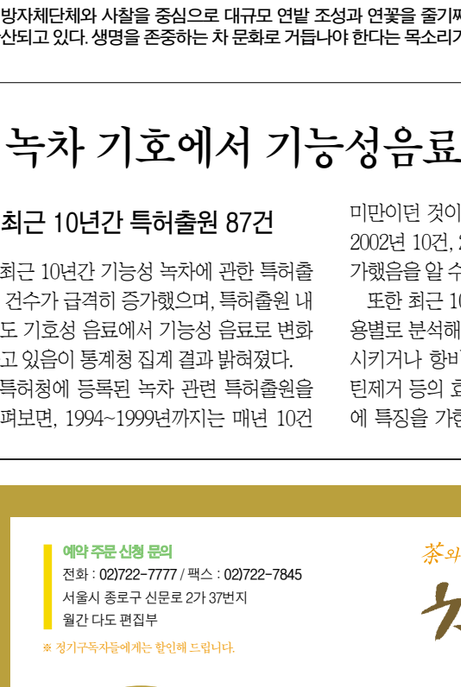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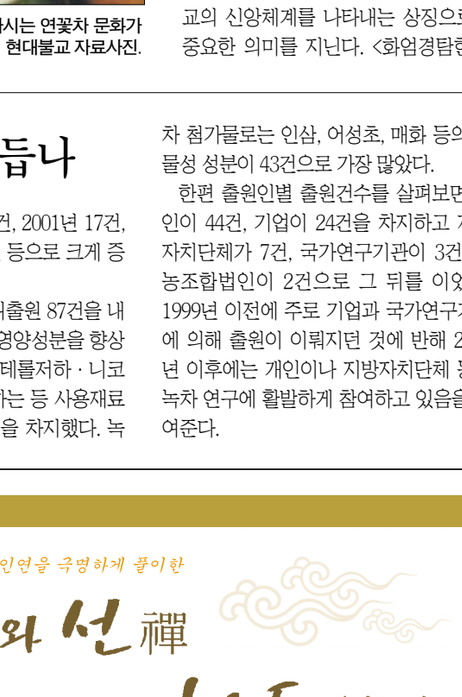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청대	강호시대
1707 김인겸(金仁謙)의 출생 ① 1712 안정복(安鼎福)의 출생 ② @ <통문관지(通文舘志)> 간행 ③ 1719 진연의궤(進宴儀軌) ④ 다시(茶時) 1720 연담(蓮潭)대사 ⑤ 1721 범음집(梵音集) ⑥ 1722 최눌(最訥)의 출생 ⑦ 삼남(三南)의 양전사목(量田事目)에 민원 1723 공물에 다기 포함 ⑧ 1725 다시(茶時)	1704 전당시 찬집 1705 승주다마사 폐지 1710 <민유우기(閩 遊偶記)> ⑨ 1711 고종(애신각라)의 출생 ⑩ 1715 조설근(曹雪芹)의 출생 ⑪ 1716 강희자전 완성 @ 다상들의 활동(이린, 정유화, 왕진화) ⑫ 1724 기윤(紀昀)의 탄생 ⑬ @ 원매(袁枚)의 활동 ⑭	1719 대전(大典) 선사의 출생 ⑮ 1724 신정백석(新井白石)의 죽음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예정



곧 발간됩니다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현대불교 제541호
서기 2005년 8월 31일
(음력 7월 27일) 수요일

밖으로 찾지 말고 철저히 믿고 맡기세요!

(540호에 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백종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성취하십시오. 또 백종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것 그대로가 백종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대로 무심세계, 유심세계 둘이 아니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심세계 유심세계가 둘 아니게, 정신과 물질인 몸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으니 항상 백종이죠.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백종이 따로 없고 현실 과거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항상 영원하게 자유자재권을 얻어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도록 노력하십시오.

내가 말은 이렇게 허명하고 허실하게 했지만요, 듣는 분들은 아주 심사숙고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 제가 오래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스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몸을 주물러 달라고 하신 다음에 뼈로 되셨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 몸을 주물러달라고 그랬는데 뼈다귀만 남았더라 이거예요?

▲질문자1: 예.

▲스님: 어, 그러니까 살을 찾지 말고 뼈를 찾아야 골수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 소리죠. 아, 안 그래요? 하하하. 사람이 고깃덩어리를 찾아서 되겠어요? 고개 기우뚱거리지 마시고, 아주 간편한 꿈 잘 꿨는데요, 뭐.

▲질문자2: 저는 정신이 안정치가 않아서 스님의 지도를 받을까 싶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열이 항상 위로 상기되면서, 그러니까 지난 94년 연초에 열이 상승하기에 침을 맞았더니 역기(逆氣)가 돼가지고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역기가 된 이후로부터는 시력이 차차 떨어지고, 또 집중력과 포착력이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지금 이 시점에는, 95년 1월 연초부터 마음공부를 하면서 계속 스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관(觀)하고 관하고 했는데도, 공념이 머리에 항상 떠오르기 시작해서 공념 자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관하는 법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주인공 찾기를 이름만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2: 네, 주인공을 많이 찾고 있지요.

▲스님: 네, 많이 찾고 있어도요, 맷돌에 물건을 넣지 않고 굴리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깊은 마음 속에 진짜로 믿는 것은요, 잘된다 낫는다 못 낫는다 이걸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기를 형성시켰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죽으나 사나 믿는 거죠. 낫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신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진짜 콩씨는 콩과 콩싹이 어느 것 하나가 없어도 안 되죠. 콩이 콩싹을 만들지 않으면 콩싹에 콩이 보이지 않구요. 그러니깐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을 자꾸 둘로 보시고 그저 주인공이 나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벌써 이게 통신이 돼야 심성의학이 되죠. 통신이 돼야,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념이 두텁고 그만큼 진실하고, 그만큼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을 가지고 움죽거리지만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움죽거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송장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근본,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만 하니까 이게 됩니까? 그러니 되려고 하지 마시구요. 저 나무가 하는 소리가 '뿌리야 뿌리야, 너 뿌리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네가 네 싹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누렇게 지금 떠 있다.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여!' 하고 뿌리에게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그래, 나를 너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 수분과 철분 모든 것을 올려보내마.' 그러니까는 '아, 그러냐!' 고 좋아서 하더니만 그렇게 싹이 푸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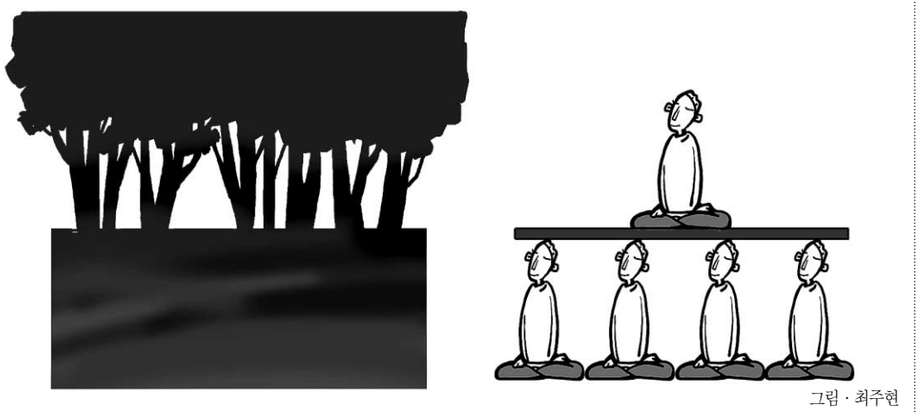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살을 찾지 말고 뼈를 찾아야 골수를 얻을 수 있느니라!

지더랍니다.

그런 것과 같이 모두가 저런 꽃나무고 나무고 식물이 말 안 하는 것 같죠? 말 꼭 합니다. 오히려 진지한 말들을 하죠. 여러분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만 식물들은 진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꽃이 돼서 꽃 한 송이 줘서 참 마음이 기쁘다면 하(下)중생들이, 즉 우리가 부처님 믿는 짝이죠. '꽃공양을 올려서 내가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대담을 하면서 서로서로 이 나무에 가서 놀다가 저 나무로 가고, 저 나무에 가서 놀다 이 나무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구요. 이렇게 좋은데 나무들도 때에 따라서는 흙이 가려서,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인간으로선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그런데 나무들로 봐서는 흙이 가린 거죠. 흙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봐서 자기 뿌리하고 연관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역시 자기 뿌리를 무명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나무들도, 예전에 외국 가서도 보고 그러면, 눈이 내리고 바람이 세고 그렇게 해서 그 앙상한 가지들만 남은 나무들을 보면요, 내가 빙긋이 웃고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참 족하도록 정말 인내가 있구나! 다시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앙상한 가지를 떨며 기다리는 그 인내, 너도 참 아름다웁구나!' 그러면서 히죽이 웃고 돌아서지만 그 차가운 들에 바람은 쌩쌩 불고 옷깃 여밀 것도 없는 그런 앙상한 가지도 '그저 내년 봄이 오면 여밀 옷깃이 생기겠지.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일분 일초 후도 미래니까 미래로 전진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거짓 없이 해야 하지만 이쪽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주 잘 화합하게 만들어주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융통성이고 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실히 믿으시구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앙상한 가지는 뿌리를 믿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선생님도 뿌리를 믿고 기다리시면서 '너만이 봄이 오게 할 수 있고, 너만이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지 딴 사람이 할 수는 없다.'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되겠죠.

▲질문자2: 스님, 감사합니다.

앙상한 가지는 뿌리를 믿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3: 우매한 중생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감로법을 펼치시고 한마음 공부를 하여 참나를 찾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시는 큰 스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지원에서 왔습니다. 질문에 앞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간질환으로 입원했던 92년 7월, 이제는 도반으로 함께 공부해가는 친구의 간곡한 포교로 한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퇴원 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님을 처음 친견하니 "열심히 관(觀)하세요. 죽이는 것도 주인공 그라, 한마음요전' 등 대행 스님의 행장기와 감로법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으며, 법문 테이프와 설법 비디오테이프도 시간 나는 대로 듣고 보고 하니 처음 볼 때와 두 번째, 세 번째의 느낌이 다르고 가슴에 가깝게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이런 무한한 부처님 법이 있는 줄을 생각조차 못하다가 짧은 기간에 감지됨으로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왜 이제야 인연을 맺게 되었는가 하고 후회를 했으며, 스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친견을 했으며, 또 식도 출혈이 있어 입원하여 수술 직전에 전화를 드려 "곧 수술을 하게 되어 스님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전화로 괴롭힙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전부가 본래 내가 나온 그 자리에서만이 바르게 할 수 있고 낫게도 할 수 있으니 의사도 둘이 아니라고 믿고 맡기세요." 하시므로 마음의 다짐을 하고 수술을 할 때 '주인공,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잖아!' 하고 다른 생각 없이 관하다가 보니 별 통증 없이 수술을 마쳤고, 평소와 같으면 회복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던 것이 관하고 있는 중에 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 통증이 멈추어졌습니다.

금년 4월에는 탈장과 다리에 부종, 배에 복수가 심하고 혼수가 와서 일요일이었지만 염치 불구하고 전화를 드려 사정 말씀 드렸더니, "복수가 있으면 힘이 드니 병원 가서 복수를 빼세요." 하시면서 "병원 가더라도 그 자리에 믿고 맡기면 틀림없이 치료됩니다. 죽고 살고를 떠나야 하며 꼭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밖으로 찾지 말고 얼마나 철저히 믿고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시므로 힘을 얻었습니다.

입원 시 74kg이던 체중이 17일 만에 퇴원할 때 58kg으로 줄어 있었으나 담당의사 말씀이 특이체질인 것 같다 하며, 다른 환자 같으면 1개월 이상 걸릴 것을 17일 만에 퇴원하니 빠른 퇴원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어찌 이 한마음 도리를 알겠습니까. 물론 당신도 둘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고 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3년간 일곱 번의 입원을 하였으며 병원 입원 시 출혈이 심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도 깨어나지 못할 것이란 얘기를 저의 처를 보고 경고하며,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라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공부지만 이 병고가 있음으로 해서 한마음 공부와 큰스님과 여러 스님들, 그리고 수많은 법우들과도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제 병고도 둘이 아니고 주인공의 나툼이라 알게 되었으며,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걱정이 되지 않으며 그저 둘이 아닌데, '주인공, 네가 낸 것을 거두는 것도 너만이 거둘 수 있고 낫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며 내가 나온 본래의 그 자리에 믿고 맡겨 놓아 나가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부의 재료로 삼아 더욱 열심히 한마음 공부 하고 있습니다.

스님! 저의 건강이 아직 완쾌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되었으며, 마음공부를 가르쳐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병고로 인해서 치료의 가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생이 다하도록 이 공부 열심히 하여 견성토록 하여, 스님께서 베푸시는 살신성인 정신과 부처님의 법을 펼치시고 우매한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 길을 뒤따르고자 스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한마음의 도리에 의한 생활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에 입원하여 5월에 퇴원 후 친견 시 17일 만에 퇴원했단 말씀 드리고 "큰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스님 덕분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대견해요, 주인공에 믿고 맡기니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되었잖아요. 몇 달 몇 년이 걸려도 이 공부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 이도 있는데, 도반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도리어 감사하지요."라고 하신 말씀, 너무 황송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친견할 때 스님께 드린 말씀이 다음 친견 때는 더욱 건강한 모습과 더욱 좋아진 모습으로 뵙겠다고 했는데, 퇴원 당시 58kg이던 체중이 현재 66kg이며, 의사 진찰 결과 80%이상 결과가 호전되었답니다. 이것은 오직 주인공의 나툼과 스님의 법력 덕분이므로 더욱 한마음 공부 정진 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매한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한마음 공부를 하는 도반들은 평소 공부할 때 직접 체험도 하였을 것이고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 같이 공부한다는 뜻으로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젠가 법당에서 좌선을 하고 있던 중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더니만 부처님 형상을 주시하게 되었는데, 부처님 속으로 제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좌선하는 저를 내려다보니 눈은 뜨고 있으나 모습이 몰입 상태 그대로이더니 이번에는 부처님이 저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저와 하나가 되었다가, 얼마 후 부처님과 제가 각각 별개로 되돌아간 후 정신이 들어 생각하니 잠든 것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것 같은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지난 6월 셋째 주 정기법회 이틀 전 새벽 4시

☞30면으로 계속

죽으나 사나 진짜로 그냥 믿을 수 있어야

☞29면에서 계속

경, 관하고 있는데 스님의 가슴에서 아주 밝은 빛이 직선으로 뻗어 나와 강렬하게 저의 가슴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연결되었으며, 자력 광력 통신력도 함께 통하고 있다고 마음이 내어지므로 눈을 떠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몽사몽간에도 정기법회 전에 나를 공부시키려는 주인공의 나툼이라 생각되어 주인공으로부터 나온 본래의 마음자리에 되돌려 놓으며 '스님, 감사합니다. 주인공, 감사해! 꿈도 생시도 둘이 아니며 스님과도 둘이 아니잖아.' 하고 맡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과 같이 공부 중에 일어나는 주인공의 나툼인지, 아무 뜻도 없는 일장춘몽과 같은 것인지요? 이런 때 더욱 정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정이 나서 감로 법문 청하옵니다.

▲스님: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부처님 앞에 들어와서 내 모든 일체를 다 부처님한테 맡기고서 하라고요. 그래서 삼정례(三頂禮)를 하든지, 칠정례(七頂禮)를 하든지, 자기가 시간 여유 있는 대로 하고 나가면서, 끄트머리에는 자기한테 몽땅 넣고 가라구요. 주인공과 하나가 돼서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빛보다 더 빠른 거랍니다. 그리고 빛보다 더 빠르기도 하지마는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없어요, 굴곡도 없고요. 산도 뚫고 물도 뚫고 흙도 뚫고 어디든지 가죠. 돌아가는 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빛보다 더 빠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겁니다. 이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찰나에 들어오고 나가지만, 우리가 볼 들어오는 것 불 껴지는 것만 알지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모르듯이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틀림없이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알려서 공부를 더 반석에 놓이게 할 양으로 그러겠죠. 그렇다고 해서 '난 그렇게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걸 봤으니까 이만하면.'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감사하게만 생각하시구요.

▲질문자3: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가 불러 배의 압력이 높아서 오른쪽 하복부에 탈장이 있는데 수시로 주인공에 관하여 놓아나가나 다른 병고는 직접 체험도 되고 관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탈장만은 갈수록 심하여 크게 빠져나와서 뭉쳐지면 배 전체와 허리가 끊어질 듯이 통증이 있습니다. 눕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손으로 빠진 탈장을 누르고 앉아 있거나 서거나 걸어가거나 하고 있으니 그 불편함은 이루 말로 표현키 어렵습니다. 스님, 저의 관하고 맡겨 놓는 공부 방법에 잘못이 있는지요? 어떻게 했으면 원상복구가 되도록 나아질는지요? 스님의 법력으로 한마음 내어주십시오.

▲스님: 그런데 그런 것도요, 빠지면 이렇게 들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어 보이시고) 들어서, 왜 화장실에 물 이렇게 내려 보내고 안 내려 보내는 줄 있죠?

▲질문자3: 네, 네.

▲스님: 줄이 느슨해도 잘 안 내려가고, 또 너무 조여도 그게 펄떡 뒤집혀서 안되죠. 그러니깐 고거를 조금 위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매놓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세요.

▲질문자3: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렇게 하시면, 그것이 입력이 되면 될 겁니다.

▲질문자3: 그럼 세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병원 입원 시 같은 병실의 옆 침대에 간질환으로 먼저 입원한 환자가 있었는데 역시 불자이므로 한마음 공부에 대해 포교도 하고 스님 법문 테이프와 여러 가지 법문집의 책자도 전해주어 공부를 시켰는데, 처음은 반신반의하며 테이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밤에 관하고 앉았으면 저는 없어지고 옆 침대의 환자의 관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이 삼사 일 되었는데, 어느 날 관하다가 그대로 잠이 든 것 같았는데 꿈속에서 옆 환자가 간경화가 아니고 간암이며 중증이라는 꿈이 꾸어지고 난 후 눈을 뜨니까 다음날 새벽 4시였으며, 그날 오전 중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난 후에 담당 의사가 오더니만, 내일 중에 그 사람의 형제자매들에게 전부 연락해서 병원 오라고 하라 하며, 컴퓨터 촬영 건으로 상의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저는 저의 꿈이 틀림없구나, 하고 깜짝 놀라면서 밤새워 간암 환자인 그 사람을 위해 한마음으로 관을 했는데, 그 이튿날 처와 모친 형제자매가 의사를 만나더니 스님을 친견하면 우리 아들의 병이 나을 수 있겠느냐고 하므로, 일심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고 맡기면 틀림없이 치료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는 아직도 간경화인 줄만 알고 있으면서 서울대학병원에 간다면서 퇴원 수속 후 서울로 갔는데, 가기 전 간에 좋다는 얘기만 들으면 전국 어디든지 가서 한약과 양약 조제약 등을 구해다가 환자에게 먹이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눈물겨운 정황이었습니다.

서울 가서 십여 일 후, 상태가 더 악화되어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에 안양 본원에 들리려다가 비행기를 타게 되어서 그냥 내려왔다는 둥 저와는 가족들과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통화를 했으며, 부산 내려온 후 스님 설법 비디오테이프도 전해주고 열심히 관하라고 했더니 환자가 정성껏 비디오테이프로 법문을 듣고 하더니만 스님을 친견을 했으면 한다기에 방법을 얘기해줬더니 가족들과 승용차편으로 안양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양에 도착하니 부처님 오신 날 직전이라 큰스님 친견을 못하고 주지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관하는 법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 시간 이후 환자는 오직 법문이나 설법 내용에 심취하여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마음 주인공, 둘이 아닌데 정말 감사해. 그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며 관해졌으며 7, 80%는 그 환자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 안양 다녀온 다음 날부터 부산지원에 환자 부인이 열심히 공부하러 다녔으며, 저도 그 환자 부인을 데리고 스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매일 다니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재입원을 했다는 소리를 하면서 환자 상태가 선원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부인이 오전에 선원 왔다가 병원까지는 저의 처가 차로 태워주곤 했습니다. 제가 5월 20일이 지나서 퇴원을 하게 되어 스님께 무사히 퇴원한 것에 대해 감사말씀 드리려 안양 간다 하니 환자 부인이 자기도 가고 싶다 하므로 같이 와서 저의 퇴원에 대한 감사말씀 드리고, 그 환자의 자초지종을 그의 부인과 함께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오직 주인공만이 할 수 있으니 열심히 관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려오니, 환자는 오직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믿고 주야를 막론하고 열심히 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저의 처와 병문안을 가니 처음과는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으며, 3일째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다며 자꾸 토해진다는 얘기를 하므로 모든 것은 주인공의 나툼이니 속지 말고 열심히 관하라고 얘기하며 환자와 눈이 마주치는데, 제가 속이 편치 않아 역겨워지므로 휴게실에 나와서 잠시 누웠는데 저도 갑자기 혼미해지더니만 기절을 한 모양입니다. 기다리다 못한 저의 처와 환자 동생이 찾아와서 깨우는데 한참만에 정신을 차리니 전신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환자에게 가서 "한마음 주인공을 열심히 찾고 관하라." 고 한 후, "마음은 편안하지요?" 하니 토해지는 것 외는 통증도 없고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환자 부인이 2일째 선원에 안 나와서 병실로 전화하니 그 환자가 어제 새벽에 운명하여 영안실에 계신다 하므로 그 후 영혼을 위해 관해주면서 빈소에 가니, 모친 말씀이 약간 웃음 띤 모습으로 하나의 통증도 없이 잠자듯이 운명하더라기에 통증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한마음 공부를 짧은 시간이었지만 맛을 보고 몸을 벗었으니 다음 생엔 좋은 인연 만나리라 하고 관했습니다. 저도 아직 저의 공부가 완벽치 못한데 다른 환자를 위해 관하다 보니 환자의 병상태도 꿈에 보이고, 마지막 운명 직전 저녁에 환자와 얘기를 하던 중 제가 정신이 혼미해짐에 기절한 것이 어떤 연유인지 스님의 높으신 법문 듣고자 합니다.

▲스님: 너무 지극하게 하셨으니깐 그렇겠죠. 잠시 둘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 모르시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봤던들 그렇고, 차차 알아지실 겁니다.

▲질문자3: 감사합니다.

▲스님: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세요. 한마음 속에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심성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모두 첨단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5년 8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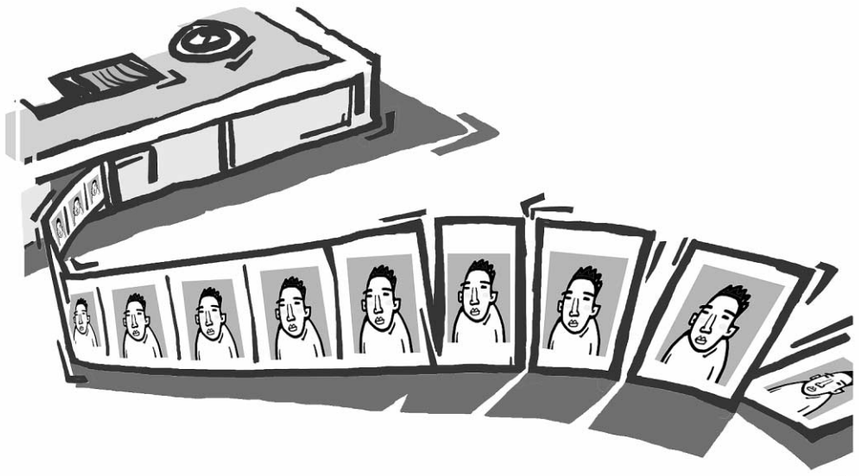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아름답고 진실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살아라

법비 내리는 곳! 부처님 광명이 충만한 곳!
동 해 사
어떤 소원도 이루는 곳. 기도영험 도량인 동해사에 오시어 소원 이루어 보세요


▶ 낙산사 홍련암 10분 소요
휴휴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3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점심 공양 제공(예약에 한함)
답답한 분 상담은 혜명스님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법비오는 곳 동 해 사
033)672-2900,671-6079

통증·근육통 완화
"관절 · 허리통증 · 어깨결림 각종통증"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먹고 2.바르고 3.찜질하고
123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적외선조사기
통증, 근육통완화
1·2·3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먹고 1 자생환 신비생기가활력
바르고 2 써바크림
찜질하고 3 적외선조사기
공동개발 (주)일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천연 양념… 건강이 가득

비타민 · 미네랄 등 면역 강화 영양분 다량 함유



천연조미료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기 건강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은 식탁 위에 천연조미료 열풍을 몰고 왔다. 천연 조미료는 양질의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 미네랄 등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풍부하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표고버섯가루를 비롯해 비린내 제거에 탁월한 재피가루와 말린 방아잎 등 다양한 천연조미료가 인스턴트로 가득 찼던 식탁을 서서히 점령하고 있다.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 스님은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에서 32가지 천연조미료를 선보였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는 천연조미료를 소개한다.



□ 표고버섯가루…수제비 칼국수에 살짝

바싹 마른 표고버섯을 믹서기나 절구에 곱게 · 거칠게 빻아 만든다. 된장찌개, 무조림 등 찌개나 조림에 넣으면 맛을 한층 진하게 내면서 씹히는 맛까지 더해준다. 고운 가루는 국 또는 수제비 칼국수 반죽에 넣기도 한다.

표고버섯은 항암 효과가 큰 글루칸 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고, 베타카로틴과 레티오닌 성분이 들어있다. 마른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고 항암 성분이 들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표고버섯가루는 생표고버섯보다 영양이 뛰어나고 향이 진해 약간만 넣어도 음식의 풍미가 좋아진다.



□ 들깨가루…나물무침 버섯요리를 고소하게

들깨를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간다. 특히 고구마 줄기나 우엉 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들깨즙을 넣어 조리하면 소화가 잘 된다. 또한 추어탕이나 고기류에 넣으면 느끼한 맛을 막아준다.

철분, 리놀렌산,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 · F 등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풍부하다.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수치도 조절해준다. 나물 무침, 볶음, 건어물 조림, 버섯 요리에 넣으면 고소한 풍미가 느껴진다. 고운 입자로 만들어야 드레싱 소스 등에 활용하기 쉽다. 들깨가루는 꼭 냉동 보관해야 한다.



□ 다시마가루…밥지을 때 · 찹쌀풀 쑬 때

다시마는 찌개나 국의 국물을 우릴 때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밥을 지을 때나 찹쌀풀을 쑬 때 한 장씩 넣으면 좋다. 가루는 조림에 사용하거나, 차로 마신다.

다시마는 칼슘과 베타카로틴 및 알긴산과 글루타민산, 요오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성장 발달 및 호르몬 대사와 골 대사,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다시마가루는 음식의 맛을 개운하고 깔끔하게 하는데 칼슘과 요오드 등의 미네랄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어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다. 다시마가루는 냉동 보관한다.



□ 송화가루…꿀에 타먹기

4~5월 초 소나무에서 송화를 채취해 말린 후 곱게 갈아 만든다. 예로부터 궁중에서 먹었던 송화가루는 풍, 노화방지, 피부미용에 좋다. 민간요법에 따르면 송화가루와 꿀을 타먹으면 감기예방에 좋다고 한다. 다식을 만들 때도 송화가루를 사용해 빛깔을 곱게 낸다.

송화차(松花茶)는 중풍 · 고혈압 및 심장병에 좋다. 또 폐를 보호하고 신경통 두통 등에도 효과가 있다.

송화가루에 함유된 칼슘, 비타민 B1 · B2 · E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치매예방에 좋다. 지방간 해소와 노화방지에도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백년초가루…국수 반죽에 제격

백년초를 물에 잘 씻어 가시를 제거한 후 말려 가루를 낸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유명한 백년초(부채선인장)는 식이성섬유, 칼슘, 철분 등 무기질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핑크빛이 도는 붉은 백년초 가루는 국수 반죽에 넣으면 고운 보랏빛이 난다.

백련초는 예로부터 해열진정, 기관지천식, 소화불량, 위경련증상, 변비, 가슴통증, 혈액순환 불량, 위장병, 뒷목이 당기는 증상, 비염 등에 민간약재로 사용됐다. 퇴행성 관절염과 두통, 불면증, 당뇨병, 부종, 고지혈증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 연밥가루…밀가루와 섞어 국수로

연밥을 말려 가루로 빻아서 사용한다. 밀가루와 섞어 연국수를 만들거나 연밥죽을 쑤어 먹는다.

연밥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하고 조루증에도 효과가 있으며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 특히 간장 췌장병을 예방하고, 대하증 혈뇨 자궁출혈 등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신장을 이롭게 하고, 불면증과 정력 증진에 좋다. 정기를 강하게 하며, 안색을 좋게 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연밥을 즙을 내어 먹으면 저혈압에도 효과가 있다.



□ 말린 방아잎…국이나 된장찌게 끓일때

가을철에 잎을 말려둔다. 생선찌개에 넣으면 생선 비린내를 가시게 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풍긴다. 국이나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다. 약간 쓴맛을 지녀 입맛이 돌아오게 하는 효능이 있다. 방아잎을 무침에 넣어 먹으면 깻잎 냄새에 가까운 독특한 향취가 입맛을 돋운다.

방아잎에는 에스트라골, 엘 리모넨, 알파 피넨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화 건위 지사 지토 진통 구풍 등의 효능이 있어 감기 어한 두통 식상 구토 복통 설사 소화불량 등에 사용한다.



□ 재피가루…비린내 나는 음식에

재피의 정식 명칭은 초피이다. 초피는 제피(경상도), 젠피(전라도), 조피(이북), 지피, 남추, 진초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산초 · 계피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다르다.

초피는 톡 쏘는 매운 맛과 상쾌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향신료로 이용한다. 추어탕, 민물고기 요리 등의 비린내 제거를 위해 초피가루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초피는 생선 비린내 뿐만 아니라 채소의 풋내와 육류의 누린내 등 잡 냄새를 없애고 입맛을 개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말린 재피열매는 껍질만 볶아 가루를 내어 양념으로 쓴다. 사찰에서는 김치 담글 때 파 마늘 대신 이용한다.

강지연 기자

사진제공=디자인하우스



맥은 원 · 상 · 결 · 유맥으로 구분

티베트의학에서는 맥관계(脈管系)의 존재와 중요성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 몸에는 여러 맥관들이 순환하고 있는데 크게 원맥(原脈-胎脈) 상맥(常脈-實脈)맥 결맥(結脈-合脈)맥 그리고 유맥(維命)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원맥 또는 태맥은 배꼽에서 뻗어나와 세 갈래의 작은 소맥(小脈)으로 갈라진다. 하나는 상행하여 뇌를 만든다. 뇌는 마음의 조화(造化)는 물론 무지의 원천으로 하나의 광활한 신경 대해(大海)와 같다. 당혹스럽고 울적한 기분은 모두 우리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몸의 베꼽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다른 소맥 하나는 간의 총간동맥으로 흑맥(黑脈-命脈)과 혈관을 만들어 낸다. 혈액은 노여움을 일으키는 열의 원인이다. 이 신체의 중간부위는 티빠가 위치한 자리이다. 마지막 소맥은 쾌감의 원천인 생식기신경총으로 뻗어 내려가 정욕을 일으킨다. 신체의 하부에는 룽이 자리하고 있다.

들어진다. 심장과 소장으로 연결된 백맥 4갈래는 룽의 기능을 돕는다. 폐 대장 간 및 담낭과 이어진 백맥 4갈래는 티빠의 기능을 돕는다. 위 지라 콩팥 및 방광과 연결된 백맥 역시 4갈래 있는데 베꼔의 기능을 돕는다. 생식기관에 이어진 백맥은 하나. 나머지 6갈래 백맥은 외측으로 연결된 관장맥(管狀脈) 보맥(寶脈) 그리고 마비맥(痲痺脈) 각 한 쌍씩이다. 부백맥(副白脈)도 11갈래 있다.

넷째, 유명맥은 생명 에너지가 돌아다니는 맥이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생명력의 에너지는 과거 생의 업과 현생에서의 섭생과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우리 몸에는 수명에 영향을 주는 생명력 에너지가 세 가지 있다고 한다. 그 첫째는 우리 온몸을 순환하는 열기(熱氣)이다. 열기는 위 장 그리고 결장뿐만 아니라 7대 신체구성 성분 특히 혈액에 있다. 이 열기는 우리 몸을 덥혀주고 감기와 오한을 막아주며 활력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 나이가 들어가며

유명맥은 생명에너지로 열기 식으면 죽어 한달 동안의 '명정' 순환경로 상세 기록 전해

둘째, 상맥 혹은 실맥에는 감각기관과 뇌를 연결하는 부맥(部脈)과 심장맥락총으로 연결되어 기억기능을 돕는 부맥이 각각 500개씩 있다. 제대맥락총에 있는 500개의 부맥으로부터 인체가 생겨났고 생식기신경총에서 시작된 500개의 부맥으로 자손이 만들어진다.

셋째, 결맥 또는 합맥은 그물처럼 우리 몸의 이곳저곳을 서로 연결해 준다. 결맥은 黑脈과 백맥(白脈)으로 나뉜다. 흑맥은 동맥과 정맥을 의미하며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명맥(命脈)이라 불린다. 이 맥은 간에서 시작되며 간은 또한 24개 주혈관의 기시점이 된다. 간은 근조직과 혈액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4개 주혈관중 8개는 체내 오장육부로 연결된다. 그리고 사지와 연결된 외부 혈관은 16개이다. 우리 몸에 사혈점은 77곳이 있고 사혈하면 위험한 취약한 혈관이 112개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360개의 작은 부혈관들이 우리 몸에 있다.

백맥은 오늘날의 신경계인데 뇌 척수 및 신경로로 이루어진다. 줄기는 뇌에 있고 아래로 뻗어나가며 대략 19갈래의 백맥이 만

열기는 점점 식어가고 쇠잔케 된다. 열기가 완전히 소진되어 우리 몸이 식으면 그게 죽음인 것이다. 둘째는 호흡과 더불어 순환하는 생명력 에너지다.

마지막 셋째 생명력 에너지는 명정(命精-生命精髓)으로 주로 심장에 위치해 머리에서 발끝까지 30일 월주기(月週期)로 순환한다. 남성의 몸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성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순환한다. 이 명정의 정확한 운행과 행방을 알아야 사혈이나 뜸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력 초하룻날은 명정이 남자에게서는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때 그 왼쪽 엄지발가락에 뜸을 뜨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티베트의서에는 음력 초하룻날 좌측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초이틀날 좌측 발목 초사흘 좌측 장딴지 초나흘 좌측 무릎…27일 우측 장딴지 28일 발목뼈 29일 우측 발목 그리고 마지막 말일에는 온몸으로 이동하는 명정의 순환경로가 날짜별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탈종공고

● 성 명 : 김 기 태

● 법 명 : 지 운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명륜1가 5-46
창신그린빌리 301호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한국불교태고종에서 탈종을 공고함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한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응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설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녀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 · 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araiva : 344~413) |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비로소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품반야경』 · 『묘법연화경』 · 『아미타경』 · 『유마경』 · 『금강경』, 용수의 『중론』 · 『십이문론』 · 『대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번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상적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

요산지안(樂山志安) 스님 | 통도사 벽안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를 지낸 바 있으며, 현재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겸 통도사 반야암 회주로 계신다.

자응(慈應) 스님 | 철오(徹悟) 스님을 은사로 출가. 동국대학교(경주) 선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선학과 한문학을 공부. 남국선원과 해운정사에서 안거, 수행정진하였으며, 조계종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불광출판부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200 전송(02)420-3400 http://www.bulkwang.org



MBC TV 대하드라마 '신돈'의 주인공들. 신돈 역의 손창민, 공민왕 역의 정보석, 노국공주 역의 서지혜(사진 위부터)

가을철 안방극장 '역사드라마' 한판 승부?



SBS TV의 '서동요'의 선화공주 역에 이보영(사진 왼쪽)과 서동 역을 맡은 조현재.

가을의 문턱 9월, MBC와 SBS가 잇달아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사극 '신돈'과 '서동요'를 각각 선보일 예정이어서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MBC-TV의 '신돈'은 주말 남성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 본격 정치역사극. 반면 SBS-TV의 '서동요'는 2030세대의 여성층 시청자를 겨냥해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그린 멜로드라마이다. 방영을 앞두고 있는 두 드라마를 살짝 들여다봤다.

신돈 VS 서동요

	신돈	서동요
장르	정치 역사극	러브스토리
시대	고려 말	백제(삼국시대)
주인공	신돈:손창민 공민왕:정보석 노국공주:서지혜	서동:조현재 선화공주:이보영 사택기루:류진
주 촬영지	고창 선운사	고창 선운사 부여 오덕사 인근

'요승' 이미지서 개혁가로 재조명
300평 규모의 법왕사 세트장 눈길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본떠 제작

 # 신돈

9월 24일부터 주말 안방극장에 방영될 '신돈(밤 10시)'은 MBC가 올해 10대 기획 중 하나로 추진하는 대작. 박종화의 소설 '다정불심'을 원작으로 공민왕과 원나라 노국공주의 사랑, 신돈과 공민왕의 개혁 등 고려 말을 배경으로 한 대하사극이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고승인 보우의 손에 키워진 신돈. 중국, 티베트 등지를 여행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뒤 중생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이상을 품고 고려말의 혼탁한 정계를 개혁할 그는 원나라 노국공주와 결혼한 공민왕을 도와 개혁을 시도하지만 모함받아 공민왕에게 죽임을 당한다. 신돈 역은 손창민, 공민왕 역은 정보석, 노국공주 역에는 신인 탤런트 서지혜, 보우국사 역은 임혁이 맡는다.

MBC 드라마국 정운현 부국장은 "'요승'의 부정적 이미지로 알려진 신돈을 개혁가로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손창민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은 신돈의 개혁 정치가의 모습과 스님으로서의 역할을 무난히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돈'의 주 촬영은 고창 선운사와 용인에 마련된 MBC 종합촬영장에서 이루어진다. MBC는 용인시와 공동투자로 총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인 종합촬영세트장을 만들었다. 이 세트장의 면적은 1만 여 평에 이르며 고려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사찰, 궁, 마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 세트장에 위치한 사찰의 이름은 '법왕사(法王寺)'. 300여 평 규모에 대웅전, 법고루, 요사채 등이 세워져 있다. 대웅전은 80평 규모에 부석사 무량수전을 본 떠 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으로 건축됐다. 세트장의 단청을 맡은 김윤오 단청장은 "역사사료와 문화재 관계자들의 자문을 통해 고려시대 불교의 단청을 재현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미륵사 창건설화 배경으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
승무 등 백제 불교문화 곳곳에

 # 서동요

SBS 월화 드라마 '패션 70s'의 후속 프로그램 '서동요(밤 9시50분)'는 9월 5일부터 방영된다.

'서동요'는 익산 미륵사의 창건설화를 배경으로 무왕(아명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를 로맨틱하게 담는다. '서동요'는 어린 시절 마(麻)를 파는 소년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를 만나 혼인 후 백제 30대 임금 무왕에 등극하는 과정과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SBS측은 '서동요' 제작을 위해 충남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덕용저수지 부근에 백제 오픈세트장을 건립중이다. 주 촬영지는 고창 선운사와 부여 오덕사 인근의 오픈세트장이다. 특히 서동요는 젊은층 시청자들의 채널을 고정시키기 위한 초호화 캐스팅이 눈길을 끈다.

주인공 서동은 조현재, 선화공주는 이보영, 선화공주를 놓고 서동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는 사택기루는 류진, 무왕의 어머니 연가모 역은 이일화, 서동의 양아버지인 백제 기술공방의 목수인 목나루 역은 이창훈 등이 맡아 물오른 연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출은 '대장금' '허준'으로 널리 알려진 이병훈 PD.

이 PD는 "무왕을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임금으로 그릴 예정이다. 재미있고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로 사극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무왕 집권당시는 백제불교의 황금기로 사료를 바탕으로 백제의 불교문화를 담아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다.

무왕의 어머니 연가모 역을 맡은 이일화는 현재 백제 전통춤 삼매에 빠져있다. 춤으로 왕에 눈에 띄어 서동(무왕)을 낳게 되는 역할을 연기해야하기 때문. 이일화씨는 "백제 전통 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되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춤사위를 보여주기 위해 매일 두 시간씩 교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불교 전문 음악 밴드 '해조음' 창단

8월 31일 첫 공연, '동자' 등 CD 수록곡

처서였던 8월 23일 부산 해인정사(주지 수진), 어디선가 맑은 노래 소리가 서늘한 바람에 실려 오고 있었다.

낙동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의 주인공은 창단 기념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불교음악밴드 '해조음'(사진).

8월 31일 오후 7시 30분 해인정사 종각 앞 특설무대에서 창단 공연을 갖게 될 '해조음'은 해인사 강주를 지내고 경전 강의로 이름 높은 수진 스님이 뜻을 내고 불자 음악인들이 마음을 보태 창단한 5인조 밴드다.

트롯이나 성악 일색인 찬불가를 지양하고 색다르고 친근한 불교음악을 만들고, 보급하기 위해 올 초 창단됐다.

수진스님과 30여년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리더 홍광현(39 · 선음), 맑고 단아한 음색으로 '한국의 카펜터즈'로 불리는 윤숙희(40), 금반의 조오령(30), 베이스 강신근(24), 보컬 김정아(32) 등이 해조음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해조음'으로 대중들에게 첫 인사를 하게 되는 창단 공연에서는 '동자' '해인' 등 포크풍의 노래들과 기타 연주곡 등이 선보인다. (051)291-1176

천미희 기자

